



峴山文化

제21호

襄陽文化院

농협은 항상 농업인 곁에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으로
우리 고장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합장실 : 671-0078
- 카도·공제계 : 671-0075
- 기획·총무계 : 671-0077
- 농기계서비스센터 : 671-0076
- 예금계·당직 : 671-0071
- 미곡건조처리장 : 671-4424
- 대부·채권관리 : 671-0072
- 양양농협주유소 : 671-1747
- 지도·구매·판매 : 671-0073
- 팩스 : 672-0076
- 하나로마트 : 671-0074



양양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208번지
홈페이지 : www.yyangnh.com



양양에너지월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한국중부발전(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 관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방법 : www.komipo.co.kr (20인이상부터 신청가능)
- 휴관 및 휴무 : 매주 월요일(명절연휴, 회사사정에 의한 지정일)
- 문 의 전 화 : 033)670-1414,1417 Fax : 033)670-1439

PHOTO CLUB



물치만세운동 90주년 기념식 행사



중국의 시 문화 특강



양양군지 편찬·집필·지원위원회연석회의



경로효친문예작품 시상식



문화원회원 선진지 견학



문화학교 학생 유적지 탐방



제3기 어르신문화 학교 수료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제9회 동구리 경창 대회



2009문화학교 수료식



2010년 신년인사회



〈표지사진〉

단기 4289년(1956년)에 강원도에서 발간한 道勢一覽의 표지 그림 낙산사 의상대 그림으로 당시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8
신년사 양양군수 이진호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김준식	12
신년사 국회의원 송훈석	14

특별기고

● 양양 언어 포럼 사업을 마치면서 진덕희(강릉원주대 교수)	16
-------------------------------------	----

향토사료

● 현산 삼십경 이종우 외 5명(향토사연구소)	20
-----------------------------	----

전설

● 조산 동명서원과 조인벽 선생	62
-------------------	----

설화

● 어성전(漁城田)	64
● 梅湖	65

향토단상

- 문현산학교작흥하양양인사에 대하여
| 장정룡 (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 ----- 66

민속예술자료

- 원일전리 풍구질 ----- 72

고문헌 자료

- 영혈사 고기록 ----- 80
- 한시 이야기 |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 84

문화해설사교육

- 스피치교육 | 주은정 (경동대 겸임교수) ----- 102

문화학교 운영

- 2009년도 문화학교 학생 수상 및 공연내역 ----- 112
- 2009 전국한시백일장 입선작 ----- 115

경로효친문예작품(최우수상)

- 경로효친 | 박민희 (조산초등학교 6학년) ----- 124
- 할머니의 어른공경 | 장설민 (양양초등학교 6학년) ----- 125
- 잦은 만남이 행복인 그 분들 | 김영주 (양양여자중학교 1학년) ----- 126

건강정보

- 몸에 좋은 건강식품 ----- 128

양양문화원 이모저모

----- 142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우리에게 부를 주고 노동력과 경제력을 준 순박한 소의해 기축년을 보내고 이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문화원이 괄목할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작년은 삼일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물치 장날 만세운동을 재현하였으며 1991년에 발간된 “양주지”를 18년 만에 “양양군지”로 개칭하여 증보판으로 발간을 시작하여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 300년 전 이해조(李海朝) 양양부사께서 읊으신 “현산 삼십경”을 번역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빛을 보게 되었고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양양의 6.25비화”를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녹취를 하여 발간함으로써 잊혀져가는 6.25의 비극을 재조명하고 어르신문화학교운영에 있어서도 3년차로서 연어해설사와 향토사해설사를 양성 배출하였으며 우리고장의 자랑인 연어를 통한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 문화 탐방으로는 인천대학교와 단양 팔경을 답사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제31회 현산 문화제를 문화원이 주관함으로써 문화축제의 민간주도 원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년고찰 낙산사가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인하여 안타깝게 원통보전을 비



못하여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고증을 거쳐 조선조 건축양식으로 4년만인 2009년 10월 17일 복원 불사를 하게 된 것은 크나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경인년 호랑이해로서 호랑이는 삼국사기나 설화 민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급할 때 도움을 준 용맹한 동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도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팔천년 전 신석기 문화를 간직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의 고장으로서 잊혀져 가고 묻혀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양양군지 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화탐방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견문을 넓혀 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생님과 수강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셔서 개인의 실력 향상은 물론 각종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입상하시어 우리 고장의 명예를 빛내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학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으로 국군의 날 제정기념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군의 날 기념관” 건립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전통문화의 고장으로서 자랑스러운 문화를 다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



양 양 군 수
이 진 호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우리 양양군이 매우 중차대한 시간의 한 역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에서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였고, 이제 가슴벅찬 출발의 기적을 올리지만, 올 상반기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간이역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새롭게 민선 5기의 역사적 서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신년의 인사를 나누며, 그간 한역 한역 지나왔던 소감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여정이 희망하는 미래의 중차역에 대해 다음의 몇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리군은 다섯 번의 대형 재난을 극복하며, 복구와 치유를 위해 쉽없이 밝음과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기록으로 남았으며,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집단적 승리의 값진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겨본 경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서 저는 이것을 자신있게 “군민의 성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군민의 의식은 완연히 깨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은 “참여와 헌신으로 열여가는 성숙된 군정”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그린(green)에코 양양”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각과 식견으로 무장한 건전한 참여와 비판들이 오색지역내 로프웨이나 손양지구의 종합스포츠타운 및 해양레저단지조성, 현남지구의 심층수 산업과 골프장건립, 아울러 양양시가 지내 소도읍 육성사업 및 장례식장 설치같은 군정 주요 핵심사업들을 더욱 바르고 유익한 방향



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갖춰나갈 이러한 웰빙, 생명, 건강 등의 에코시대 녹색산업들은 향후 개막될 동서, 동해고속도로 시대를 앞두고 그 경쟁력과 효용성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동서의 큰축인 수도권과의 직항연결은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을 촉진시키고, 인구유입을 일으키는 등 더욱 많은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내면서 지역경제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 고속국도시대가 하늘길의 양양국제공항과 바닷길의 여운포 신항만과 같은 항공·해상교통들의 당위성과 부활을 선도하면서 상호간 연계를 모색한다면, 우리군은 사통팔달의 한 꼭지점을 완성하며, 동해안권내 명실공히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한 중심 지자체로 우뚝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에 한발 더 다가가기위해선 우리의 여정에는 반드시 인간적 헌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값진 헌신이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소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계층과 성별, 연령을 아우르며 우리 모두를 새로운 융화(融和)의 시대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신년의 아침에 우리가 나누는 새해 인사에는 이러한 묵시적 약속과 화합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2010년은 한해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10년의 시작입니다.

이순간 경인년 새 해를 힘차게 열고, 다같이 우리의 여정에 흥(興)과 장단을 불어넣읍시다!

군민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김준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인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1호 현산문화지가 군민들의 기대 속에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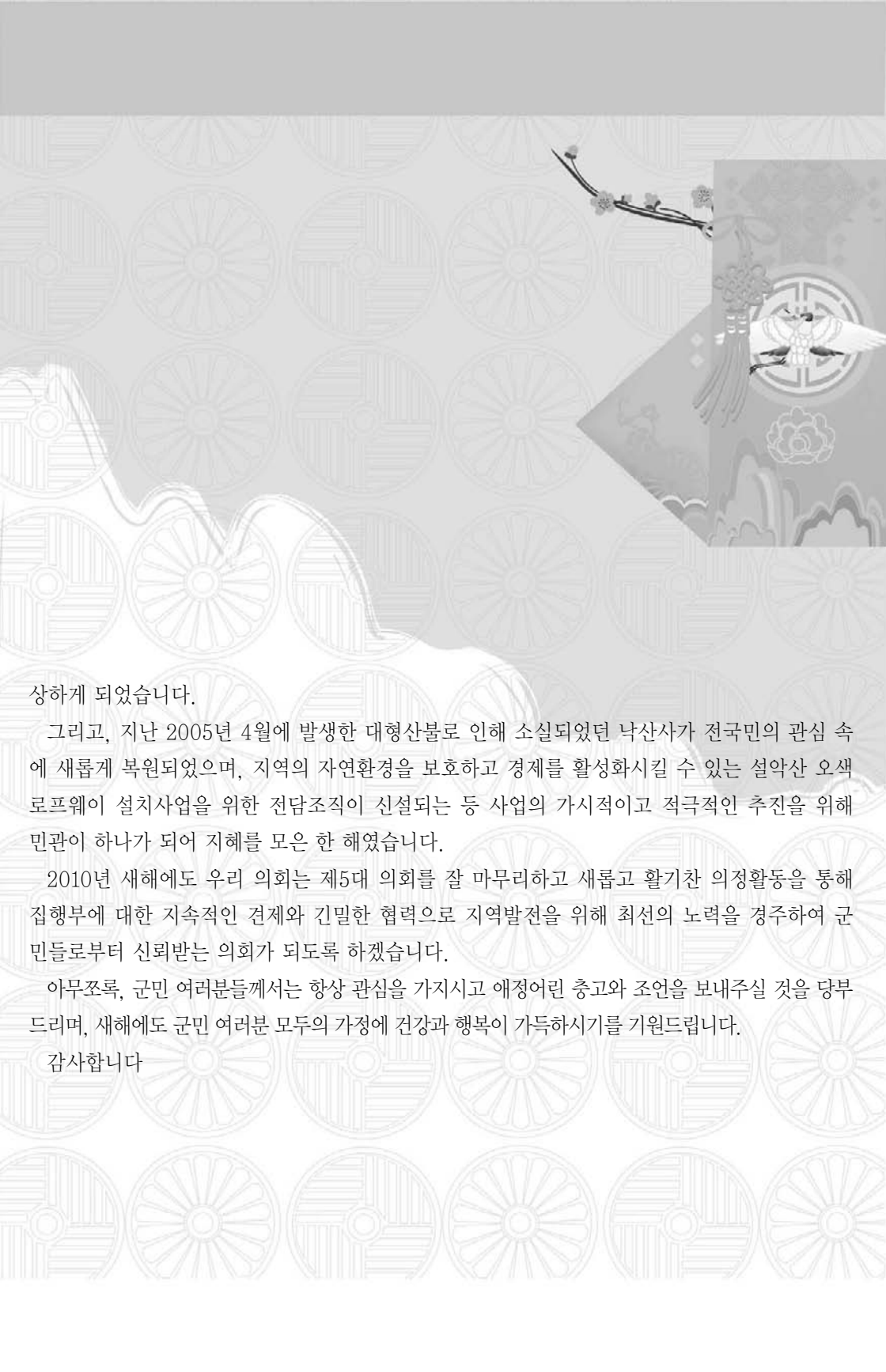
먼저, 역사적 숨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현산문화지 발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주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군정 및 의정,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도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남면까지 통합상수도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조·천연 잔디구장 및 풋살구장, 실내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싸이클경기장 조성사업이 기공함에 따라 전통있는 싸이클 고장으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갖추 수 있게 되었으며,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준공과 동시에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도 개최지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급부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4월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소실되었던 낙산사가 전국민의 관심 속에 새롭게 복원되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를 설치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사업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은 한 해였습니다.

2010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제5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국 회 의 원
송 훈 석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범피해를 맞이하여 양양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양양군의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단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현산문화」 제2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양양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산문화’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양양문화원 양동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현산문화’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양양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나간 기축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두 분의 정치도사를 잃는 슬픔을 겪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야만 했으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용맹스러움과 기백(氣魄)의 상징인 호랑이는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가 활짝 기지개를 펴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지역주민 모두가 번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양양군민 여러분들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들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오색집단지설지구 및 연어테마산업·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양양 해양심층수 특구지정 등 양양군의 주요현안 사업과 동서고속도로 등이 양양군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은 보다 깨끗한 정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음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산문화」 제21호 발간을 양양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 연어 포럼 사업을 마치면서

진덕희 (강릉원주대 교수)



양양군은 영서의 인제군, 홍천군 등과 함께 강원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동해와 접하며 서로는 태백산맥의 준령을 기점으로 하여 인제군과 접해있고 남쪽은 강릉시와 북쪽은 속초시에 접하여 4개 시·군, 8개 읍·면·동과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어 방류 사업은 현재 양양 남대천, 섬진강, 태화강 등 전국 14개 하천에서 하고 있으며, 연어는 전국 12개 하천으로 회귀하고 있다. 연어 방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14개 하천중에서 양양 남대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귀율과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5-10억원 정도의 어업인 소득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연어의 고장인 양양에서는 매년 연어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송이축제와 더불어 양양의 대표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연어의 산업자원화 및

식품학적 가치에서는 연간 수만마리 수준의 어획량으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으로서 선호도가 높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대중식품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천회귀성 어족으로 식용 및 산업의 기능보다 감성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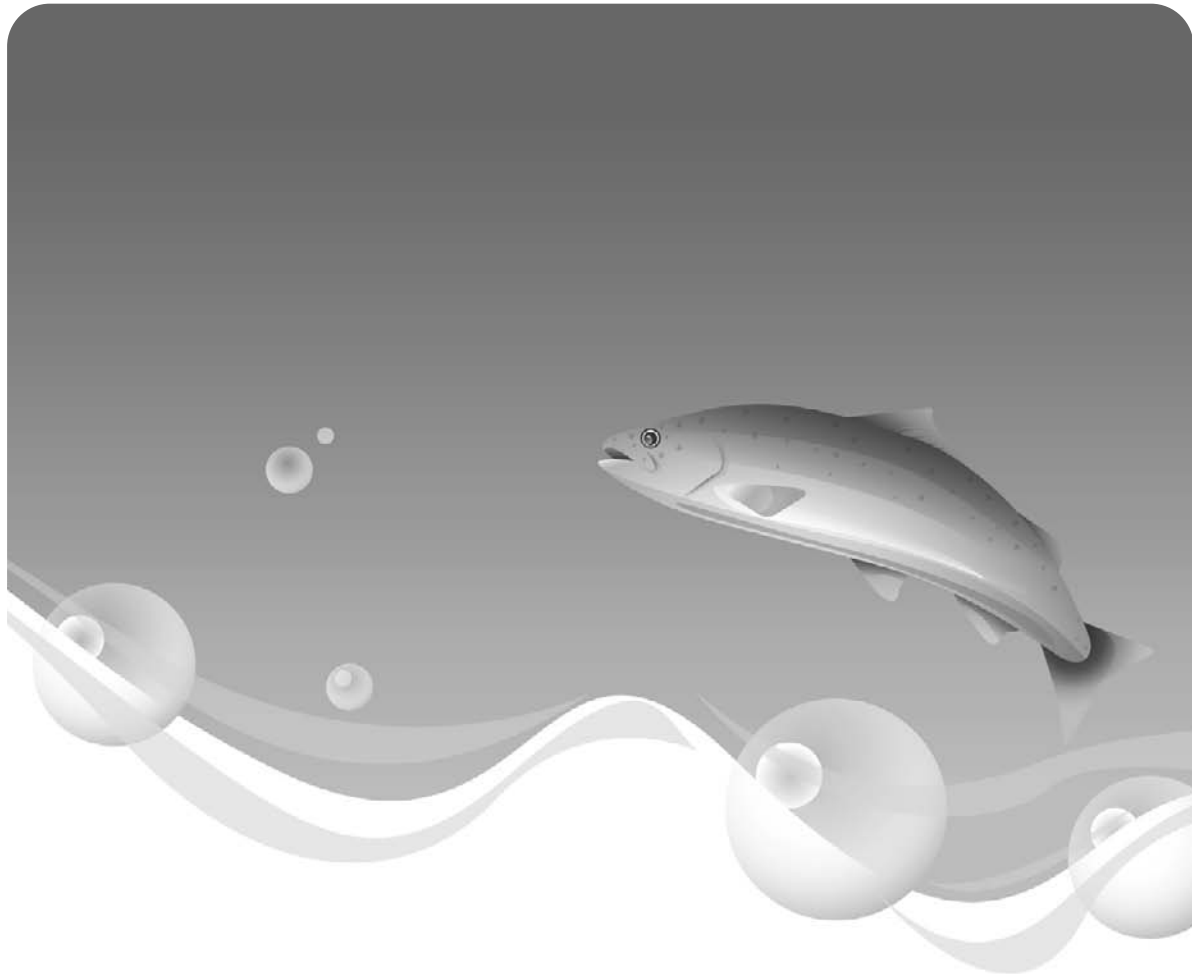
이에 연어의 산업, 관광, 식품학적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연어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포럼, 세미나 등 지방 차원의 기초연구와 지역의 산업자원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연어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더불어 연어를 테마로한 참신한 아이템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연어 자원화 산업의 초기 단계인 홍보 분야의 단계로서 연어 산업이 작게는 지역 발전과 크게는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연어 관련 산업과 부차적인 2차 산업에서도 막대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예로서는 연어 가죽을 이용한 피혁제품의 개발로서 기존 피혁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신소재로 독특한 직감, 무늬,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피혁원단에 비하여 인장강도, 내구성 및 내한성이 우수하다. 연어피혁의 특징은 독특한 비늘 무늬를 형성하고 있기에 모든 제품에 다른 형태의 패턴을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멋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조피혁으로는 모방 불가하며, 일반 피혁과 차별되며 독특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연어 피혁 산업의 단점은 연어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성의 명분이 부족한 상태이다. 연어 자원화 사업은 한 종류의 아이템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공존하는 소재로 대단히 귀한 산업 소재이며, 연어라는 한 가지 소재로 종합적인 산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으로도 연어 자원화 산업은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으로 인하여 패션 사업을 제외한 각 산업 분야는 현재 자생력이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산업은 서로 유기적인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어 자원화 사업은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 질 경우 가장 좋은 사업 소재임은 분명하며,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관광지에서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 관광기념품이 개발되고 있다. 지역관광 상품 중에서 특히 관광기념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써 지역의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 등의 다양한 속성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생산적 기능뿐 아니라 홍보적 기능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이미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의 슬로건, 캐릭터, 심벌등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마다 문화상품 및 아트상품, 캐릭터 개발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많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특징적이며 독특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관광수입으로 이어지며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양군도 개발된 캐릭터들의 상품개발을 성공적으로 기획하여 양양군 관광산업 및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문화상품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어의 명품화를 위한 일본 북해도의 연어산업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연어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서의 자원으로 그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

비록 그 규모는 일본에 비하여 작지만 양양 남대천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연어 소상 하천이다. 가치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은 자연, 생태, 녹색 성장, 인문학적 가치와 긴밀한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들 가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일본이 오늘날의 연어 강국이 된 배경에도 바로 이 같은 연어 또는 연어 소상 하천의 자연생태적 가치에 대해 일찍이 눈뜬 시민 의식이 있었다. 다만 일본은 의식에 머물지 않고 실천한 시민운동, 공공의 지원, 어민과 가공업체 등 생산 단체의 노력, 학문적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반면 양양의 경우는 양양내수면연구소 설립과 함께 연어의 인공 부화·방류가 시작된 1984년으로부터 25년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매년 봄 어린연어를 방류할 때 한차례, 연어가 돌아오는 가을철에 연어축제를 열어온 정도이다. 특히 연어의 인문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적 여건보다는 지역내에서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시 100만 시민에게 “연어는 ‘마음의 풍요’를 제공하는 생태환경이다”라는 홋카이도대학 아키히코 하다 수산학부장의 조언은 아주 추상적이지만 양양 연어의 자원화, 산업화를 위한 열쇠임에 틀림없다.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력, 연어 자원의 양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지닌 일본에서도 오늘과 같은 연어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30-4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이 이뤄놓은 것이 부럽다고 시간과 여건, 의식과 인식을 뛰어넘어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욕심일 뿐이다. 그렇다고 기다리고만 있어도 여건이 무르익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라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자체의 힘을 모으고,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시작이자 양양연어의 자원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몇몇 실천적 제안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연어포럼이 양양 연어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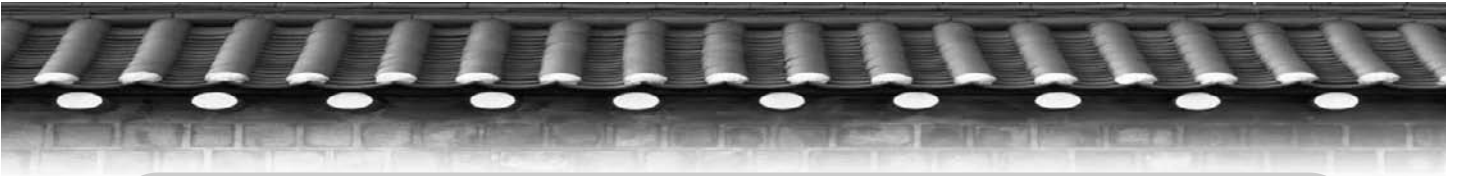
향토사료

峴山三十景 (현산삼십경)

이종우 외 5명 (향토사연구소)

峴山三十詠

山水之難於兼備 猶人才之不能通該 雖一丘一壑一水一石 尙難兼有耳并觀 而況於江山之大 而況巨海名嶽
 산수지난어겸비 유인재지불능통해 수일구일학일수일석 상난겸유이병관 이황어강산지대 이황거해명악
 之相值而具美者乎 我邦嶺東八景 惟高襄二境背嶽臨海 襄之雪嶽 世稱小金剛 而洛伽之天造神創 望海宏
 지상치이구미자호 아방영동팔경 유고양이경백악임해 양지설악 세칭소금강 이낙가지천조신창 망해평
 豁 又可與高城之海山亭 爭其甲乙 此眞山海之具美者 而且其邑號適符於中華勝區 峴山漢水 雖倣古立名
 활 우가여고성지해산정 쟁기갑을 차진산해지구미자 이차기음호적부어증화승구 현산한수 수방고립명
 山翁叔子之風流餘韻 顧名興懷 想像而不可忘 其粧點湖山 賁飾物態者 可謂 增價百倍矣 邑舊無誌 樓觀
 산옹숙자지풍류여운 고명흥회 상상이불가망 기장점호산 분식물태자 가위 증가백배의 읍구무지 루관
 寺刹 間有寂寥篇詠 而只記一時一區之景而已 曾無搜別一州之勝觀著錄而表章者 余甚惜焉 迺攷勝覽所載
 사찰 간유적요편영 이지기일시일구지경이이 증무수척일주지승관저록이표장자 여심석연 내고승답소재
 且訪邑 中耆舊 篇爲峴山三十京 各府短章 略記其勝 仍要三淵金子益和之 噫! 永州溪山 特是窮荒絕激
 차방읍 중기구 편위현산삼십경 각부단장 약기기승 영요삼연김자익화지 희! 영주계산 특시궁황절격
 黃茆苦竹間 尋常一淙崢而自經子厚題品 得與名山大湖并傳而齊美 至今讀其記者 不覺竅然神遊 而今此溟
 황묘고죽간 심상일종쟁 이자경자후제품 득여명산대호병전이제미 지금독기기자 불각요연신유 이금차명
 岳仙區 瓌覽異蹟 無人發揮 山水之亦有遇不遇者 豈不信哉 顧余無文 不可謂山水遇其人 而余之遇山水則
 약선구 괴람이적 무인발휘 산수지역유우불우자 기불신재 고여무문 불가위산수유기인 이여지우산수적
 幸矣 姑以掘詠及和章 揭諸屏間 以俟後來者之因此闡發焉。
 행의 고이굴영급화장 계제병간 이사후래자지인차천발언.



峴山三十詠(양양의 삼십경을 읊다)

현 산 삼 십 영

山水之難於兼備 猶人才之不能通該 雖一丘一壑一水一石 尚難兼有耳并觀 而況於江山之大 而況巨海名嶽
산수지난어겸비 유인재지불능통해 수일구일학일수일석 상난겸유이병관 이황어강산지대 이황거해명악

之相值而具美者乎

지상치이구미자호

산과 물이 대적할 수 없이 진귀하게 서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내같은 재주로 전부를 충분히 꿰뚫어 알 리기는 능력이 모자라나 비록 언덕과 골, 물, 돌 하나하나 듣고 본바 있기는 하나 오히려 어렵도다. 하물며 강과 산이 넓고 크며 큰 바다와 명산이 상치하여 매우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다.

我邦嶺東八景 惟高襄二境背嶽臨海 襄之雪嶽 世稱小金剛 而洛伽之天造神創 望海宏豁 又可與高城之海
아방영동팔경 유고양이경배악입해 양지설악 세칭소금강 이낙가지천조신창 망해굉활 우가여고성지해

山亭 爭其甲乙

산정 쟁기갑을

우리나라 영동팔경, 양양은 뒤에는 설악산 앞에는 동해에 임하였으니 이 두 경지는 유독 뛰어나며 양양의 설악산은 세칭 소금강 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의 조화로 신이 창조한 낙산사에서 바라본 바다는 널리 열려있 을 뿐더러 또한 고성의 해산정(바다, 산, 정자)와 가히 우열을 다룬다.

此眞山海之具美者 而且其邑號適符於中華勝區 峴山漢水 雖傲古立名

차진산해지구미자 이차기읍호적부어중화승구 현산한수 수방고립명

이는 참으로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갖추어졌으며 또 고을의 이름이 지세가 훌륭함이 중국의 현산과 한수

(남대천)가 부합하고 알맞아 비로소 본을 따서 이름을 정했는데,

山翁叔子之風流餘韻 顧名興懷 想像而不可忘 其粧點湖山 賁飾物態者 可謂 增價百倍矣

산옹숙자지풍류여운 고명흥회 상상이불가망 기장점호산 분식물태자 가위 증가백배의

늙은 내가 만년에 이르러 풍류의 운치와 명예를 돌아보고 일어나는 기쁨을 잊지 않겠다고 상상하니, 그 단 장한 자연의 환경, 잘 꾸며지고 다스려진 만물의 형상은 이르자면 그 가치가 백배나 더해진다.

邑舊無誌 樓觀寺刹 間有寂寥篇詠 而只記一時一區之景而已 曾無搜別一州之勝觀著錄而表章者 余甚惜焉
읍구무지 루관사찰 간유적요편영 이지기일시일구지경이이 증무수척일주지승관저록이표장자 여심석언

迺攷勝覽所載

내 고승 람 소재

옛 고을의 기록이 없어 망루와 사찰을 틈을 내어 적적하고 고요한 속에서 시문을 지어 읊으며 다만 한때 한구역의 경치만을 기록해서 일찍이 없던 것을 찾아내어 한 고을의 경치를 관상하며 기록하여 밝히니 내 어찌 지나치게 아까워하리. 이에 상고하여 여지승람에 신는 바이다.

且訪邑中耆舊 篇爲峴山三十京 各府短章 略記其勝 仍要三淵金子益和之

차방읍중기구 편위현산삼십경 각부단장 약기기승 잉요삼연김자익화지

또 읍을 찾아 늙은이 가운데 현산 삼십경의 시문을 짓고자 각부에 승경을 간략하게 기록한 짧은 글을 요구 하니, 삼연(三淵) 김자익(金子益)이 응하여 화답 하였노라.

噫! 永州溪山 特是窮荒絕激 黃茆苦竹間 尋常一涼崢 而自經子厚題品

희! 영주계산 특시궁황절격 황묘고죽간 심상일종쟁 이자경자후제품

아! 영주의 계산 특별히 기근으로 굶주림이 몹시 격렬하다.

누런 순채와 대나무 사이 물이 흐르는 소리 하나같이 평범하니 자경자(自經子: 스스로 목메어 죽은 자식)를 후하게 고후우열을 판정했다.

得與名山大湖并傳而齊美 至今讀其記者 不覺眴然神遊 而今此溟岳仙區 瓌覽異蹟 無人發揮 山水之亦有遇
득여명산대호병전이제미 지금독기기자 불각요연신유 이금차명악선구 괴람이적 무인발휘 산수지역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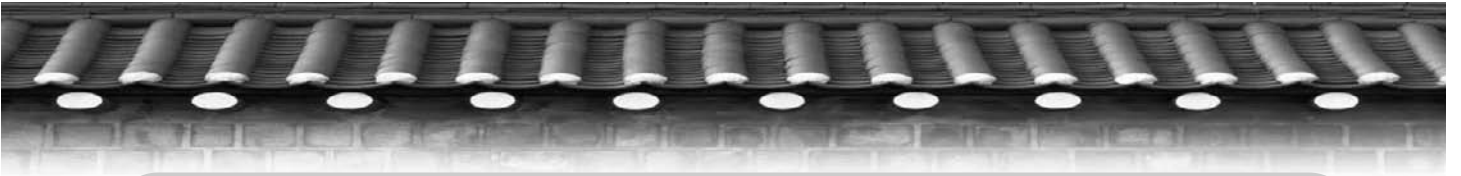
不遇者 豈不信哉

불우자 기불신재

명산(설악산)과 대호(청초호, 쌍호, 포매호)가 더불어 어울려져 가지런히 아름답게 전해지는, 지금까지의 그 기록을 지금 읽는바 신이 유상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정신이 멍하니 이제 이 바다와 큰 산은 선경이요. 살펴보니 진기함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휘된 것이려니 산수가 역시 때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했다고 어찌 불신하리.

顧余無文 不可謂山水遇其人 而余之遇山水則幸矣

고여무문 불가위산수우기인 이여지우산수척행의



내가 돌아보니 글이 없어 사람을 만나나 산수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 내가 산수를 찾아 대하였으니 곧 행이로다.

姑以掘詠及和章 揭諸屏間 以俟後來者之因此闡發焉.

고이굴영급화장 계제병간 이사후래자지인차천발언.

잠시 읊기도 하고 글로 화답도 하다가 병풍에 모두 게재하였으니 장치는 이것에 의하여 밝혀 퍼질 것이다.

※(주) : 본문의 전후에 나오는 산옹(山翁)과 백접리(白接籬)는 부사 이해조가 자신을 칭한 단어임. 시종(詩宗)이라 존경받는 이백(李白)의 시 “양양가(襄陽歌)·양양곡사수(襄陽曲四首) 중에 산공(山公)이 곧 산옹(山翁)이다.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사람인 산도(山濤)의 다섯째아들 산간(山簡)을 말함. 그가 정남장군(征南將軍)이 되어 양양(襄陽)의 태수로 있을 때 호족(豪族) 습(習)씨의 정원(習家池)에 자주 놀러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즐기다가 도랑 올 때는 흰 두건을 거꾸로 쓰고 (倒著白接籬) 말도 거꾸로 타는 등 풍류기화(風流奇話)를 많이 남겼다.

현산30경 지은이 소개

이해조(李海朝, 1660~1711)

본관 : 연안(延安) 호 : 명암(鳴巖) 별칭 : 자동(子東) 주요저서 : <명암집>

본관은 연안(延安) 이며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이다. 효종 때 대제학을 지낸 일상(一相)의 아들이다. 1681년(숙종7)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빙고별검(氷庫別檢), 공조와 호조의 낭관(郎官)을 거쳐 전주통판(全州通判)등을 지냈다.

1702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양양부사(襄陽府使:1709~1710)등을 지낸 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뒤에 응교·부교리·집의·대제학·수원부사(水原府使)등을 거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벼슬을 단념했다가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후 등용되는 등 정치적인 진퇴를 서인(西人)과 함께 하였다. 시문에 뛰어난 김창흡(金昌翕)에게 천재라는 격찬을 받았으며, 할아버지 이래 3대가 대제학을 제냈다. 시문집에 <명암집>6권중에 현산 30경이 가장 특출하다고 평하였다.

第 1 景 설악산 (雪嶽晴光)

雪嶽晴光(설악청광)

雪山長戴雪(설산장대설)

況是雪下時(황시설하시)

晶晶霽後色(정정제후색)

同我白接羅(동아백접라)

冰魄少淸輝(빙백소청휘)

交暎扶桑池(교영부상지)

欲喚訪梅客(욕환방매객)

同賦看山詩(동부간산시)

(설악산의 맑은 경치)

오래도록 눈을 이고 있는 설악산
때때로 눈이 내려 이에 견주누나.
갠 날 눈빛은 번쩍번쩍 빛나고
나와 같은 흰 두건 쓴 것 같네.
매화에 버금하여 맑게 빛나고
동해와 연못에 엇걸어 비추네.
초청코자 매화손님 방문하여
산시를 보고서 함께 읊는구나.

*

(註,和詩在三淵金昌翁條,以下全)

주 화 시 재 삼 연 김 창 흡 조 이 하 등

삼연 김창흡 선생의 조문에 화답시가 있다. 이하 같다.

*김창흡(金昌翁) : (1653~1722).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시호는 문강(文康). 영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 숙종 때 영시암(永矢庵)에 잠적하여 사시의 가경을 벗 삼고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풀면서 일생을 마쳤다. 저서 삼연집(三淵集). 문헌 삼연년보(三淵年譜).



第 2 景 남대천 (漢水)

漢水

한수

邑前南大川 亦稱漢水 源出五臺山

읍전남대천역칭한수원출오대산

읍의 앞에 흐르는 남대천을 또한 한수라 칭하는데 수원(水源)은 오대산이다.

漢水春波(한수춘파)

漢水分于筒(한수분우통)

春波碧瀾瀾(춘파벽류류)

一色晴沙鴨(일색청사암)

交暎大堤柳(교영대제류)

山翁辭忘歸(산옹사망귀)

不辭清細緩(불사청외완)

恨無錦袍仙(한무금포선)

許漲葡萄酒(허창포도주)

(한수의 봄 물결)

남대천은 두개의 술통인가

봄날의 물결은 푸르고 맑다.

맑은 날 모래톱엔 오리 일색인데

큰 제방 버들의 빛이 어울리누나.

산옹은 돌아감을 잊고 시를 지으니

푸른 인끈처럼 그침 없이 맑구나.

금포 걸친 신선은 한이 없으니

부글부글 넘치는 포도주였으면



第3景 낙산사(洛山寺)

洛山寺

洛山寺亦稱洛伽寺 海傍無非可觀日 而洛山正對陽谷 梨花亭極高敞 望海最遠 故觀日必洛山云

낙산사 역칭낙가사 해방무비가관일 이낙산정대양곡 이화정극고창 망해최원 고관일필낙산운

낙산사는 또한 낙가사라 칭한다. 해변의 어디서나 가히 해맛이를 할 수 있으나, 동쪽의 해 돋는 곳을 바로 대할 수 있는 곳은 낙산이다. 이화정은 극히 땅이 높고 앞이 탁 트여 가장 멀리 바다를 바라 볼 수 있으니 짐짓 해맛이는 필연 낙산사이다.

洛伽觀日(낙가관일)

靑空際滄海(청공제창해)

浩浩碧琉璃(호호벽류리)

紅雲擁金輪(홍운옹금륜)

衆彩紛陸離(중채분육리)

不到梨花亭(부도리화정)

焉對扶桑枝(안대부상지)

朝朝此光景(조조차광경)

但遺山僧知(단유산승지)

(낙산사에서 해맞이)

푸른 하늘 끝 넓고 큰 바다

유리 같이 푸르고 광대하네.

붉은 구름이 금륜을 안았고

고운 빛이 섞이어 땅을 여네.

이화정에 이르지 못하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네.

매일 아침 이 광경을

산승만이 알고 전하네.

*金輪(금륜): <불>삼륜(三輪)의 하나. 대지의 상층을 일컫는다. 삼륜(三輪)은 금륜(金輪), 수륜(水輪), 풍륜(風輪).



第 4 景 울산바위 (天吼山)

天吼山

天吼山 在府北六十五里 石峰峭削奇壯

천후산 재부북육오십리 석봉초삭기장

천후산(울산바위)은 양양읍에서 북쪽으로 육십오리에 있다. 석봉은 깎은 듯이 가파르고 기이하고 장관이다.

俗稱小金剛 卽雪嶽一支 山腰 有兩風穴 大風將起 山自先鳴 故名

속칭소금강 즉설악일지 산요 유양풍혈 대풍장기 신자선명 고명

속칭 소금강이라고도 하는데 즉 설악산의 한 가지로서 산허리에 바람구멍이 둘이 있는데 큰바람이 불라치면 산이 스스로 운다고 옛날에 이름 하였다.

天吼聞風(천후문풍)

嵯峨小金剛(차아소금강)

吼怒雙竅風(후노쌍구풍)

震蕩魚龍窟(진탕어룡굴)

憂瑟松桂叢(알슬송계층)

莫助扶搖勢(막조부요세)

天池本在東(천지본재동)

惟有禦寇仙(유유어구선)

借爾欲乘空(차이욕승공)

(울산바위의 뜬소문)

울쑥불쑥 높이 솟은 소금강

쌍 바람구멍이 성내어 우네.

굴에서 어룡이 흔들어 움직이니

소나무 계수나무 묶어서 거문고 두드리네.

흔드는 기세를 돕지 말아라.

천지는 본래 동쪽에 있다.

신선은 도적을 막을 수 있으니

승천하고자 하거든 네가 도와라.



第 5 景 의상대 (義湘臺)

義湘臺

高麗僧益將記 洛山寺東數里許海邊 有窟可容舟 世傳 觀音大士所住處

고려승익장기 낙산사동수리허해변 유굴가용주 세전 관음대사소주처

고려(高麗) 승(僧) 익장(益莊)의 기문(記文)에 낙산사는 동쪽 수리섬의 해변에 배가 드나들만한 굴이 있는데 관음대사(觀音大士)가 머물던 곳이라 세상에 전해진다.

窟前 有石可鋪一席 新羅義湘法師 乃於石上展拜 求見觀音眞像 二七日未獲觀 便投身海中 有神龍扶出石上

굴전 유석가포일석 신라의상법사 내어석상전배 구견관음진상 이칠일미획도 변투신해중 유신용부출석상

굴 앞에 자리 한 닢을 깔만한 돌이 있는데 신라 의상법사가 돌 위에서 전좌 배례하며 관음진상을 보려고 7 일 또 7일을 기다려도 볼 수 없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용신이 붙들고 돌 위로 나왔다.

觀音卽於窟中 伸臂授水晶念珠曰 我身不可觀 但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 是吾頂上 於此 可營一殿 安排像設也

관음즉여굴중 신비수수정념주왈 아신불가도 단중굴상 행지쌍죽용출처 시오정상 여차가영일전 안배상설야

곧 굴속에서 관음께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를 주면서 “내 몸은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를 따라가면 한 쌍의 대나무가 난 곳에 이르면 그곳이 내 이마머리다. 여기에 불전(一殿)을 짓고 상설 안배하라.” 했다.

神龍獻如意珠及寶玉 義師受珠玉而來 有雙竹自抽

신룡헌여의주급보옥 의사수주옥이래 유쌍죽자추

용신이 바치는 여의주와 보옥을 의상께서 받아가지고 오니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 있다.

乃於其地創殿 以龍所獻玉 造像安之 卽觀音寺藏珠於是 寺傳寶之

내어기지창전 이용소헌옥 조상안지 즉관음사장주어시 사전보지

그 땅에 절을 짓고 용신이 바친 옥으로 불상을 마련하여 봉안하니 곧 관음사요. 이에 수정염주를 소장한 보물의 절이 됐다.

*

高麗庚資諒爲兵馬使 到窟前拜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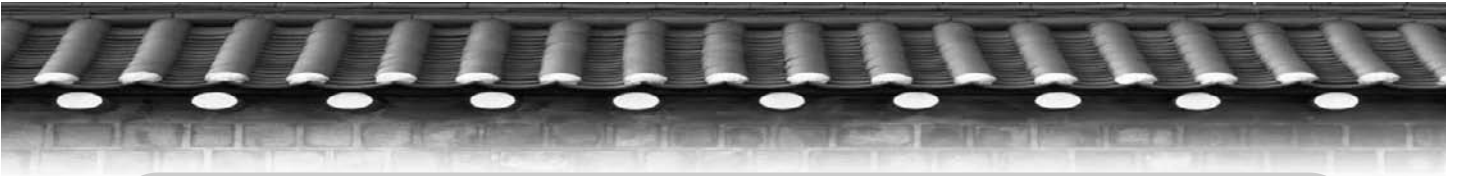
고려유자량위병마사 도굴전배계

고려 유자량(庚資諒)이 병마사(兵馬使)가 되어 관음굴 앞에 이르러 분향재배하니

有青鳥啣花飛鳴 花墜蝶頭上

유청조함화비명 화추복두상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 노래하며 꽃을 두건위에 떨어뜨렸다.



庾資諒詩 明珠非我欲 青鳥是人逢云云

유자량시 명주비아육 청조시인봉운운

유자량의 시에 명주(明珠)는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며,
청조(青鳥)를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일세. 운운했다.

窟左一麓 陟起入海 舊稱義湘所憩處 名以義湘臺 臺前數株古松蟠屈可玩

굴좌일록 척기입해 구칭의상소계처 명이의상대 대전수주고송반굴가완

굴 왼편 한 산기슭에 바다에 우뚝 솟은 예부터 이르는 의상이 머물러 쉬던 곳 이름 하여 의상대다. 대(臺) 앞
에 구불구불 서린 여러 그루의 고송(古松)이 가관이다.

庾資諒의 詩

海崖高絕處(해애고절처)

바다 벼랑 지극히 높은 곳

中有洛迦峯(중유낙가봉)

그 가운데 낙가봉이 있다.

大聖住無住(대성주무주)

큰 성인은 머물러도 머문 것이 아니고

普門封不封(보문봉부봉)

넓은 문은 봉해도 봉한 것이 아니로다.

明珠非我欲(명주비아육)

명주는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며

青鳥是人逢(청조시인봉)

청조는 이 사람이 만나 보려는 것일세.

但願洪波上(단원홍파상)

다만 원하는 것은 큰 물결 위에서

親瞻滿月容(친점만월용)

친히 만월 같은 모습 뵈옵는 것을

義湘異蹟(의상이적)

(의상의 기적)

義師事恍惚(의사사황홀)

의상조사의 황홀한 실재의 일은

投海求真像(투해구진상)

바다에 투신하여 진상을 구했네.

神龍護袈裟(신룡호가사)

해룡신이 의상을 감싸 안으시니

宛在舊石上(완재구석상)

석상에 오래도록 엮드려 있었네.

蒼茫住錫處(창망주석처)

스님이 머물던 푸르고 아득한 곳

古臺立千丈(고대입천장)

낡은 대가 천길 벼랑 끝에 서있네.

臺前松樹枝(대전송수지)

대 앞에는 소나무 가지 늘어졌는데

幾時復東向(기시복동향)

몇 대이어 거듭 동쪽을 향하여 있다.

*庾資諒(유자량) : (1150~1220). 고려 고종 때의 문신. 자(字)는 담연(湛然). 16세 때부터 유가의 자제와 교유하는 한편 무인 오광섭(吳光涉)·문장필(文章弼) 등과도 교제하여 후에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화를 면했다. 용강현령(龍崗縣令)으로서 부정을 귀신 같이 적발해 내었고, 내외 벼슬을 역임하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러 은퇴한 후로는 은퇴한 여러 재상들과 기로회를 조직하여 불교를 독신하였다. 1197년 명종(明宗) 정사년(丁巳年), 병마사가 되어 10월에 관음굴 앞에 와서 분향재배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第 6 景 흥연암 (觀音神像)

觀音神像(관음신상)

雙行龍海濱(쌍행룡해서)

孤棟架佛頂(고동가불정)

神像巧鑿玉(신상교잠옥)

深窟恰容艇(심굴합용정)

鳥銜天花墜(조함천화추)

龍吐驪珠炯(용토려주형)

舊迹欲摩挲(구적욕마사)

坐久風悽冷(좌구풍치냉)

(관세음보살의 신상)

맑은 바다에 두 줄 용이 오르니

법당의 부처는 유달리 고상하다.

관음상은 아름답게 옥으로 새기고

깊은 석굴은 흡사 거룻배 모습이네.

청조가 물어다 천화를 떨구니

용이 토한 여룡지주가 빛나네.

옛 자취를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서

오래 앉아 있으니 바람만 차갑구나.



第 7 景 계조암 (繼祖庵)

繼祖庵

在天吼山下 窟底 架崖構小庵 空無僧 世傳繼祖禪師入定處

계천후산하 굴저 가애구소암공무승 세전계조선사입정처

울산바위 아래 있다. 낭떠러지 굴 밑의 작은 암자에 중은 없고 비었는데 계조선사가 입정한 곳이라고 전해 온다.

窟前 巨石錯立 東臨大海 前對達摩諸峯

굴전 거석착립 동림대해 전대달마제봉

굴 앞에는 거대한 갈린바위(흔들바위) 서있고, 동(東)으론 대해(大海)요 앞은 달마의 여러 봉우리들이 대하고 있다.

繼祖舊窟(계조구굴)

祖師講道處(조사강도처)

古窟蒼苔紋(고굴창태문)

穹巖若蹲虎(궁암약준호)

環峯如列軍(환봉여열군)

倏吸雙穴風(속흡쌍혈풍)

繚繞重溟雲(료요중명운)

空庵寂無僧(공암적무승)

鑪檀徒自焚(로단도자분)

(계조암의 오랜 굴)

유명한 조사들이 교리를 강론하던 곳

오래된 굴속에는 푸른 이끼 무늬 졌네.

크나큰 바위는 웅크린 범 같은데

진을 친 군사 같은 봉우리 둘렀네.

두 구멍에서 갑자기 바람 마시니

어두운 구름이 겹겹이 둘러싸누나.

빈 암자엔 스님 없어 고요한데

지나는 신도들만 향불을 피우네



第 8 景 비선대 (飛仙臺)

飛仙臺

天吼山南 有新興寺 寺前五里餘 洞府深邃 疊峰森羅 白石平鋪 溪流成潭 卽臥仙臺

천후산남 유신흥사 사전오리여 동부심수 첩봉삼라 백석평포 계류성담 즉와선대

울산바위(天吼山) 남쪽에 신흥사가 있고 절 앞 5리 남짓한 깊숙한 곳은 산봉우리 첩첩하고 숲이 우거졌는데 흰 돌이 평평하게 깔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못이 곧 와선대다.

自臥仙沿溪上數里 蜂巒泉石 比臥仙益奇壯清爽 乃飛仙臺 此是峴山第一洞天也

자와선연계상수리 봉만천석 비와선익기장청상내비선대 차시현산제일동천야

와선대를 지나 물길 따라 좀 더 오르면 뾰족뾰족한 산봉우리 밑엔 바위샘이 흘러 와선대보다 맑고 시원하며 가관을 이루는 비선대다. 여기는 양양 제일의 동천(산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다.

飛仙層潭(비선층담)

遊仙或飛臥(유선혹비와)

層潭分上下(층담분상하)

鋪地盤石大(포지반석대)

漱壑飛泉壯(수학비천장)

不必蓬萊島(불필봉래도)

遠携綠玉杖(원휴록옥장)

且歛白接羅(차의백접리)

終日看青嶂(종일간청장)

(비선대의 층층 깊은 소)

신선이 놀며 누워 쉬다 날아간 곳

층층 깊은 소는 상하로 나뉘어져 있네.

큰 반석이 온통 땅을 덮었는데

골을 씻는 듯 폭포는 장관이다.

봉래 섬에 갈 필요 없이

녹색 옥장집고 멀리 왔네.

하얀 두건 쓴 내가 감탄하면서

종일 높고 가파른 산만 보았네.



第 9 景 권금성 (權金城)

權金城

在雪嶽頂 石築周千餘尺 廢堞尙在

재 설악정 석축주천여척 폐첩상재

설악산 머리에 있다. 석축의 둘레는 천여 척으로 부서진 성가퀴는 아직 남아있다.

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

속전석유권김이가피란우차고명

옛날 권씨(權氏) 김씨(金氏) 두 가문이 난을 피해 쌓았다고 그 이름이 널리 전해지고 있으며,

與土王城相連 城東有瀑布 掛流數百尺 土城亦不知何代設築 而或傳古有土姓王造此云

여토왕성상련 성동유폭포 캐류수백척 토성역불지하대설축 이혹전고유토성왕조차운

토왕성(土王城)과도 서로 연해있고 성 동편에는 수백 척이나 되는 폭포수가 걸려 있는데 토왕성 역시 어느 대에 성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옛날에 토씨(土氏)성의 왕이 조성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權金殘堞(권금잔첩)

(권금성의 남은 성가퀴)

權金昔逃難(권금석피난)

옛날에 권씨 김씨 난을 피한

殘堞餘古壘(잔첩여고첩)

옛날에 쌓은 성가퀴 남아있네.

對峙土王城(대치토왕성)

토왕성과도 대치하고

遙望瀑布水(요망폭포수)

폭포수도 멀리 보인다.

何代無兵戈(하대무병과)

어느 때 전쟁이 없었는지

難得藏身地(난득장신지)

난리에 몸과 땅을 지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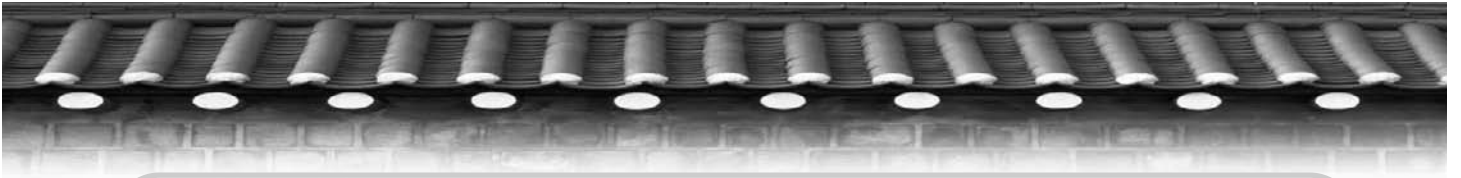
商山與雪嶽(상산여설악)

상산과 더불어 설악산에도

* 四皓後二子(사호후이자)

두 집 자손은 사호 닮았네.

* 四皓(사호): 한고조(漢高祖) 때 상산(商山)에 숨은 네 노인 곧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卍里先生).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하여 호(皓)라 하였음. 상산사호(商山四皓)



第 10 景 하조대 (河趙臺)

河趙臺

在府南三十里 小麓進入海中 陡絕爲臺

재부남삼십리 소록이입해중 두절위대

읍 남쪽 30리에 있다. 낮은 산기슭이 바다 가운데로 비스듬히 빠져나간 가파른 절벽위에 정자가 자리하고,

臺前 數株古松 岫屈 掩翳左右 巖壑奇邃 海濤衝激 凜不可久留

대전 수주고송구굴업에좌우 암학기수 해도충격 림불가구류

정자 앞에는 구룡같이 구부러진 여러 그루의 고송이 깃으로 꾸민 일산처럼 가리어져 있으며, 기이하게 깊은 골과 바위는 파도에 부딪치니 그 자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世傳國初 河崙 趙浚兩人 遊憩于此 故得名云

세전국초 하륜 조준양인 유계우차 고득명운

세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 건국초기 하륜과 조준 두 선비가 여기서 머물러 쉬면서 놀았다하여 하조대라 이름 붙여졌다.

河趙空臺(하조공대)

英俊亦樂此(영준역락차)

古臺名不朽(고대명불후)

應尋滄海君(응심창해군)

(쓸쓸한 하조대)

걸출한 인물 여기서 즐겼으니

하조대의 이름은 영원하리라.

님께선 큰 바다를 찾으셨는데

*
 終奮渭川叟(종분위천수)
 苔深舊磯空(태심구기공)
 風急寒松吼(풍급한송후)
 欲酌青波奠(욕작청파전)
 恨不傾北斗(한불경북두)

이몸은 양양서 바쁘기만 하네.
 이끼 짙은 물가는 전에도 한적했고
 바람 부니 소나무는 춥다고 우누나.
 해신제 차리고서 잔 올리려하니
 원한 없는 북두칠성 기울었구나.

*渭川(위천): 양양의 선인들은 한수(남대천)를 속칭 위수(渭水)라 했으며 한(漢)과 대를 하여 위(渭)를 써서 향토 양양을 가리켜 한동(漢東) 한남(漢南) 위서(渭西) 위북(渭北)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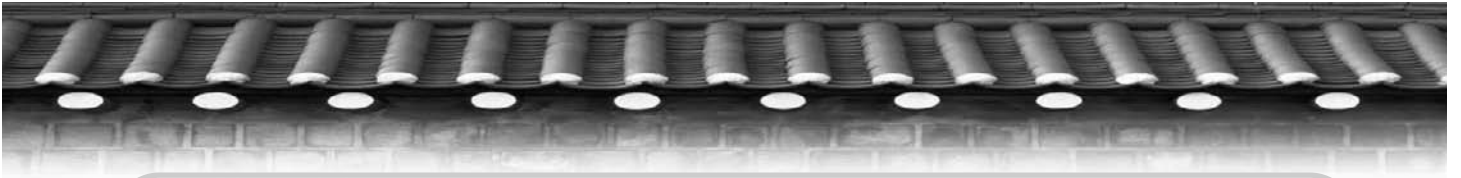
第 11 景 현산 (峴山)

峴山

邑前小麓 俗稱峴山

읍 전 소록 속칭 현산

동헌 앞 낮은 산을 현산이라 한다.



峴首待月(현수대월)
 不經緩帶翁(불경완대옹)
 茲山等蟻垤(자산등의질)
 何須惜落日(하수석낙일)
 我方待新月(아방대신월)
 *
 一片墮淚石(일편타루석)
 何補已朽骨(하보이후골)
 *
 及此成三影(급차성삼영)
 但進杯中物(단진배중물)

(현산에서의 달맞이)
 편안한 늙은이 정도를 어기고서
 자그마한 이 산의 계단을 밟았네,
 모름지기 지는 해가 아깝더니.
 바야흐로 밝은달을 맞이했네.
 일편의 타루비를 밝혀보나
 이미 가신님을 어찌 도우리.
 세 곳에 비추던 달그림자
 다만 잔속에서는 떠나누나.

*墮淚石(타루석)=墮淚碑(타루비): 부사 이상일(李尙逸)의 선정비. 1644년(인조 22년) 7월에 도입하여 1648년(인조 26년) 10월까지 양양부사를 역임한 이부사(李府使)는 법률에 밝고 정사에 청렴하며 농상(농사일과 누에치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도록 권면하고 궁한 자를 구휼하는 등 재임기간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군민이 선정비를 세웠다. 그 후 백성들은 궁할 때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백지소장을 들고 비석을 안고 눈물로 애걸 탄원하였으므로 타루비라 부르게 되고 후세까지 그 덕을 사모하였다. 이 비를 타루비(墮淚碑)라 이름 한 것은 진(眞)나라 양양태수(襄陽太守) 양호(羊祐)의 덕을 사모하여 그곳 백성들이 현산에 비를 세웠으며 그 비를 보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따라서 우리 군 이름을 중국에서 따다 양양(襄陽)이라 하였고, 또 현산(峴山)이라 하여 현산정을 세웠다. 지금은 없어 졌으나 이 비석만은 양호의 현산비사적(峴山碑事蹟)을 추상하여 타루비(墮淚碑)라 부른다.

*三影(삼영): 눈동자, 술잔, 남대천에 비춘 달그림자를 뜻함



第 12 景 예문 (宜春巖)

宜春巖

府西五里餘 俗稱禮門 洞中泉石可玩 溪邊小巖 可坐十餘人 春時杜鵑爛開 太守輒賞花於此云 今改以宜春巖
부서오리여 속칭예문 동중천석가완 계변소암가좌십여인 춘시대굴난개 태수첩상화어차운 금개이의춘암

부 서쪽 5리여에 있다. 예문이라 칭한다. 마을 가운데 맑은 물과 반석은 가히 놀만한 곳인데 개울가의 반석에는 10여명이 앉을 수 있어 봄철 두견화 만개하면 여기서 태수가 번번이 화전놀이를 하였다고 이른다. 지금은 의춘암이라 고쳐 부른다.

春巖賞花(춘암상화)

何巖賞春宜(하암상춘의)

小巖春可憐(소암춘가련)

*

孟添鴨綠波(배침압록파)

花樹鶴立仙(화수학립선)

折來插白髮(절래삽백발)

醉舞何蹺蹺(취무하선선)

街兒添一笑(가아침일소)

山翁今少年(산옹금소년)

(의춘암의 화전놀이)

화전놀이에 알맞으니 어떤 바위인가
반석은 봄이 되면 어여쁘고 아름답네.
잔을 권하니 오리가 녹파 일으키고
꽃속에 학이 서있으니 신선 같구나
꽃을 꺾어다가 흰머리에 꽂고서
무슨 춤이 비틀비틀 취하였구나.
아이들도 한바탕 웃음을 더하고
산속 노인도 오늘은 소년이로다.

*鴨綠波(압록파): 오리 머리는 청색이므로 녹파라 하였다.



第 13 景 무산 (巫山)

邑前南大川 列嶂羅立 俗稱巫山^{*}

읍전남대천 열장나립 속칭무산

읍의 앞 남대천 변에 늘어선 산봉우리를 무산이라 이른다.

巫山雲雨(무산운우)
 朝來拄笏處(조래주홀처)
 爽氣非西山(상기비서산)
 怪底丹丘屏(괴저단구병)^{*}
 張我黃簾間(장아황렴간)
 銀山堆疊裏(은산퇴첩리)
 縮結十二鬢(관결십이환)
 何待作雲雨(하대작운우)
 長對夢中顏(장대몽중안)

(무산의 구름과 비)
 아침에 홀을 들고 바라보는 저 곳에
 저녁때 서산에 비오니 상쾌하지 않네.
 기이한 단구를 병풍으로 가리우고서
 누런 발을 친 속에서 내 뜻을 베푸네.
 은산언덕이 겹쳐진 가운데
 열두 봉우리가 얽혀져있네.
 어찌하여 기다리나 구름과 비를
 꿈속에서 얼굴이나 오래 대하리.

*丹丘(단구): 신선이 사는 곳. 밤도 낮같이 환하다함.

*巫山(무산): 사천성 기주부 무산현(四川省 夔州府 巫山縣)의 동쪽에 있는 산이며 여기서 따온 산 이름임.
 楚(초)나라의 襄王(양왕)이 일찍이 高唐(고당)에서 놀다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부인이 와서 “저는 무산의 여자로서 고당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임금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원컨대 침식을 같이해 주십시오” 하므로 임금은 하룻밤을 같이 잔 뒤 그 이튿날 부인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저는 무산의 양지쪽 높은 언덕에 사는데 매일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과 같으므로 사당을 지어 朝雲(조운)이라 하였다는 故事(고사)



第 14 景 녹문 (鹿門: 임천)

鹿門

府城西過一小墅 村落周布 桑柘掩翳 前臨大川 俗號林泉 亦稱鹿門

부성서과일소서 촌락주포 상자엄예 전임대천 속호임천 역칭녹문

읍성 서쪽을 지나면 작은 농가들로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무성한 뽕나무로 가리운 앞에는 남대천이 흐른다. 임천이라 부르는데 녹문이라고도 한다.

鹿門煙樹(녹문연수)

西林人幾家(서림인기가)

墟里暖黃昏(허리에황혼)

樹陰團遠野(수음단원야)

煙色淡孤村(연색담고촌)

不分牛羊歸(불분우양귀)

但聞鷄犬喧(단문계견환)

松逕去來人(송경거래인)

誰是隱鹿門(수시은록문)

(연기가 숲을 가린 녹문)

서쪽 숲속엔 몇 집이나 되는가?

황폐된 마을엔 황혼이 지는가.

먼들엔 나무그늘 짙은데

외진 마을엔 연기도 맑다.

소와 염소 모여서 돌아가는데

다만 개와 닭소리만 시끄럽네.

솔길 따라 사람은 오가는데

누가 녹문에서 은거하는지!



第 15 景 자지산 (紫芝山)

紫芝山 在府南七十里 山中 多生紫芝 故名

자지산 재부남칠십리 산중 다생자지 고명

자지산은 부의 남쪽으로 칠십리에 있다. 산중에는 지치가 많이 나므로 이름 하였다.

芝山靈草(지산령초)

花間接羅翁(화간접리옹)

松下笑綺皓(송하소기호)

但傾綠葡萄(단경록포도)

焉用紫芝草(안용자지초)

三秀亦多事(삼수역다사)

一醉不知老(일취부지노)

那無療飢物(나무료기물)

漢水春波好(한수춘파호)

(자지산의 영초)

꽃길 사이에서 두건 쓴 늙은이 나타나니

술 그늘 아래선 짐작은 어른이 반기네.

다만 맛본 녹색 포도주는

영묘한 지치로 빚었다네

지치로 인하여 일이 많아지고

한번 취하니 늙어감도 잇는다.

주림을 고치는 약이 없으니 어찌하오

남대천의 봄날 물결은 보기도 좋구나.



第 16 景 쌍 호 (蓴池: 순지)

蓴池

在府東八里九峰山下 兩湖爽氣左右 故名以雙湖 亦稱蓴池

재부동팔리구봉산하 양호상기좌우 고명이쌍호 역칭순지

부의 동쪽 중구봉 아래에 있다. 두 호수가 좌우(남북)에 시원하게 펼쳐있어 쌍호라 이름하고 또한 순지라고도 한다.

蓴池嫩莖(순지눈경)

露葵采作羹(로규채작갱)

軟滑流膏乳(연활류고유)

鮭菜失佳味(해채실가미)

不覺頻撩釜(불각빈료부)

豈曾下塩鼓(기증하염시)

政好如釵股(정호여채고)

秋風張季鷹(추풍장계응)

戀爾宜解組(연이의해조)

(부드러운 줄기의 순채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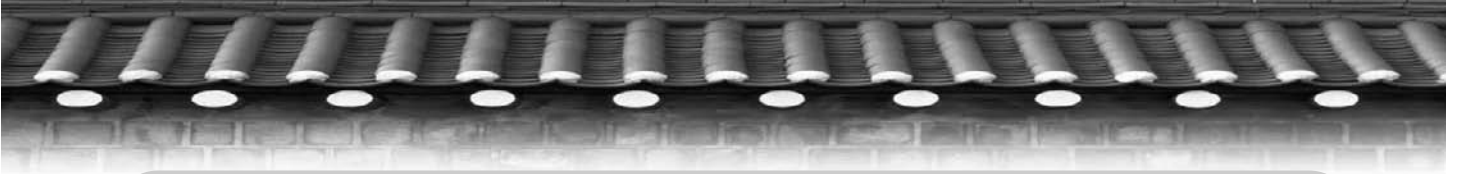
칠월에 아욱 캐어 국을 끓이니
젓빛같이 기름지고 부드럽구나.

어채의 좋은 맛을 잃고서야
깨닫지 못하고 솥만 끓었네.

어찌하여 미리 된장을 넣지 않고서
부인의 속살 같은 정사를 좋아했다.

가을바람에 어린 매가 나래를 펴니
너를 사모하여 관직을 그만두리라.





第 17 景 태평루 (太平樓)

太平樓

太平樓 卽客舍 門樓極宏敞 太守每張樂於此云

태평루 즉객사 문루극굉창 태수매장락어차운

태평루는 곧 객사다. 문루는 매우 넓고 시원했다. 태수는 늘 이곳에서 풍류를 베풀었다.

太平歌管(태평가관)

飛欄倚雪嶽(비란의설악)

仙樂喧紫府(선락흰자부)

漢波咽不流(한파열불류)

巫雲行復住(무운행복주)

海天散餘響(해천산여향)

魚龍紛起舞(어룡분기무)

不用舊銅鞮(불용구동제)

新偷月宮譜(신투월궁보)

(피리 불던 태평루)

설악산을 등에 진 높디높은 누각에선
명관의 아름다운 풍악이 그치지 않네.

남대천 물결은 잔잔히 흐르고

무산엔 구름이 오가며 흐르네.

바다와 하늘에는 여운이 울려 퍼지고

어룡도 분잡하게 일어나 춤을 추누나.

오래된 동제는 쓰지 않고서

월궁의 악보를 새로 탐내네.



第 18 景 동해묘 (東海廟)

東海廟

東海神廟 在府東海邊松林間 春秋設祭

동해신묘 재부동해변송림간 춘추설계

동해신묘는 양양의 동쪽 해변 송림 속에 있으며 봄가을 제를 올린다.

海廟香火(해묘향화)

松林間森爽(송림격삼상)

神宅儼明宮(신택엄명궁)

爐香裊汀雲(로향노정운)

旗脚颺海風(기각양해풍)

蜿蜿享百靈(완완향백령)

穰穰驗屢豐(양양험누풍)

愧乏吏部銘(괴핍리부명)

致崇如祝融(치송여축용)

(동해묘의 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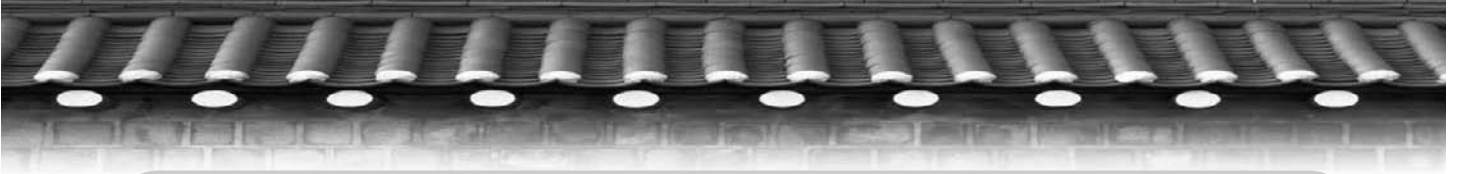
울창한 송림 속은 시원하고 고요한데
사직을 모신 신궁은 엄숙하고 밝구나.

피운 향연이 하늘하늘 구름 되고
깃발이 날리어 바닷바람 일으키네.

모든 백성 늘어서서 제를 올리니
여러 해 풍년들 효험을 보이누나.

관리들은 부끄러운 가난을 명심하고
여름을 맡은 신에게 치성을 드리누나.





第 19 景 죽도 (竹島)

竹島

島在府南四十里觀瀾亭前

도재부남사십리관란정전

죽도는 부의 남쪽 사십 리 관란정 앞에 있다.

滿島皆蒼竹 島下海澨 有石凹如槽 磨礪巧刻 中有一圓石

만도개창죽도하해서 유석요여조 마룻교각 증유일원석

섬은 푸른 대로 가득하고 섬 아래 바닷가에 구유 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갈리고 갈려서 기교하게 파인 속에 둥근 돌이 하나 들어 있다.

諺傳圓石搖轉其中 磨而成臼 磨盡則世改矣

언전원석요전기중 마이성구 마진즉세계의

전하는 말로는 그 속에서 둥근 돌이 흔들리고 회전하여 절구가 되었는데 다 갈려 없어지면 세상이 개혁 된다고 한다.

*

沈守慶詩 巖間石臼尋奇跡 仙子何年此地遊

심수경시 암간석구심기적 선자하년차지유

심수경(沈守慶)의 시에 “바위 사이 기적의 돌절구 찾아서, 신선의 자식들이 어느 해에 이 땅에서 놀았다.” 했고

*

李遇詩 春磨凹石猶初劫 偷負沈碑半夜天

이우시 춘마요석유초겁 투부심비반야천

이우(李遇)의 시에 “첫 겹의 봄에 갈아 오목해진 돌을, 한밤중에 몰래 침비를 지려고 했다네.”라 했다.

竹島仙臼(죽도선구)
 深深蒼竹島(심심창죽도)
 英英玉杵臼(영영옥저구)
 磨轉何太速(마전하태속)
 千劫彈指久(천겁탄지구)
 玄霜不再擣(현상불재도)
 *雲英能見否(운영능견부)
 我欲作窪樽(아욕작와준)
 長盛葡萄酒(장성포도주)

(죽도의 신선절구)
 푸르름이 깊고 깊은 죽도에서
 옥절구 소리 맑아 듣기도 좋다.
 얼마나 빨리 돌려서 갈았느냐
 천겁의 기다림이 몹시 짧았네.
 평생 두 번 짚지 않으려
 운영은 나타나지 않았네.
 내가 우묵한 술통을 만들어서
 포도주나 오래도록 담아두련다.

*沈守慶(심수경) : (1516~1599). 조선 중기의 명신.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 본관은 풍산(豊山). 1546년 명종 1년에 문과에 급제. 직제학·감사 등을 역임. 선조 때에 우의정을 지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지휘했고, 문장과 글씨에도 능함.

*李隅(이우) : (1469~1517). 조선 중종 때의 문관.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재(松齋). 본관은 진보(眞寶-靑松). 1498년 연산군 4년에 문과에 급제. 호조참판을 거쳐 강원도 관찰사에 이르러 병으로 사직했다. 시문에 능하여 이름이 높았다.

*雲英(운영): 옛날의 명기(名妓)의 이름임.



第 20 景 청초호 (靑草湖)

靑草湖

雙成湖 一名靑草湖 在府北四十里杆城界

쌍성호 일명 청초호 재 부북사십리간성계

쌍성호 일명 청초호라한다. 부 북쪽 40리 간성과 경계를 하고 있다.

周數十里 每冬月合凍後 氷忽鱗起

주수십리 매동월합동후 빙홀린기

둘레가 수십리요. 매년 겨울이면 얼어붙은 후 돌연 얼음 비늘이 일어,

自北岸至南岸 有若犁破狀 村人謂之龍耕 以此占年云

자북안지남안 유약려파상 촌인위지용경 이차점년운

북쪽 기슭에서 남쪽 기슭까지 마치 쟁기질로 물결을 갈라 얽은 것 같은 형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용이 같이한 것이니 이로써 한해의 점을 친다고 한다.

草湖龍耕(초호용경)

雪裏種瑤草(설리중요초)

知有呼龍仙(지유호룡선)

長湖爲十畝(장호위십묘)

耕氷如耕烟(경빙여경연)

霜鱗乍閃曠(상린사섬영)

雲耜何蹁躑(운사하편선)

自耕又自雨(자경우자우)

何憂不豊年(하우불풍년)

(용이 같이하는 청초호)

눈 속에서 요초 씨앗 뿌리니

용과 신선 부름을 알고 있다.

수면이 아득한 넓은 호수

얼음과 연기를 간 것 같네.

서리와 얼음 비늘이 갑자기 번쩍이니

구름의 보습이 어찌하여 빙빙 돌았나

스스로 같이하고 또 비도 내리는데

어찌하여 풍년 아니라고 근심하는가.



第 21 景 상운정 (祥雲亭)

祥雲亭

祥雲亭 在府南二十餘里 傍海長松森鬱 仰不見日

상운정 재부남이십여리 방해장송삼을 양불견일

상운정은 부의 남쪽 20여리에 있다. 바닷가의 장송이 뻗뻗이 우거져 뜨는 해는 보이지 않는다.

祥雲松林(상운송림)

遮障扶桑池(차장부상지)

移幻小茅嶺(이환소모령)

龍鱗欲變化(용린욕변화)

霜幹愈孤勁(상간유고경)

醉脫白接離(취탈백접리)

灑風時露頂(쇄풍시로정)

終今^{*}彭澤令(종금팽택령)

不復戀^{*}三徑(불복련삼경)

(송림속의 상운정)

송림이 해 돋는 바다물길 가로막으니

낮은 풀언덕을 옮겨놓은 듯 홀리누나.

장군의 갑옷으로 갈아 입고자하니

서리 맞은 난간은 더욱 단단하구나.

술에 취하여 백접리를 벗으니.

벗겨진 이마에 바람이 스치네.

도연명이 팽택령 벼슬을 그만두고

친구와 다니던 삼경이 그리워지네.

*彭澤令(팽택령) : 동진(東晉)의 도연명(陶淵明)이 일찍이 팽택의 령(彭澤令)이 되었을 때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고 벼슬을 떠나 전원생활을 즐겼다. 그는 “친구와 다니던 세 갈래 길(三徑:삼경) 거칠어졌어도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있구나.”라고 적었다. 곧 사직의 뜻을 은근히 밝히지 않았을까?

*三徑(삼경) : 은사(隱士)의 문정(門庭). 漢나라의 은사 장후(張翮)의 정원에 좁은 길이 셋 있던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第 22 景 大堤 (大堤:임천앞 제방)

大堤

峴山西傍 有通衢 俗稱大堤

현산서방 유통구 속칭대제

현산의 서편에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대제라 부른다.

大堤楊柳(대제양류)

大堤嫩柳色(대제눈류색)

遊女翠羅襪(유녀취라유)

梨花峴山雨(이화현산우)

閒弄蘇堤圖(한롱소제도)

山翁街頭醉(산옹가두취)

好掛青絲壺(호괘청사호)

欲借鳥鳥枝(욕차노노지)

搖蕩永郎湖(요탕영랑호)

(큰 제방의 수양버들)

버들색 아름다운 큰 제방에서

옥색 비단 걸친 계집이 노니네.

현산에는 배나무의 꽃이 날리는데

틈을 내어 쉬면서 제방을 그리누나.

산 늙은이 길거리에 취했는데

늘어진 버들가지 보기도 좋다.

하늘하늘 버들가지 꺾으려하니

멀리 영랑호의 물결도 출렁이리.



第 23 景 봉정암 (鳳頂庵)

鳳頂庵

鳳頂庵在雪嶽絕頂 俯視萬峯 東臨大海

봉정암재 설악절정 부시만봉 동림대해

봉정암은 설악산 꼭대기에 있어 굽어보면 만개의 봉우리와 동쪽의 넓은 동해도 내려다보인다.

爽豁無比 庵西 有大巖 廣可坐數千人

상활무비 암서 유대암 광가좌수천인

시원하게 뚫린골은 견줄 데 없고 암자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가히 수천인이 앉을 수 있는 넓이다.

當心造塔 突兀孤起 不知創自何世

당심조탑 돌을고기 부지창자하세

유의하여 세운 탑이 외롭게 높이 솟았으니 어느 때에 창건했는지 모른다.

而傍有石罅二孔 傳是浩劫繫舟處云

이방유석준이공 전시호계계주처운

곁에는 두 개의 술 단지 구멍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오래전 배를 매던 곳이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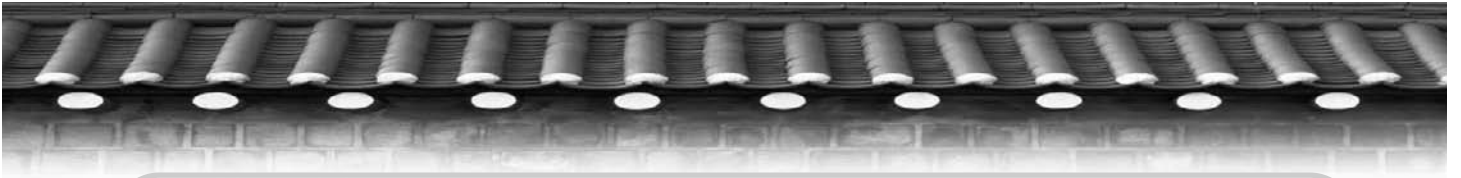
鳳頂下二十里許 有十二瀑 瀑西 有清寒子舊基

봉정하이십리허 유십이폭 폭서 유정한자구기

봉정 아래 이십리 정도에 십이폭포가 있고 폭포 서쪽엔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金時習)이 살던 옛터가 있다.

鳳頂孤塔(봉정고탑)
翼翼孤鳳頂(익익고봉정)
對峙蓬萊嶽(대치봉래악)
俯海石勢壯(부해석세장)
摩空塔影矗(마공탑영축)
洪荒莽難窮(홍황망난궁)
誰是維舟客(수시유주객)
清寒亦磨滅(한청역마멸)
何處深雲瀑(하처심운폭)

(봉정암의 외로운 탑)
날아오를 듯 외진 곳의 봉정암은
봉래산과 서로 맞대하여 버티네.
구부리면 바다와 장엄한 바위 보이고
칠층석탑은 하늘 높이 우뚝 솟았구나.
아득한 태고부터 어려움 많았는데
여기에 어느 사공이 배를 매었었다.
*청한자의 집터 갈려서 없어 졌는데
어디에 깊은 폭포 많이 모여 있는가.



*清寒子(청한자) : 김시습(金時習)이 출가하여 부르던 호임. 김시습 1435(세종 17)~1493(성종 24). 字는 열경(悅卿). 호(號)는 매월당(梅月堂), 동봉(東峰), 세상을 비관하여 책을 불사르고 종이 되어 설잠(雪岑), 청한자(淸寒子), 벽산(碧山), 취세옹(贅世翁)이라고도 하였다.



第 24 景 선림원지 (沙林寺:사림사)

沙林寺

沙林寺 在府西七十里山峽間 寺廢但有舊址

사림사 재부서칠십리산협간 사폐단유구지

사림사는 부의 서쪽 70리 산협에 있는데 다만 폐허의 옛 절터만 남아 있다.

*

寺前石碑 卽梅月堂集王右軍字 記弘覺師行迹者也

사전석비 즉매월당집왕우군자 기홍각사행적자야

절앞의돌비에는곧매월당집(梅月堂集)에왕희지(王羲之)의글자체로 홍각선사(弘覺禪師)의행적을기록했다.라고했다.

*

筆劃宛然逼真 人多寶玩

필획완연립진 인다보완

필획이 완연하니 실물과 흡사하여 이 보물을 많은 사람이 완상한다.

近爲樵牧撞碎斷碑猶存

근위초목당쇄단비유존

근자에 나무꾼이 두들겨 부수어 조각난 비로 남아있다.

沙林斷碑(사림단비)
 斷碣孰知寶(단갈숙지보)
 我欲宿其下(아욕숙기하)
 *
 梅堂文高古(매당문고고)
 *
 蘭亭筆變化(난정필변화)
 微分跳龍勢(미분도룡세)
 能傳換鵝寫(능전환아사)
 *
 羊公一片石(양공일편석)
 恨未此手借(한미차수차)

(선림원지의 부러진 비석)
 조각난 이 비석을 누가 보물이랄까
 내 비석 앞에서 하룻밤 묵으려한다
 매월당의 문장은 고고하고
 왕희지의 필적은 변화하네.
 용의 기세 솟구쳐서 잘게 쪼갠 것을
 거위 털북으로 바꿔 베껴서 전하리다.
 양양의 부사가 한 조각 돌비석에
 미련 없이 이에 남의 손을 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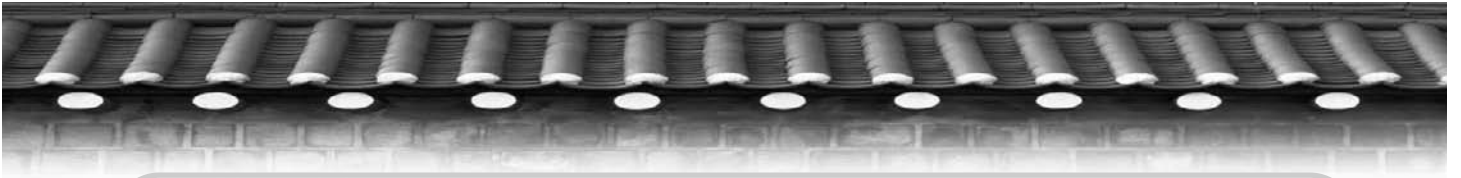
*王右軍(왕우군) : 동진(東晉)의 서예가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킴. 왕희지의 자(字)는 일소(逸少). 벼슬이 우군장군(右軍將軍)에 이르렀으므로 세상에서 왕우군(王右軍)라 일컬음.

*弘覺禪師(홍각선사) : 신라 때의 중. 깨어진 홍각선사비는 국립 박물관에 옮겨져 있고 홍각선사탑비기단은 보물 제446호로 사림사(선린원)지에 관리되어 있다. 중 운철(雲徹)이 왕명을 받들어 진나라 왕희지의 글자를 모아서 비를 세웠다고 함. 홍각선사는 서사(書史)에 해박하고 경전(經典)을 송독했으며 영산(靈山)을 두루 찾아 선석(禪席)마다 참석했으므로 수양이 더욱 깊어 문도(門徒)가 운집했던 것 같다. 이 비는 886년(헌강왕 12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高古(고고) : 고상하고 옛 풍치가 있음.

*蘭亭筆(난정필) : 쯤나라 왕희지(王羲之)가 353년 목제(穆帝)의 영화구년(永和九年) 3월 3일 당시의 명사(名士) 41명이 난정(蘭亭)에 모여서 곡수(曲水)에 잔을 띄워 계연(禊宴)을 베풀며 시를 지어 읊은 난정회(蘭亭會)에서 시첩에 스스로 서문을 쓴 것에 연유하여 이른 말임.

*羊公(양공) : 쯤나라의 양호(羊祜)를 가리키며 양양의 태수로서 덕정을 베풀었다. 진나라 양양의 태수로는 양호와 더불어 두예(杜預)도 덕정을 베풀었다라고 전한다. 여기서는 이해조(李海朝) 부사 본인을 지칭했다.



第 25 景 오색령 (五色嶺)

五色嶺

五色嶺 在府西 多生薇蕨

오색령 재부서 다생미겔

오색령은 부의 서쪽에 있으며, 고비와 고사리가 많이 생산된다.

西嶺采蕨(서령채겔)
 季鷹南山物(계응남산물)
 今從西嶺生(금중서령생)
 已作少兒拳(이작소아권)
 不下千里羹(불하천리羹)
 但恐放筋空(단공방근공)
 猶喜傾筐盈(유희경광영)
 終今不釣魚(종금불조어)
 和雨摘新莖(화우적신경)

(오색령에서 고사리를 캐다)
 끝 매봉 남쪽에서 산의 재물이
 이제부터 오색령에서 생산되네.
 아이의 주먹같이 생긴모양
 나물국은 천리에 으뜸이로다.
 다만 힘이 없어 두려워 내쳤었는데
 오히려 광주리 가득하여 무거워졌네.
 오늘은 그만 낚시질은 접어두고
 비 그쳐 화창하니 고사리 뜯는다.



第 26 景 후진 (北津)

北津觀魚

北津 在洛山西數里許 太守每自洛山觀魚於北津云

북진 재낙산서수리허 태수매자낙산관어북진운

후진은 낙산사의 서쪽 가까운 곳에 있다. 태수는 낙산사에 들렀다가 늘 후진에서 고기구경을 한다.

北津觀魚(북진관어)

魚艦簇北津(어함죽북진)

緇網如雲煙(치망여운연)

盈尺棄不收(영척기불수)

淺濶騰魴鱣(잠착등방연)

欲從龍伯國(욕종용백국)

一釣六鰲連(일조육오연)

堪笑槎頭客(감소사두객)

但解縮項鰻(단해축항편)

(후진의 고기 구경)

고기 실은 배가 후진에 모이니

검은 그물이 운연 같이 쌓이네.

한자 남짓한 고기 거두지 않고 버리고

방어와 연어는 물속을 들락날락하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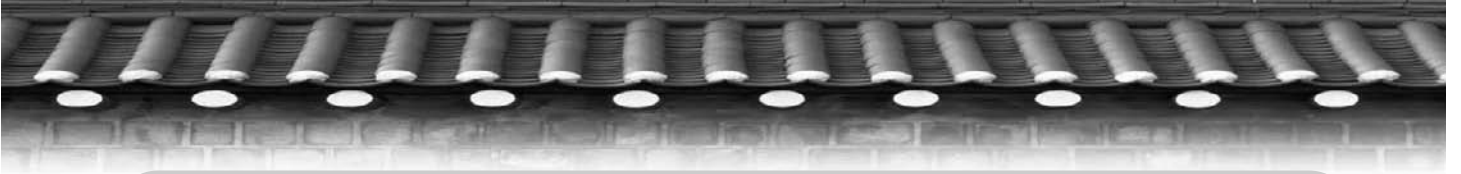
용왕국으로 무리지어 가려하던

여섯 마리 자라가 낚시에 걸렸네.

능숙한 사공은 뱃머리서 웃으면서

다만 방어의 목을 따서 묶는구나.





第 27 景 답리 (冷泉)

冷泉

冷泉 在五峰山下

냉천 재오봉산하

냉천은 오봉산 아래(강현면 답리)에 있다.

世稱 觀音化爲刈稻 高僧元曉 因取飲冷泉 與之戲謔

세칭 관음화위에도 고승원효 인취음냉천 여지희학

관음이 부인으로 화신하여 논에서 벼를 베는데 고승 원효대사가 지나다가 냉천 물을 마시면서 부인과 서로 희롱하였다고 세상에 전한다.

鄭樞詩 海岸山從赫世前 幾看興廢迄今年 秋涵一野亞紅稻 日照五峯生紫烟 德女故居莎覆砌 曉公遺迹樹連天

정추시 해안산종혁세전 기간흥폐흡금년 추함일야아홍도 일조오봉생자연 덕녀고거사복제 효공유적수연천

登樓擬結相思夢 夢裏還應酌冷泉

등루의결상사몽 몽리환응작냉천

*

정추(鄭樞)의 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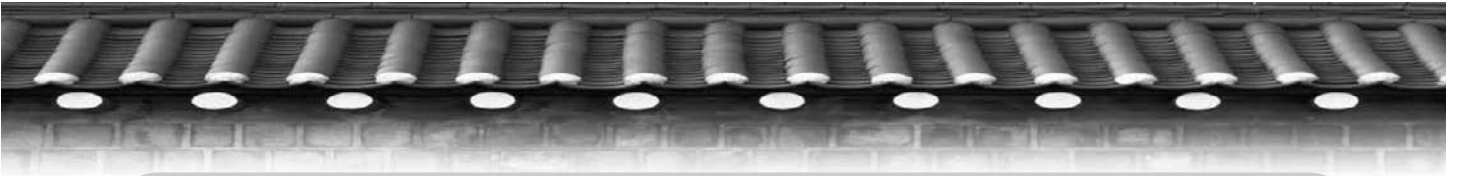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부터 왔는데,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성쇠를 보았다.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른다.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元曉)의 남긴 자리에는 숲이 하늘에 연했다.
누 에 올라 상사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 하리라.”라고 읊었다.

冷泉故居(냉천고거)
 觀音化阿難(관음화아난)
 天治幻枯槁(요야환고고)
 曾不散天花(증불산천화)
 而來刈田稻(이래예전도)
 高僧亦解佩(고승역해패)
 泥絮乍顛倒(니서사전도)
 尙學羅裙色(상학나군색)
 萋萋冷泉草(처처냉천초)

(예전에 살던 곳 냉천)
 석가의 제자가 된 관음보살이
 가을이 되어서 예쁘게 변했네.
 눈이 내리기 이전에
 논에서 벼를 베누나.
 변뇌에서 벗어난 원효대사가
 넘어져 가삼에 진흙 묻었었네.
 훌륭한 부인은 학문도 높은데
 냉천에는 잡초만 무성하구나.

*鄭樞(정추) : 고려 공민왕 때의 학자. 호는 원옹(圓翁). 공민왕 때 대사성(大司成)으로 강령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禡王)의 사부를 겸임. 시에 능하여 이름이 높았다.





第 28 景 검달동 (黔達洞:법수치 계곡)

黔達洞

黔達洞 在府南八十里山谷間絕險處

검달동 재부남팔십리산곡간절협처

검달동은 부의 남쪽 팔십리 아주 험준한 산골에 있다.

疊嶂環擁 人迹罕到 卽梅月堂舊隱處 遺址尙存

첩장환옹 인적한도 즉매월당구은처 유지상존

첩첩한 산봉우리가 빙 둘러 안고 있어 인적은 드물다. 즉 매월당 김시습이 옛날 수확하며 은거하던 곳으로 살던 터는 아직 남아있다.

俗傳五歲童子基云

속전오세동자기운

속세에 전하기로는 오세의 어린 동자가 살던 터라 한다.

黔洞荒墟(검동황허)

知君本清寒(지군본청한)

卜地焉取黔(복지언취검)

猶傳五歲童(유전오세동)

不死千年心(불사천년심)

悽悽采薇歌(치처채미가)

後世誰知音(후세수지음)

空餘小梅月(공여소매월)

掩暎五柳陰(엄영오류음)

(검달동의 황폐한 터)

그대는 아는지 매월당의 본성을
살 곳 고르다 검달동을 택했구나.

오세 어린이가 전하는

정은 천년을 이어가네.

고사리 캐던 구슬픈 노래

후세에 누가 그 소리 알리.

어린 매월당의 집터만 남았는데

다섯 그루 버들이 빛을 가렸구나.

* 진(晉)나라의 도연명(陶淵明)이 귀향하여 은사로서 문안에 오류수(五柳樹)를 심고 자칭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하였다.



第 29 景 납호당 (納灑堂:군청뒷산)

納灑堂

納灑堂 在太平樓東數十步許 俯海一面 舊爲遊賞之所 堂毀未復

납호당 재태평루동수십보허 부해일면 구위유상지소 당훼미복

납호당(納灑堂)은 부의 태평루(太平樓)에서 동편으로 수십보 정도에 있다. 한 면을 굽어 바다를 보면서 예전에 유상하던 곳이나, 당은 훼손되었으며 복구되지 않았다.

灑堂望海(호당망해)

習池與漢水(습지여한수)

不足一染指(부족일염지)

卷我黃竹簾(권아황죽렴)

盡納滄溟水(진납창명수)

鯨鵬戲樽俎(경봉희준조)

蟾鴉掠枕几(섬아략침괴)

時時遇槎仙(시시우사선)

窮河問道里(궁하문도리)

(납호당에서 멀리 바다를 보다)

남대천과 늪이 해자처럼 겹쳐진

부족한 한쪽을 아름답게 꾸몄네.

내 누런 죽렴을 말아 올리고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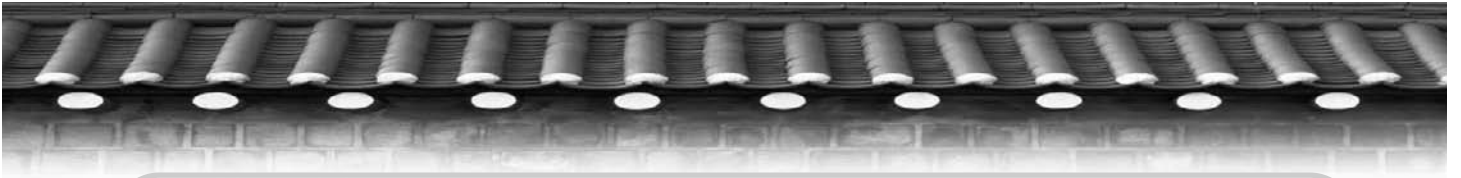
납호의 끝은 큰 바닷물과 이어졌네.

영웅호걸들은 연회를 즐기는데

달 같은 계집은 침상서 노니네.

때때로 신선이 뗏목을 만나서

물길이 얼마나 되는가 묻노라.



第 30 景 영혈사 (靈穴寺)

靈穴寺

靈穴寺 在雪嶽 新羅僧元曉所創建 舊多高僧云

영혈사 제설악 신라승원효소창건 구다고승운

영혈사는 설악산에 있다. 신라의 승려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옛날에는 고승이 많았다고 한다.

靈穴尋僧(영혈심승)

*
楞嚴不自讀(능엄불자독)

誰與講空有(수여강공유)

暫謝習池畔(잠시습지반)

來訪空門友(래방공문우)

已許玉帶鎮(이허옥대진)

莫惜鴛鴦綉(막석원양수)

欲入白蓮社(욕입백련사)

*
奈此葡萄酒(내차포도주)

(스님이 찾는 영혈사)

능엄경은 저 혼자 독경하지 않으니

비어 있으니 누구와 더불어 익힐까?

잠시 물러나 못가에서 익히다가

찾아와 보니 문안이 비어있구나.

벌써 권력으로 진정시켰으니

부부의 애정을 애석타 말아라.

내 백련사에 들려고 하니

이 포도주는 어찌 할거나?

*楞嚴(능엄) : 능엄경(楞嚴經)과 능엄찬(楞嚴讚)

- 능엄경(楞嚴經)은 불교 선종(禪宗)의 주요 경전으로 인연(因緣)과 만유(萬有)를 설명한 것인데 1461년(세조 7년) 한글로 번역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10권 10책이 있다.
- 능엄찬(楞嚴讚)은 고려 가사의 하나인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실려 전하며 내용은 불교를 찬송한 것으로 여덟 구(八句)로 되어 있다.

*白蓮社(백련사): 동진(東晉)의 혜원법사(慧遠法師)가 여산(廬山)의 호계(虎溪) 동림사(東林寺)에 있을 때 중혜영(慧永), 혜지(慧持), 도생(道生) 및 명유(名儒) 유유민(劉遺民), 종병(宗炳), 뇌차종(雷次宗), 주속지(周續之) 등 백이십삼인과 미륵불상 앞에서 맹세하고 같이 서방정업(西方淨業)을 닦기 위하여 맺은 결사(結社). 이결사로 말미암아 정토종(淨土宗)이 융성하게 되었음.
 절에 백련이 많았기 때문에 백련사라 이름 지은 것이며 단지 연사(蓮社)라고도 일컬음.



조산 동명서원과 조인벽 선생

서기 1628년 양주부사로 있던 조위한이 향교 이외에 서원이 없던 양양지방에 유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지표로 삼고 서원 설치를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자면 이 고장에 연고가 있는 선현을 향사해야 하므로 이 고장 유지들에게 송모상징이 될 만한 先賢을 물어본즉 80고령에 前正言이었던 노경복이라는 청수한 노인이 말하기를 「이 고장은 본래 서울이 멀고 山과 바다로 쌓여서 한산한 곳이었는데 옛날 고려 말엽에 고려조에 忠誠하던 조인벽 선생이 이곳으로 와서 숨어살면서 후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德化시켜서 이 고장을 文鄉으로 열었으니 우리도 그분의 혜택이며 아직까지도 그분의 덕망이 전래되고 있어 이 고장 崇慕賢人이라 할 수 있으니 그분을 향사하고 학도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풍속을 순화시키도록 함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노경복 선생을 위시하여 최정립 선생 이현일 선생등과 협력하여 서원을 창건하고 향토교육의 수도장으로 마련하여 서원 북쪽에 충현사를 세워 조양열공의 위대한 호국정신과 만고 불멸의 충절을 앙모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봉향하였던 것이다. 당시 동명서원은 전토와 염전 그리고 어선을 임대해주고 그 세를 받아 경영하다가 병란때 다 소진되어 1786년 영남 순흥에 재건하였다가 그 후 1871년에 나라의 정비령에 의해 헐어버리고 1898년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이 순시 차 왔다가 빈터에 유허비만 세웠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고속도로 부지가 되어 제자리에 세우지 못하고 현재 백호능선에 있는 서원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후 1975년 고속도로 건설로 철거하게 되자 양양유도회에서는 본 서원 복원을 위하여 동명서원 복구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 유림들의 성금으로 1974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 자금사정 등의 익로에 봉착하자 다음해 한양조씨 종문회의 찬조금으로 공사를 계속 1982년 4월에 준공하고 5월에 위패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충혈사 봉향한 조인벽 선생은 여말의 무신으로서 호는 우계 또는 해월정이며 함경도 덕원 출신으로 밀직부사를 역임한 용성군 돈의 아들로 1356년 아버지와 함께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를 도와 쌍성수복을 비롯하여 강릉도 도원수로 외적을 물리치는데 크게 공헌함은 물론 우리 고장의 향토수호에도 많은 공적을 세웠다. 이태조와는 처남 매부사이로 이태조가 등극하면서 수차 부름을 받았으나 선생은 삼정철벽에 불사이군의 절의를 견수하여 이곳 자연경관이 수려한 당시 시상리 현 조산리에 은퇴하여 살았던 것이다.

지금 동명서원은 조산리 서쪽 뒷산 옛 수군만호영이 있던 대포영성지에 위치하여 매년 5월 유도회에서 주관하여 제사를 올리고 있으며 평일에도 참배객이 많이 찾고 있다.

뜨거운 태양과 물놀이에 싫증이 나면 조산 바로 뒷산에 위치한 동명서원을 찾아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잠시 사색에 잠기는 것도 좋은 피서 방법이 되겠다.





漁城田

약 400년 전 마을의 서북방에 漁城寺가 있어 漁城田이라 하였으며, 현재 寺址에서 당시의 것으로 추측되는 기와 조각이 나왔다. 또한 山環如城 水深可漁라 하여 里名을 漁城田이라 했다고 한다.

漁城田에 경치 좋은 곳이 많으니 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花登落照 : 진달래꽃이 한창일 때의 落照의 아름다움
2. 雲門川石 : 냇가에 솟아 있는 맑고 아름다운 바위
3. 爐峰明月 : 높은 山위에서 비치는 月出의 아름다움
4. 帽岩漁笛 : 바위에 걸쳐 앉아 낚시하며 피리소리 듣는 평화롭고 한가한 풍경
5. 高積浮雲 : 높은 山頂에 겹겹이 쌓여 있는 구름의 아름다움
6. 奈川遊漁 : 맑은 물속에 고기떼 노니는 모습
7. 銀潭瀑布 : 마을의 서북방에 있는 은빛 폭포
8. 龍沼鳴灘 :沼 주변에 흐르는 물소리의 아름다움
9. 山寺暮鍾 : 明珠寺의 저녁 종소리
10. 烏峴煙樹 : 저녁 연기 감싸인 숲 위로 까마귀 날아가는 한가한 저녁노을



梅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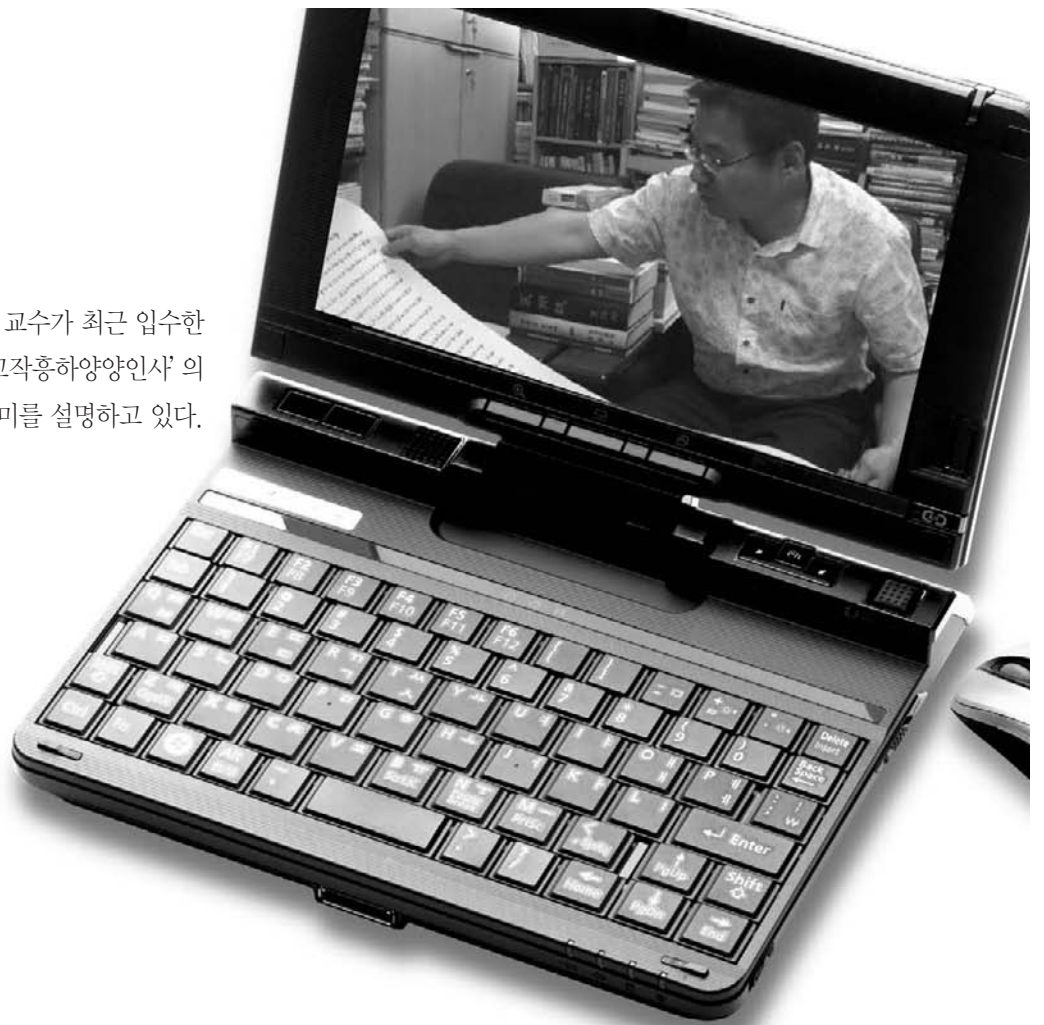
浦梅里에 있는 주위 1리나 되는 호수중에 배 모양으로 된 산이 있고 梅花가 만발하여 있었기에 梅湖라 부르고 지명을 浦梅(포매)라 하며, 혹은 말하기를 개마호(蓋馬湖)라고도 한다.

이 산에는 湖石亭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石臺 만이 있으며 풍경이 맑고 아름다워 梅湖十景이 있다.

梅湖十景

- 望景歸雲 : 만경대에 떠돌아가는 구름.
- 城峽駁雪 : 성재봉의 얼룩진 눈.
- 壯洞清流 : 장동골의 맑게 흐르는 시냇물.
- 五松暮鶴 : 五松亭 저녁 때의 백학들.
- 見佛排岩 : 건불의 절하는 바위(굽정바위)
- 湖石清風 : 호석정의 맑은 바람.
- 前連明月 : 앞개의 맑은 달빛.
- 曲湖釣梁 : 굽장개 낚시터의情趣.
- 南涯浮島 : 남에 앞바다에 뜬 섬.
- 陽也歸帆 : 陽也島의 夕陽빛 받은 풍선들.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가 최근 입수한
'문현산학교작흥하양양인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문현산학교작흥하양양인사 (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에 대하여

장정룡 (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

1. 머리말

강원도 동해안의 양양, 강릉 일대의 근대기 무렵 신학문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06년에 개교한 현산학교다. 이 무렵에 세워진 강릉 동진학교 등과 함께 사설교육기관으로 개설되어 종전의 서당과 향교 중심의 유림교육을 바꾸는 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유림의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나 국내외적으로 불어오는 신조류는 교육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남궁 익 양양군수가 부임하여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영어, 일어, 한문과 역사, 국어 등을 가르치는 등 현대적 사조에 맞춘 신교육의 전당이 마련되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자료는 양양 현산학교가 설립된 지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7일 쓰인 첩문으로, 영동지역에서 200여명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으며, 지역과 향교에서 거금을 만들어서 현산학교를 건립하는데 앞장 선 남궁 익(1863~1939)군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양양군민을 격려하는 형식의 글로 작성되었다. 간략하게 현산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적 동향과 현산학교 개교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현산학교 설립과 지역 유림동향

《양주지》에 의하면 현산학교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00년 말기에 정부로부터 공립소학교를 특설하라는 훈령이 내려오자 기존의 유림에서는 신식교육 반대가 심하였다. 1904년에 이교필이 양양향교 재산으로 소학교를 설립하고자 학부허가를 주선하다가 유림의 반대로 중지되었고, 동년 7월 최항렬, 최영삼 등이 향교 소유인 학전과 기타 재산으로 소학교 설립청원을 학부에 제출하여 특허로 훈령이 내렸다. 그러자 동년 8월 양양유림의 향교에서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이항열, 최영삼을 동행케하여 양양부 관아에서 처벌해 줄 것을 소청하였다. 당시 군수 김흥기는 허가 취소원서에 이항열이 강제 날인케 하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정현동, 노병익, 이두재 등은 반대하려고 상경하였다. 동년 12월 정현동 외 2인이 의정부에 제소하여 5인을 처벌하고 유림적부에서 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1906년 양양군수 남궁 익이 부임하였다. 동년 2월 소학교 설립문제로 군민 대표들을 소집하여 향회를 개최, 협의한 결과 반대론이 있었고 변재안(辨財案: 재정조달방법)이 곤란하자 수향(首鄕)과 통유(通儒)들로 하여금 재정을 조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통유들이 거부하므로 유림들이 향교에 모여 대회를 열고 각 종친회와 서당계에서 1만량을 조달토록 하였다. 동년 4월 9개면에 사는 재산가들을 현재의 군청사 뒤 태평루 정자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였다. 연회가 파할 무렵 그

자리에서 소학교 설립보조금 3만량을 모금하였다. 이에 따라 향교의 향장(鄕長)은 폐지되고, 향청(鄕廳)에 남아있던 재산과 유림들이 모은 1만량을 합하여 4만량으로 현산학교를 건립하였다. 이로써 재력이나 학교 내실면에서 도내 제일로 손꼽혔던 것으로 강릉 선교장의 동진학교와 쌍벽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07년 순종 원년 4월 민공호, 이강년, 박장호, 주광신, 한갑복 등 의병들이 본부 군청을 점령하고 현산학교에 불을 질렀다. 이후 다시 건물을 수습하여 1911년에 양양공립보통학교로 개칭했다. 교사는 남궁 억을 비롯하여 정우영, 김홍식, 김홍영 등 여러 명이 있었으며, 김성제는 현산학교 교사로 한문과 수학을 전담하였으며 산학통편에 능숙하고 만년에는 한의로서 지역에 공헌하였다. 《향토지》(양양문화원, 1976. 168쪽)에는 다음과 같이 현산학교에 대해 기록하였다.

한서(翰西) 남궁 억(南宮 億) 선생은 고종 병오 1906년 1월에 양양군수로 도입하셨다. 한말의 애국지사로서 조국애와 민주사상에 불타는 개화의 선구자이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국권회복과 민족부강의 길은 교육에 있음을 선각하시고 먼저 민의를 들으면서 현산학교를 설립한 것이 1906년 7월 20일이다. 선생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한편 각 문중 재산을 거둬드리니 그때 화폐로 4,000환의 거액의 기본금을 세우고 현산(峴山)이라는 관사(冠詞)를 따서 동헌 옆에 현산학교를 세워 한문, 국문 외 양학을 주로 가르치셨다. 반대자와 침략자를 붙잡아 태형까지 하면서 모집하니 200여명의 학생이며 거개가 상투를 짠 학생들이었다. 그 당시 수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어, 음악 - 교사 남궁억 - 양양군수
- 수학, 역사 - 교사 정우용 - 후에 서흥군수
- 일어, 체조 - 교사 김홍식 - 참영사관학교 출신
- 국문, 한문 - 교사 김홍영 - 후에 면장

이것이 바로 양양초등학교 전신인 동시에 선생이 가르치신 민족정신이 맥맥히 흘러 3.1만세운동에 횃불을 올렸던 것이다. 아직도 제자 몇 분이 남아 있어 선생의 거룩한 덕을 흠모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존하여 영세불망하고 길이길이 그 공적을 빛낼 것이다.(주:선생의 호는 한서(翰西)이며 그 동상은 흥천에 세워져 있다)

3. 현산학교 설립 축하첩문 내용

〈현산학교가 흥성하였다는 것을 듣고 양양인사들에게 경하함(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이라는 첩문(牒文)은 음력 병오년(1906) 8월 17일에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고급한지에 먹으로 내려 쓴 국한문 혼용체로 길이 120cm 너비 15cm 두루마리에 1천자내외의 반초서체로 작성되어 있다. 양양교육사의 귀중한 사료로서 내용의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학교가 생긴 후 몇 달 되지 않아 원근의 학도가 일시에 운집하여 이미 2백여 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 강릉, 간성, 삼척 등 군에서 오는 학도가 끊이지 않으며, 연조금이 합하여 엽 3만여 량이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매년 벼가 일백석이고 의연금을 내는 자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금일 양양을 위한 일에 이곳 군수 남궁 억 씨가 열심히 개발하고 이끌어 세상의 목탁과 몽매를 깨우치는 종이 되는 것을 남궁 억씨가 일시에 일으켰다. …아, 장하다 양양이여, 번성하라 양양이여. 나는 양양인사들을 경하하고 또한 전국동포에게 격려하노라.”

이 격려문은 현산학교가 개교한 1906년 7월 20일 이후 불과 27일 만에 학생수가 2백 명이 넘고 모인 금액이 4천환을 넘게 되어 전국에서는 유일한 학교가 된 것을 경하하는 글이다. 1906년 1월 양양 군수로 부임하여 1907년 5월에 사임한 한서 남궁억 군수는 부임한 1906년 2월부터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과 몇 달 후인 7월에 당시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현산학교를 개교하였다. 당시 한학을 교육하던 유림들의 반대와 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당이 아닌 신학문학교를 개교한 것은 지역교육사로서 중요한 뜻을 지닌다. 당시 양양은 소읍이고 벽지인 곳에서 영어, 국문 등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인근 강릉, 간성, 삼척 등지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운집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당시 팔도 가운데 가히 양양에 부끄럽지 않은 군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하는 등 양양 현산학교가 어려움 속에서 개교한 것은 타 지역에서도 본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글은 작성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남궁 억 군수를 치하하고 양양인사들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하는 문장내용으로 보아 지역유지나 당시 교육분야 상위직책자의 글로 판단된다. 획이 분명치 않은 벽자가 더러 있으나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事

邇來風潮所趨에 全國이 駸駸若有草偃之狀하야 捐貲而設校者와 募義而營學者가 幾乎. 郡郡道道에

無處不有하여 其間本低之隨聞揭載며 隨事讚揚이 不可彈記오. 或由該校之請要하여 因以載報者도 亦已多矣라. 顧今日之事勢하고 念國家之前途에 惓惓乎一學校之 或興或弛하여 閱覽舊紙에 每到某塾某校 卽立之欄內호면 未嘗不再三注眼에 諷誦不已하다가 至於襄陽峴山學校之盛況 호야난 不覺蹶然而興에 抽筆氣聳也로다

噫라, 千古浩劫에 碧海가 有變爲桑田者矣어니와 實不料 襄陽人士가 一變至道을 若是其勇也로다. 夫襄陽은 東海極濱이요 避鄉僻邑이라 士瘠人勤에 有唐虞太古之風하고 山多水列에 無都邑繁華之觀하야 國朝幾百年來로 未嘗有偉大人物이 樹風多羊於後世하며 維新更張之後에도 亦未聞何許先覺이 破天荒於一朝하고 其所可稱者난 只是古朴淳勤而已러니. 今乃彈指之頃에 水落石出하고 雲破月來하여 一隅荒僻野味之舊襄陽이 遽作面目改觀之新襄陽하야 設立學校에 唱導學問之必要하고 募集聰俊에 快劈頑迷之舊習하야 臨淮之壁壘旗幟가 慶其精彩하며 項籍之沈船破釜가 現其勇斷하야 彬彬文學之風이 迄爲東道之先唱하니 嗚呼盛哉라.

該校之卽立이 今未幾月에 遠近學徒가 一時雲集하야 已至二百餘名之多하고 就中江陵 杆城 三陟等郡에 負笈而至者가 陸續不絕하야 便有四方이 歸之에 庠序不能容之盛觀하고 捐助之金이 合爲葉 三萬餘兩이요 鄉校所送每年租가 亦爲一百石인디 多少義捐者가 尙今不絕하야 便有輕財好義에 不惜責金之氣概하니 東望峴首에 不覺屈勝而稱謝者로다. 嗚呼, 現今八域之內에 可無愧乎襄陽者 其有幾郡歟아

今日襄陽之爲襄襄을 或謂該郡守南宮憶氏之熱心으로 有以啓發하며 勸導之하야 警世之鐸과 醒寐之鍾에 有氏一時之振起라하니 爲斯言者도 不爲無見이나 但該郡人事가 苟無快悟穎發之慧寶가 有過他郡者면 安能如是며 苟如近日之某郡某縣에 頑固革之沮戲學校면 襄陽도 只是百年前之襄陽而已요. 使如近日之某校某塾에 一向萎靡而無奮發之思想하면 現校도 只是設立初之峴校而已니 如氏許多英才을 將何處得來며 其他贊助之志士을 將誰憇思而開導之耶아.

壯哉라, 襄陽이여. 盛哉라, 襄陽이여. 維願襄陽人士는 毋自安於小成하며 毋自盡於遠道하고 心益熱而氣益奮하야 進而爲東道一隅之唱하고 又進而爲東土全國之唱하면 不其莫偉哉아. 襄陽은 小邑也오 僻地也로디 猶能如是하니 域內諸君子난 其無觀氏而奮發者乎아 吾旣爲襄陽人士而賀하고 又以爲全國同胞而勵호노라

陰曆 丙午八月十七日 辛巳

1906년 9월 8일 인가되어 양양읍 구교리 20번지에 설립된 현산학교는 1910년 4월 1일 양양공립보통학교, 1951년 9월 1일 양양국민학교, 1996년 3월 1일 양양초등학교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계승한 양양지역 초등교육의 산실이다.

주지하듯이 남궁 역 군수는 구한말 독립운동가, 교육자,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였는데 독립사상 고취

를 위해 무궁화 보급운동을 펼쳤으며, 교육입국의 관점에서 양양군수 재임시 현산학교를 설립한 공적을 남겼다. 동사략, 동화집인 조선이야기, 가정교육 등 여러 책자를 썼으며, 관동학회 회장, 배재학당 교사, 홍천 보리울 교회와 학교를 세워 무궁화 보급에 노력한 인물이며 특히 강원도 인재육성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한서 남궁 억 선생의 묘역은 선향인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으며 1977년에 세운 묘비명은 ‘正三品 通政大夫 漆谷府使 南宮公 億之墓’라 되어 있으며, 2004년 6월 29일 남궁 억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한서 남궁 억 선생은 양양부사로서 현산학교를 세웠으며 지역의 학생들에게 개화교육과 무궁화를 통한 애국사상을 고취한 큰 공로자다. 아울러 양양에서부터 전국으로 신학문에 대한 열기가 퍼져 나가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다. 다행스럽게 발견된 이 축하문을 통해 현산학교가 지닌 시대적 의미와 교육 사적 의의를 반추하게 되었다.



원일전리 풍구질

이 쇠가 어데 쇠냐
 경상도 안동땅 우성계 쇠로다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푸~ 푸~ 무아
 풍구풍구 풀무야 불어라 불어라 피~익
 그래가지고 픽~해
 아~하 쇠 좋~다

대장간은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옛날에는 시골 장터나 마을 단위로 대장간이 있어 무딘 농기구나 기타 각종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런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대장장은 오랜 숙련을 통해 담금질로 쇠의 강도나 성질을 조절한다. 대장간에는 풀무, 모루, 정, 메(앞메와 옆메), 집계, 대갈마치, 솥돌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다. 대장간이 없는 마을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연장을 버리는 떠돌이 대장장이도 있었다. 자급자족하는 농어촌에서 대장간은 필수적이었다.

모두 25점으로 이루어진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중 〈대장간 풍속도〉를 보면 대장간의 풍경이 잘 드러나 있다.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대주는 사람, 이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사람들, 다 된 연장을 솥돌에 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견습생인 듯한 이는 풀무에 바람을 넣는 듯 줄을 잡아당기고 있고, 담금질하는 데 쓰이는 기다란 목재 함지박도 보이고, 여러 공구를 담은 나무 상자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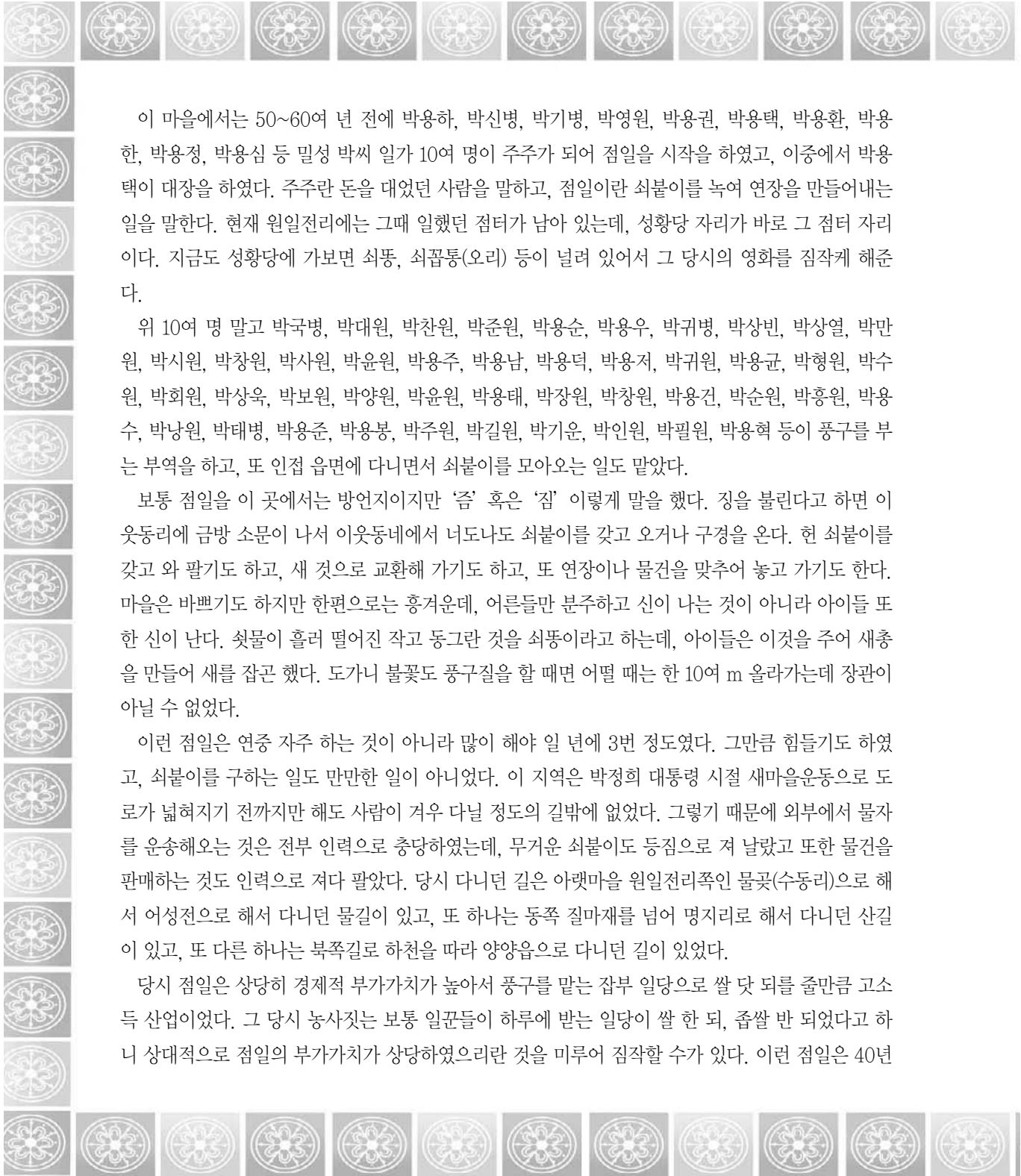
풀무란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하여 화덕에 공기를 불어넣는 연장이다. 네모난 통에 한쪽은 손잡이와 공기 흡입구를 두고, 한쪽은 풍로를 끼워 화덕의 밑부분과 연결한다. 풀무에는 손풀무(橫武)와 발풀무(縱武)가 있다.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를 곶풀무 또는 발풀무라 한다. 손풀무는 손잡이를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숯불을 피우기 위하여 손풍금 같이 생긴 손잡이를 잡고, 폼다 오므렸다 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허풍선(虛風扇)은 역시 손풀무의 하나이다.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풀무질이라 한다.

뜨거운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면서 노동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소리를 하기도 했다. 다음은 북쪽 지방에서 불려졌던 풀무와 관련된 소리 몇 토막이다.

1. 어기여차 불어라 불불 불어라
 슬근 살짝 불어도 가마솥만 나온다
2. 신기곡산 풍구가 얼마나 좋길래
 꽃같은 날 두고 돌아올 줄 모르나
3. 신기곡산 풍구는 칠팔 명이 불어도
 우리집에 풍구는 단둘이 분단다
4. 신기곡산 풍구는 참나무 풍구는 녹이고
 대장간에 풍구는 무쇠동이를 녹인다

위 소리를 통해서 풍구에 관한 대략적인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풍구질을 해 가마솥을 만들고, 적어도 7~8명 이상이 이 일을 했고, 또 무쇠를 녹여 연장을 만들었고, 그런 일을 한 곳이 대장간임을 알 수 있다. 양양에서도 점간이라고 하여 대장간이 있었고, 농가에 필요한 쇠붙이, 연장 등을 만들어 내었다.

현북면 원일전리의 호수는 대략 48호로 박, 김, 전, 윤씨 등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밀성 박씨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밀성 박씨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성황당 제사는 음력 정월 초정일 새벽 5시 반 경에 지낸다. 옛날에 원이 다니던 길이라 해서 원일전리라고 불려졌다고도 하고, 또 원일(元日)이란 화전민이 전토(田土)를 개척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한다고도 한다. 옛날에는 윗마을 원일전리와 아랫마을 원일전리로 구분되었는데, 대략 100여 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1936년 병자년 수해에 아랫마을 원일전리가 사라진 후 그 후로는 윗마을 원일전리만 남아 있다.



이 마을에서는 50~60여 년 전에 박용하, 박신병, 박기병, 박영원, 박용권, 박용택, 박용환, 박용한, 박용정, 박용심 등 밀성 박씨 일가 10여 명이 주주가 되어 점일을 시작을 하였고, 이 중에서 박용택이 대장을 하였다. 주주란 돈을 대었던 사람을 말하고, 점일이란 쇠붙이를 녹여 연장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한다. 현재 원일전리에는 그때 일했던 점터가 남아 있는데, 성황당 자리가 바로 그 점터 자리이다. 지금도 성황당에 가보면 쇠뿔, 쇠뿔통(오리) 등이 널려 있어서 그 당시의 영화를 짐작케 해준다.

위 10여 명 말고 박국병, 박대원, 박찬원, 박준원, 박용순, 박용우, 박귀병, 박상빈, 박상열, 박만원, 박시원, 박창원, 박사원, 박운원, 박용주, 박용남, 박용덕, 박용지, 박귀원, 박용균, 박형원, 박수원, 박희원, 박상욱, 박보원, 박양원, 박운원, 박용태, 박장원, 박창원, 박용건, 박순원, 박홍원, 박용수, 박남원, 박태병, 박용준, 박용봉, 박주원, 박길원, 박기운, 박인원, 박필원, 박용혁 등이 풍구를 부는 부역을 하고, 또 인접 읍면에 다니면서 쇠붙이를 모아오는 일도 맡았다.

보통 점일을 이 곳에서는 방언이지만 ‘즘’ 혹은 ‘짐’ 이렇게 말을 했다. 징을 불린다고 하면 이웃동리에 금방 소문이 나서 이웃동네에서 너도나도 쇠붙이를 갖고 오거나 구경을 온다. 현 쇠붙이를 갖고 와 팔기도 하고, 새 것으로 교환해 가기도 하고, 또 연장이나 물건을 맞추어 놓고 가기도 한다. 마을은 바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겨운데, 어른들만 분주하고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또한 신이 난다. 쇠뿔이 흘러 떨어진 작고 동그란 것을 쇠뿔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주어 새총을 만들어 새를 잡곤 했다. 도가니 불꽃도 풍구질을 할 때면 어떨 때는 한 10여 m 올라가는데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점일은 연중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야 일 년에 3번 정도였다. 그만큼 힘들기도 하였고, 쇠붙이를 구하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으로 도로가 넓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길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자를 운송해오는 것은 전부 인력으로 충당하였는데, 무거운 쇠붙이도 등짐으로 저 날랐고 또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인력으로 저다 팔았다. 당시 다니던 길은 아랫마을 원일전리쪽인 물곶(수동리)으로 해서 어성전으로 해서 다니던 물길이 있고, 또 하나는 동쪽 질마재를 넘어 명지리로 해서 다니던 산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쪽길로 하천을 따라 양양읍으로 다니던 길이 있었다.

당시 점일은 상당히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서 풍구를 맡는 잡부 일당으로 쌀 3되를 줄만큼 고소득 산업이었다. 그 당시 농사짓는 보통 일꾼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 쌀 한 되, 좁쌀 반 되였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점일의 부가가치가 상당하였으리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일은 40년

대 초 그만두었는데, 이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양은 그릇 등으로 대체되었다.

점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도가니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의 용광로인데, 이 지역에서는 가마솥배, 솥집이라고 부른다. 도가니는 흙으로 빚는다. 둘레는 세 사람이 안을 정도이고, 높이는 150cm 정도이고, 직경은 120cm 정도이다. 형태는 위는 터져 있고 밑은 동그랗게 되어 부뚜막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인데 마치 밥사발과 비슷하다. 그런데 맨 위는 좌우 높이가 동일하지는 않다. 다른 쪽과 비교해 숯과 쇠붙이를 넣는 쪽은 조금 낮게 만든다. 이는 그쪽으로 쇠붙이와 숯을 넣어야 하므로 조금 낮게 하고, 다른 쪽은 불길이 덜 닿으라고 조금 높인다. 부뚜막 높이는 대략 100~120cm 정도 된다. 도가니를 올려놓기 위하여 중간에 우묵하게 구멍을 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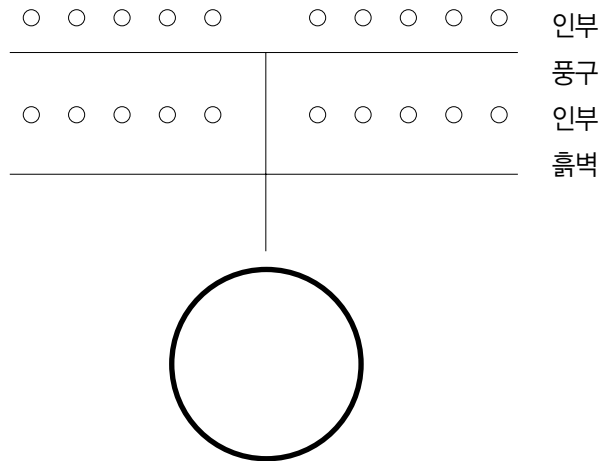
도가니를 만들기 위해 우선 제일 좋은 흙으로 모형을 만든다. 옹기를 만드는 흙이면 무난하다. 동그랗게 밥사발처럼 모형을 뜬 후 철사를 동여매고 씨릿대로 둘레를 친후 다시 흙을 바른다. 이런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 해야 도가니가 만들어진다. 도가니 벽의 두께는 대략 17cm 정도이다. 대강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안쪽에 뽀얀 찰질(찰흙)을 물에 풀어서 덧바르는데 이 과정을 상당히 여러 번 한다. 일종의 유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해야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는다. 이 물기가 다 마르기까지 대략 닷새 정도 소요된다. 다 마른 후 단단하게 구워지라고 숯불을 해 놓는다. 이렇게 해서 잘 구워진 도가니를 여러 사람이 작대기를 밑에 괴어 들고 부뚜막에 올려놓는다.

한 번 도가니를 만들면 상당히 여러 번 사용한다. 망가진 곳이 있으면 그곳만 수선해서 다시 사용하곤 한다. 도가니에는 밑에서 한자 반 정도 높이에 쇳물이 나올 구멍을 자판기 컵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조금 위에 쇳물 나오는 구멍보다는 좀 크게 하여 다른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 구멍은 사용하다 남은 쇳물을 다시 붓는 구멍이다.

도가니 뒤로는 풍구를 설치하는데 도가니의 뜨거움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자하여 벽을 설치한다. 보통 도가니 높이만큼 되는 흙벽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풍구를 설치한다. 풍구는 보통 소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보통 8m 정도이고, 두께는 15푼, 너비는 두자 정도이며, 도가니 뒤로 한 일(一)자 형태로 가로로 배치한다. 한글 고어의 'ㅇ' 자를 연상하면 좋다. 풍구 길이만큼 땅을 파낸후 풍구를 설치하는데, 지렛대 모양으로 중앙을 도톰하게 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좌우 양편 땅 흙을 비스듬히 파내어 밟으면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풍구 길이와 너비만큼 땅을 파내고 설치하는 이유는 풍구가 옆으로 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풍구를 지표면에 설치하므로 풍구의 바람을 도가니로 보내기 위하여 풍구 아래쪽에 웅덩이를 파내어 바람의 연결통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풍구를 설치한 후 풍구인부 배치는 왼편에 10명, 오른편에 10명씩 배치하는데, 각각 10명은 또 길다란 풍구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5명 오른편으로 5명씩 나누어 서서 풍구를 밟는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 ○는 도가니를 표시한 것이고, 윗줄의 °는 풍구인부의 배치도다. 도가니하고 흙벽 사이 거리는 한자 정도 되고, 흙벽과 풍구 사이도 그 정도쯤 되었다. 풍구를 밟기 위해서 보통 마을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한 번 불을 지피면 원할 만큼의 쇠붙이도구를 만들 때까지 불을 꺼트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24시간 이상 작업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20명이 2교대로 작업을 하였고, 대략 한 시간마다 교대를 하였다. 또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흙벽 길이보다 풍구 길이가 조금 더 길었다. 그래서 풍구 양끝에 있는 사람들은 흙벽 너머로 고개를 숙 내밀어 도가니의 불길을 볼 수가 있었으나, 다른 나머지 풍구인부들은 도가니 불길을 볼 수가 없었다. 일기가 불순할 때를 대비하여 흙벽과 풍구 사이에 서까래를 설치하여 그 위에 짚으로 지붕을 해 씌운다.

흙벽은 그 속에 싸릿대를 넣어 만든다. 두께는 15cm 정도쯤 되고 높이는 사람 키 높이 정도이다. 위 도표에서 풍구와 흙벽 사이의 세로줄은 도가니까지 이어지는 줄인데 바로 풍구의 바람을 도가니(사실은 도가니 밑의 부뚜막)로 보내는 연결통로이다. 이 통로는 나무로 만들었고 흙을 칠했다. 이 부분의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갈랍쇠이다. 풍구 왼편을 밟으면 갈랍쇠 왼편 문이 열려 바람이 들어가고, 또 풍구 오른편을 밟으면 갈랍쇠 오른편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간다. 왼편, 오른편 풍구를



밟을 때마다 바람이 '푹 푹' 소리를 낸다.

도가니에 불을 지피고 풍구에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도가니 속의 쇠불이가 녹는다. 이때 추가로 쇠불이나 숯을 넣을 때는 부뚜막에 올라가 삼태기로 퍼 담아 넣는다. 숯은 백탄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산에 숯가마를 직접 만들었다.

씻물을 받아낼 때는 쇠꼬챙이로 씻물 받는 구멍을 찌른다. 마치 칼로 무엇을 도려내는 것처럼 찌르면 도가니 벽채 흙이 빠져 나오고, 다음에 '줄~ 줄~ 줄~' 씻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오리(귀뚜둥우 같이 생긴 씻물을 받아 담는 도구)를 가지고 씻물을 받아 미리 분을 떠놓은 곳에 들고 가서 씻물을 부어 여러 연장을 만든다. 뜨거운 씻물을 오리에 가득 담으면 상당히 무겁다. 둘이 들기에도 힘이 부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만이 오리를 들고 옮긴다. 왜냐하면 3~4명이 옮긴다면 그들의 보폭이 서로 안 맞아 오리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2명이 옮기는 것보다 크기 때문인데, 오리가 기울기라도 하면 그 속에 담긴 씻물이 땅에 쏟아질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반드시 두 명이 오리를 들고 밟을 맞추어 씻물을 옮긴다. 씻물을 오리에 담아서 옮기는 중 씻물이 늦게 식으라고 짚으로 그 위를 덮는다.

쇠를 다루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땀금질이라고 한다. 양양을 이 지역에서 애양이라고 발음하는 식과 동일하다. 땀금질을 하여 이곳에서 주로 만드는 물품은 논가는 버섯, 밭가는 흙쟁이 버섯, 다리쇄, 가마솥, 가마솥에 든든하라고 거는 쇠뿔덩어리(뿔거리), 향아리, 불을 담는 화로, 물 저장 철향아리인 물두명, 쟁개비(냄비), 옷 대리는 대리미(다리미), 인두, 불구문, 화덕 등 20여 가지가 넘었다. 이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물두명이다. 물두명은 길이는 1m, 직경도 1m 가 되는 향아리다. 집에 물을 떠다 놓은 저장탱크 같은 구실을 한다. 씻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므로 가장 비쌌고, 그만큼 무거워 장정 두어 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옮길 정도였다. 가마솥은 주문한 집으로 갖고 가서 설치를 한 후 하루 정도는 직접 불을 지피 무쇠솥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해준다. 처음에 불의 강도가 너무 세면 무쇠솥이 갈라질 수도 있으므로 화력 조절을 잘 하여 무쇠솥이 갈라지지 않도록 길을 들여주는데 이를 '질 들인다'고 한다. 이럴 경우 필경은 하룻밤을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된다.

싸릿대를 엮어 흙을 발라 거푸집을 만든다. 여기에 모래를 풀로 이겨서 집어넣은 후 다시 모래덩어리를 꺼내 3푼 정도 깎아낸다. 이후 거푸집에 깎아낸 모래덩어리를 집어넣고 그 사이를 씻물로 채워 여러 물품을 만든다. 혹 물품을 만들 때 씻물이 오리 한 바가지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 꺼번에 여러 오리를 갖고 와 일시에 붓는다. 중간에 잠시라도 중단하였다가 다시금 붓게 되면 흔히 '쩍' 이 생겨 물건이 쉬이 깨져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 물품을 만들고 남은 씻물이 또한 하



나의 물품 만들기에 부족하다면 역시 사용하지 않고 도가니에 부어놓고, 새로 오리에 쇳물을 가득 채워와 모형에 쇳물을 붓는다. 사용하다 남은 쇳물은 다시 도가니에 붓고, 물품을 다 만들고 도가니에 불이 꺼지면 도가니의 쇳덩이를 끄집어내어 보관한 후 다음에 사용한다.



당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고자 소리를 하였다고 하나, 그 소리를 채록하지는 못하였다. 손양면에서 풍구소리를 예전에 채록한 문헌이 있었다. 둔전리에도 대풍구간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대장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도 가보면 당시 녹였던 쇳덩이 녹이 슨 채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양군 관내에서 점일을 했던 곳은 여러 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은 연장들은 직접 집에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원일전리에 박씨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약 300년 전 박구동으로부터 시작한다. 8대 할아버지 박창숙의 묘를 쓰기 위하여 장지를 잡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상주가 지관과 친한 관계로 산소에서 패철을 놓아 방향을 잡을 때 평어를 사용했다. 이 말에 지관은 마음이 상하여 육군대장이 날 자리를 약간 비켜서 징대장이 나게 했다. 이런 사실은 그 지관이 산소자리를 잡아준 후 장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랫동네 주막에서 술을 한잔 걸치면서 옆사람에게 말하면서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박씨 문중에서 13대에 이르러 박용택이란 점일을 하는 점대장이 났다고 모두들 말을 한다.



원일전리는 풍구질뿐만 아니라 명주길쌈으로도 유명하다. 명주는 주로 산뿔을 따서 길쌈을 했는데, 이곳의 명주는 양양군 관내에서도 유명할 만큼 질이 좋았다.



이상에서 풍구질 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낭당 제사를 올린다.
- 2) 가마솔배(도가니)를 만든다. 흙과 싸릿대를 섞은 후 철사줄로 칭칭 감고, 그 위에 찰흙을 여러 겹 발라 가마솔배를 만든다. 크기는 150cm 정도다.
- 3) 가마솔배를 부뚜막으로 운반한다.
- 4) 가마솔배 뒤에 흙벽을 만들고 풍구도 설치한다.
- 5) 설치가 끝나면 숯과 쇳덩이를 가마솔배에 집어넣는다.
- 6) 풍구를 불어 불을 붙인다. 40명이 20명씩 나누어 교대로 풍구질을 한다.
- 7) 쇳물이 흘러나오면 오리(쇠뿔통)에 받아 본에다 부어 여러 물품을 만든다. 오리는 아무리 무거워도 2명만이 들고 옮긴다. 오리 위에는 쇳물이 식지 말라고 짚을 덮는다.
- 8) 여러 물품이 만들어지면 도가니의 불을 죽인다.



9) 가령 무쇠솔의 경우는 직접 주문한 이의 집을 방문하여 하루 정도 머무르며 직접 불을 떼어 화력조절을 해주고 온다. 이를 '질 들인다' 고 한다.

강원도 도내 인제군에서도 무쇠점골 보습점간이 있었다.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약 200년 전부터 인제군 서흥리(무쇠점골)에서 무쇠가 나왔다 하여 무쇠점골이라 칭하였으며, 이곳에서 철광석(원석)을 채취하여 점간에서 녹여 받가는 보습을 만들었다고 한다. 보습점간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겠지만 무쇠점골 보습은 철광석이 좋고 생산기술이 뛰어나 인근 양구, 홍천, 고성, 양양지역에까지 인제무쇠점골 보습을 이용함으로써 판로가 아주 좋았다고 한다.

숯으로 쇠를 녹여 농사일의 기본이 되는 농기구를 만든다든가 또는 무쇠솔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 생활용품을 만들던지 하여 현재의 주물공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인제군에서는 1988년 당시 보습을 만들었던 이들의 고증으로 이를 놀이화하여 道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종합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래 마당은 그 세부 마당이다.

제1마당 : 풍구 설치, 파쇠 수집, 철광석 수집, 손수틀, 보습뎡이, 세움구덩이, 가제간, 뎡이틀 등을 준비하여 농악에 맞추어 입장을 한다.

제2마당 : 뚝제사(치성드리기) : 각종 제물을 준비하고 보습이 잘 구워지게 해달라는 치성을 드리고 풍구 주변에 술을 붓고 다함께 음복한다.

제3마당 : 풍구, 보습뎡이, 세움구덩이, 가제간, 뎡이틀을 설치하고 농악과 노리에 맞추어 풍구질을 시작으로 보습을 만들기 시작한다.

제4마당 : 참가자 모두 농악에 맞추어 만들어진 보습을 흘치기에 지고 각종 연장과 소도구를 들고 한쪽에서는 소로 실제 논을 가는 흉내를 내면서 보습이 잘 구워진 것을 자축하는 한마당 놀이 춤을 춘다.

영혈사고기록(靈穴寺古記錄)

영암당출세비(靈岩堂出世碑)

영암당묘잠선사(靈庵堂妙岑禪師)는 관동지방 양양의 정암리에서 김신용(金信龍)의 막내아들로 13세에 출가하여 설악산 영혈사에 들어와 성률장로(性律長老)의 수제자가 되었다.

제오세(第五世) 관암당설우(寬庵堂雪佑)로부터 청허(淸虛)하게 법을 받았다. 소시에 어렵게 지내었으나, 막바지 가는 길에 이르러 성공한 자이다. 지황의 은혜를 잊어가며 이 땅에 여러 번 절터를 이룬 흔적이 있으니 돌에 구멍을 뚫어 물에 띄우리만치 수고하시고, 실로 홀로 힘쓰셨으니, 흠이 부처를 뵈 수 있는 신인(信人)이었다. 그는 재물로도 베풀었으니 그 공을 말하면 삼세숙세(三世宿世)의 인연이라. 조금도 흠 없는 숙녀 같이 깨끗한 덕행이었고, 성정(性情)이 남과 달라 마음씨 부드럽고 지나치지 않음을 평생 업으로 삼았으니, 별로 기특하지 않다하나, 아미타불(阿彌陀佛) 부르는 소리 그치지 않았으며, 두해(二秋)이어 풍년든 가을날에 이승을 뜨려는 멸도(滅度)가 보이드니, 삼일 만에 입적하셨다.

바야흐로 열반성체를 법에 따라 설치하니, 홀연히 서풍(大風)이 크게 일어 모두가 괴이하게 여겼는데, 그 날 저녁에 이르러 서기(瑞氣)가 하늘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빛(祥光)이 불멸하니, 오로지 모인 군중이 성체를 받들어 드리며, 정골사리(頂骨舍利) 일과가 초연히 서쪽 십여 걸음에 있어, 찾아가서 거두어 석탑에 봉안하였다. 분명하게 보노라 후인(後人)이 만만세(萬萬歲) 밝히려니, 이같이 그 공적 본받음은 이에 틀림이 없도다. 반야(般若)를 모두 이루고 가셨네. 숙연히 이룬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언덕이여!

서기 1760년 정월 일 세움.

명곡산인등운진일서(明谷山人騰雲震一書)

제자비구숙현 의정(弟子比丘淑賢 義淨)

손제 취문 시은 청숙(孫弟 就文 始崑 淸淑)

각자홍구삼(刻字洪九三)

양양부설산영혈사시주기(襄陽府雪山靈穴寺施主記)

힘써 공을 세우고 덕을 널리 퍼신 이는 잊지 않고 보은하는 땅에 반드시 베푸신 예전 나의 여래보살이시다. 만겁 널리 거두시고 미혹한 나무를 건너, 이제 이절에 이른, 즉 원효대사께서 굴에서 거처하시며 가까이 당겨 오시어 헌(軒)에서 물러나시며 장삼의 자취를 남기셨는데, 터(邱墟)에 몇 번 이룬, 지화도윤(智和道允) 두 승려가 있어 크게 함께 발원하니, 수삼(數三)의 승려와 더불어 부지런히 산을 내려와 널리 시주를 사뢰니, 시주를 하여 좋은 인연을 맺은 선남선녀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 편히 수(壽)를 누리고 편안히 살아가면서 현납하며 발원하니, 한가지로 청동(靑銅)을 시주하고 한가지로 공량(供糧)을 드리니, 이 두 가지(小雅大雅) 고상하였다. 어찌 전겁(前劫)에서 이룬 결과 아니겠으며, 진실은 이런 것인가? 금년 거듭 고쳐 잇고 으리으리하게 새로 고치었으니, 절간은 중후하게 미려하고 법의 원천(法源)이 운이 나고 아름답도다. 불교의 법계증서로서 빼어나게 무성한 공경의 동산에 함께 시주(단나=檀那)하니, 잊지 않는 보은의 공에 귀의함에 응함이 있어 무량한 복 받은 땅이려니.

세재적승황호일(歲在赤承黃虎日) 산인지화 씬(山人智和識)

영혈사산신당중건기(靈穴寺山神當重建記)

설악의 산기슭에 영천(靈泉)이 솟는데 그 아래 고찰(古刹)은, 즉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이다. 옛 당이 있어 산신령에 제사하고 항상 바람으로 인하여 나무가 꺾임을 경계하나, 힘에 겨워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였으나, 위대하신 부처님이 계시니 모두가 시주를 모았다. 명복을 얻으려고 무턱대고 부처에게 절을 하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니, 산가(山家)의 멸망한 옛일이 슬퍼서 새로이 재화를 이루어 원효대사의 옛 자취를 바라보면서 이로부터 돌이 부서지지 않으리. 아! 집을 허물고 지으니, 역시 보은의 불자는 윤회의 운명이려나. 뒤에 의지 있는 자들이 동참하니, 마음 깊이 후사를 이어가네, 이어감을 새겼다. 이어감을 새기면서 이르니.

높이 솟은 설악산의 신령님, 예부터 장생하셨다.
 집도 아니고 후미도 아닌데, 오로지 당이 있었다.
 무너져 새로이 다시 고치고, 사람들은 숭봉하노라.
 중생들은 크나큰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 뵈온다.
 보천의 운수를 깨닫고 나서, 오로지 천만년 이어 가리.

서기1881년 4월(歲辛巳四月) 김중욱 씬(金重昱記)

설악산영혈사단하각중건기(雪嶽山靈穴寺丹霞閣重建記)

이 절을 이르되, 신령님의 이름을 가지셨다. 산 아래 영천(靈泉)이 솟고 신령 또한 영험하다. 옛날에 신령스런 사당을 숭배하며 받들었다. 해가 오래되어 혈이 무너지니, 곧 신사(辛巳)에 이르러 현산(峴山)의 김익(金益)이 재화를 기부하여 중수(重修)하였다. 가까이 당겨 와서 절 모양이 시들어 쇠잔하고 산각(山閣) 역시 혈이 무너졌다. 즐겨 찾는 무리 없어 탄식하니 산은 험고 돌도 슬퍼하고 새도 울고 원숭이도 울었다. 숭상하니 풍년들어 경자(庚子)년 4월에 마침 땀나무도 근심인데 이 당(堂)에 삼가 정성으로 비바람이 어려움을 감쌌을 보니 어찌 애애한 감이 없겠는가. 중간을 따라보며 새 터를 고쳐 잡고서 재화 기와 목재 석재 등을 한데 모아 거의 갖추고 음력 시월 초에 집일을 시작하여 그름에 이르러 끝냄을 고하니, 옛것을 버리고 일신하게 되어 근엄한 그림 같은 모양이 되고 가히 모두 의지하니 샘터 위에 넓고 으리으리한 단하각(丹霞閣)이 높이 솟았다. 아! 나의 후손들이 선인의 업적을 크게 흠모하리니, 후사가 이어져 영구히 전하리다. 이어감을 새겼다. 이어감을 새기면서 이르니.

바야흐로 설악의 진터에, 절의 유업이 장존하네.

하늘이 무너짐을 막고서, 아름답게 엮으니 오로지 빛나네.

기운것을 고쳐 정돈하니, 어느 사람이 출세하나.

욕이 되는 것을 참고서 몇 데로 행하니,

사랑하고 존경함을 보고 듣노라.

조용히 듣는 하늘이 화복을 내리니, 이에 만년을 누리리.

경자년 시월(庚子十月) 김우경 삼가 씀(金禹卿謹識)

칠성계기(七星契記)

이산의 이름이 영혈과 어찌 다른가? 신라의 원효선사께서 창건한 이절에 예전에 매우 큰 칠성각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남아 허물어졌으며 그렇게 두 서너번 세우고 폐하기도 하였다. 저 칠성은 하늘을 다스리는 북두칠성이다. 하늘의 운기(雲氣)로 사시(四時) 운행하면서 북두칠성은 함께 어울려 빛을 어두운 이 땅을 비추니 모든 중생은 은택이 이로우며 밝은 저 북성(福星)은 신령한 영구(靈區)를 날마다 보살피시니 고을 사람들이 복을 비는 바, 이 땅에 앞을 다투어 종종걸음으로 달려들 온다. 해는 무술(戊戌)년 3월 승려 보훈(普訓)이 대단히 슬펐던 옛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알리니, 이 소리에 응하여 계(契)에 참여하는 사람이 28명이 되었다. 북두칠성이 있는 곳에 못별이 선회하는 이치를 알고 각기 한 푼씩 돈을 내어 6년간 늘려서, 삼방(三方)의 발을 사들여 공량미의

밑천으로 삼았다. 하나의 작은 산신각을 다스림에 즈음하여 고적(古蹟)을 승계함에 일동의 중의를 높이 세워 받아들여 법당 서편 현(軒)을 기복소(祈福所)로 하기로 뜻을 살피 영구히 취하고 법식과 세목을 두(二)권의 책에 상세히 기록하여 한 권은 절의 주자에게 주고, 한 권은 계수가 간직하여 오래오래 비치하기로 참가한 모두가 동의하고 좌(左)에 열명(列名)했다. 자손 후세(後世)에 흥취를 느껴보며 끝까지 정성껏 공경하면 많은 복을 영원히 받으리라.

서기1904년 3월 상한(光武八年甲辰三月上澣)

진사 황석만 늘그막에 씀(黃進士錫萬滄叟記)

영혈사중수기(靈穴寺重修記)

경과를 이르노라. 한결 같은 마음은 진실로 선하였다. 이 자리에 당장 성불(成佛)하고 부처를 모시는 절을 세우니 일찍이 진실하게 한 것이다. 이 일은 선남선녀의 누적된 적선을 베푼 것이며 대자대비의 크나큰 시주로서 팔만사천무량대겁(八萬四千無量大劫)을 닦고 이룬 곧 불(佛)을 이루어 가히 바로 세워본 것이다. 군(郡)이 다스리는 서쪽 설악의 동쪽에 영혈사가 있으니, 즉 삼한(三韓)의 고찰(古刹)으로써 군내 네 개의 사찰 중에 하나이다. 절 서쪽에 한눈(一眼)과 다름없는 샘이 솟으니 병자를 소생시키고 우환을 고치는 유명한 절로 어찌 존송하지 아니한가? 이곳에 올라서 조망(眺望)하니 아름답기 그지없다. 쓸 때 없는 거짓이 아니로다. 해가 오래되어 기울고 무너지고 잡목 숲이 우거진 곳, 벌레와 뱀이 우글거리는 곳, 방자하리만치 탄식하는 자도 없는데 우리 군은 밝은 해(明年)에 이르러 시주하기를 청하는 권선문을 한번 널리 펴 이루고 선남선녀로 하여금 힘 있는 데로 시주하고 재물을 모을 방침을 세워 이 고을 사람 김우경(金禹卿)으로 하여금 이 역사를 감독하게 하니, 몇 개월 지나 아주 새롭게 절간을 손질하고 지붕을 새로 고쳐 이고 기운 것을 버티고, 비뚤 것은 가지런히 하고, 도끼와 쟁기로 찍고 다듬어서 누전(樓殿)의 면모를 일신 시켰다. 향인(鄉人)을 부르니 즐거워하며, 잔을 들고 축하하기를 남산은 드높고 북두칠성은 밝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천자는 억만년 사시고 제 올려 풍년들고 백성은 재해 없도록 요를 깔고 사망에 전(奠)을 올렸네. 그런즉 부처님의 공덕, 막중 막대하니, 김우경(金禹卿)씨의 자비로운 시주의 공은 아득하게 크도다. 이 고을 태수(太守)님의 역량은 어떠했나? 선(善)을 분별하여 항상 생각하며 공경하고자 함이로다.

서기1905년 2월 일(光武九年乙巳二月日)

지군 김흥기 삼가 씀(知郡金興基謹識)

漢詩 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 동 창

1. 漢詩에 入門하면서

2009년 기축 년 여름은 삼복지경인데도 날씨는 선선하고 긴 장마가 끝날 줄 모르고 지질 거려 해수욕이나 피서가 식어가고 있는 때에 매미소리가 시름을 달래주는 듯하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한시 반에서 여름방학 숙제로 청선(聽蟬)이란 시제를 주었다.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할 일 없이 소일하고 있을 때 친지의 권유로 문화학교에서 한문서예, 사군자(한국화), 한시 반 수강생이 된지 어언 6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2003년 7월에 한시에 입문하여 그 인연으로 2006년 양양문화원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한문서예와 사군자(한국화)도 매우 소중한 과목이긴 하지만 계속할 수가 없었고 한시만은 한문공부도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하고 있다.

처음 한시를 배울 때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신 華庭 李時行 당시 한시 반 선생님께서 늘 격려를 하시면서 “늦게나마 한시에 입문한 것은 참으로 잘 한일이다. 그러나 한시가 어렵다고 절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배우면 그렇게 어려운 학문만은 아니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시었으며 직접 친필로 서신을 보내주셔서 격려를 하여 주시곤 하셨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시간만 보내며 지내왔으나 문득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으로 아침저녁 창작에 임하여 보니 시간은 많이 걸리나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겨서 더욱 열심히 作詩를 해 보게 되었다.

이제는 서툴지만 스스로 선생님의 도움 없이 自作詩를 지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여름방학 숙제인 청선을 창작하기 위해 매미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매미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매미는 알에서 굼벵이가 되어 땅속에서 5년 내지 7년 동안 지내다가 여름이 되면 껍질을 벗고 세상에 나와 나무에 매달려 노래를 부르다가 한 달 여의 짧은 생을 마치는 아주 참을성이 많고 소탈한 곤충이다.

이솝우화에 보면 매미와 베짚이는 개미나 나비 등 많은 곤충과 동물들이 열심히 일하여 먹을 것을 비축하는데 이들은 이슬만 먹으며 일생을 노래만 부르다가 생을 마감하니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作詩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맹목적으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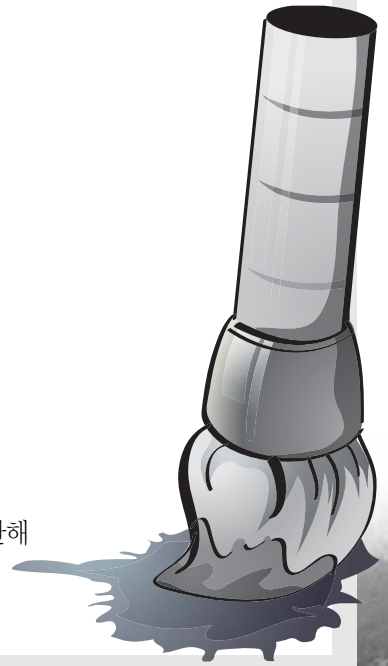
인고의 세월을 지나 어렵게 세상에 나왔는데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고 생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덤고 긴 여름 곡식은 여물지 않고 먹을 것도 없이 일은 해야 하고 지금은 없어 졌지만 보릿고개를 이겨내야 하는 고달픈 농촌사람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어 주고, 매미소리를 듣다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모든 시름을 다 잊게 해주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작시해 보았다.

聽 蟬

聽蟬夏錢已秋明	매미소리에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니
漢水滄茫碧落清	남대천은 푸르고 하늘은 맑도다.
忍苦多年過脫殼	인고의 많은 해를 보내고 허물을 벗었는데
須搖短日止終生	잠시 머물다 짧은 생을 마치는 구나.
黃蜂役事奔忙碌	벌은 분주히 일하는데
蟋蟀歡游冷笑聲	귀뚜라미처럼 즐기만 한다고 비웃네.
緣故貧窮民快樂	그러나 빈궁한 백성을 즐겁게 하고
憂愁解脫慾心淸	근심 걱정 다 없애려는 마음뿐이리라.

* 양양남대천을 한수(漢水)라고도 부른다. 碧落은 하늘의 이칭이다.

만족한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한시반의 又泉 李鍾淵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교정해 주셔서 용기가 생겼다.



앞으로 깊이 공부 할수록 더 어려워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한시는 단지 한문이나 시 공부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인물 전설에 대해서 폭넓게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학문인 것 같아 친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

2. 漢詩란 무엇인가 ?

내가 한시 반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한시교재와 각종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漢詩를 이해하려면 漢字와 中國의 歷史와 文化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시는 중국 당나라 이전에 성행한 古體詩와 당나라 시대부터 왕성하게 중세를 풍미하던 한시의 대표적
인 시체인 近體詩가 있는데, 古體詩는 詩經, 楚辭, 古詩, 樂府로 分類되고 비교적 그 작법의 제약이 없으며
5언, 7언 古詩가 있고 雜言體(3언 4언 6언)가 있다.

仄仄이 엄격하지 않고 押韻이 자유로워서 換韻이나 通韻이 가능한데 반하여 近體詩는 엄격한 작법 밑에
서 지어지는 것으로 발생 계기는 수나라에서 시작된 관리의 임용 제도인 科擧制度의 人才 선발과정에서 詩
作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소 인위적인 定型性을 가미한 것으로 인해 기인했다는 학설이 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사리를 살피며 무리와 어울리고 원망하게 해준다. 가까이로
는 어버이를, 멀리로는 임금을 섬기게 하며 날짐승, 들짐승, 풀,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 준다.”고 하였
다.

近體詩의 형식에는 絕句와 律詩 排律이 있는데 絕句는 5언 절구와 7언 절구가 있고 한 구절의 글자가 다
섯 글자이면 5언 절구이고 일곱 글자이면 7언 절구이다.

律詩도 5언 율시와 7언 율시가 있는데 율격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시를 율시라고 하며 율시는 구절수
가 8구절로 이루어진 시를 말한다.

絕句란 기본적인 율시를 반으로 자른 4구절의 시를 말하며

五言絕句는 글자 수가 20자이고 七言絕句는 글자 수가 28자이다.

五言律詩는 글자 수가 40자이고 七言律詩는 글자 수가 56자이다.



排律은 絶句 律詩 이외의 한시로서 律詩의 배로 나가는 한시로서 10구절이상 16구절 32구절 64구절 ... 이 있다고 한다.

近體詩의 特徵으로는

平仄法으로 한자의 중국 발음상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의 4성으로 발음하는데 평성은 높낮이가 없는 평범한 발음이고 측성은 상성·거성·입성으로 발음이 높거나 거친 발음의 한자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第1聲, 第2聲, 第3聲, 第4聲이라하고 1성이 평성이다.

다음은 押韻法으로 한시가 韻文이라는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押韻法이다. 시에 운을 단다는 표현대로 압운법은 특정 운자를 맞추어서 시를 지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짝수구절의 마지막 글자들을 동일한 운을 가진 글자들로 배열하는 것이다. 동일한 운이라는 것은 글자의 발음에서 초성을 뺀 중성과 종성이 같은 글자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별첨# 1 韻字表 參照>

다음으로 對偶法인데 對偶法은 보통 對仗, 對句法이라고도 하는데 시상의 흐름을 위해 律詩에서 셋째 넷째 구절이 대구를 이루고 다섯째 구절과 여섯째 구절도 대구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漢詩 律에 나타나는 수사법의 하나로서 상하의 구가 서로 짝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의 종류를 논하여 처음으로 체계화 한 사람이 유협(劉勰)으로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논하였다고 한다.

對偶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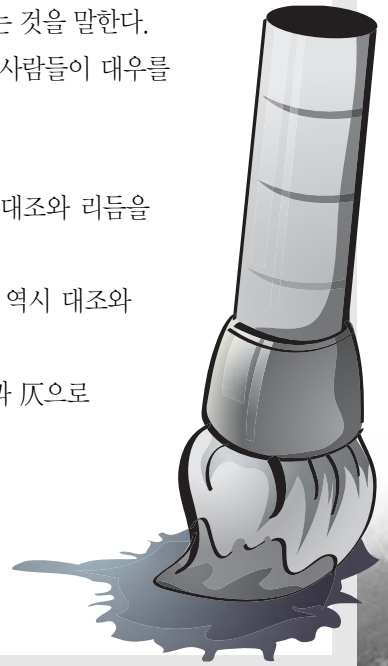
字意相稱法으로 글자가 나타내는 字意로 짝을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의미의 대조와 리듬을 추구한다.

다음 字性相應法으로 글자의 品詞가 같은 것끼리 짝을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역시 대조와 리듬을 추구한다.

다음은 平仄相法으로 연을 이루는 두셋구의 상하구가 서로 반대가 되는 平과 仄으로 짝을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소리의 조화를 구한다.

이외에 대우구의 조건으로

구의 자수가 같고



용어법의 구성이 같아야 하고
어의도 대우로 같아야 한다.

物體는 物體對로, 數字는 數字對로, 動詞는 動詞對로, 名詞는 名詞對로, 非物體는 非物體對로, 氣候는 氣候對로, 人物은 人物對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히 주의 할 것은 아무거나 대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설정된 詩題에 적합한 단어를 모아서 대로 해야 되고 용어도 그 시제에 맞추어서 대가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 것은 한시가 단순한 문학작품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노래로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시의 妙味가 더욱 깊다고 보겠다.

漢詩의 作法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을 살려서 일반적으로 起承轉結의 흐름을 지닌다.

起句는 자연적인 배경으로 시상을 일으키고,

第一句로 서론이라 생각하고 이어간다. 시제가 들어감이 무난함. 시제에 의해 작시할 출발점이니 시제를 넣어 작시하는 방법이 초심자에게 무난하다.

承句는 그것을 이어 받아 전개하고,

第二句(景句)로서 일구에서 출발한 의사표현을 계속 발전시키는 역할을 가진다.

轉句는 다시 작자의 감정으로 전환해서 표현한다,

第三句(情句)로서 위의 1,2구를 계승치 않고 별다른 표현으로 변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의미는 시제와 관계되어야 한다.

結句로 결론을 맺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第四句로서 결론이라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

시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결말 짓는다.

물론 모든 한시가 이러한 구조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상의 전개는 기구와 승구에서 자연적 배경에 대한 敍景性을 주로 담고, 전구와 결구는 작자의 감정에 대한 抒情性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起承轉結의 용어는 絕句에 사용하고 律詩에는 두 구 절 씩을 首聯 頷聯 頸聯 尾聯으로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首聯(1.2구) 자연의 절경이나 주위의 사실 등으로 시상을 일으키는 단계

頷聯(2.3구) 발전단계로 위에서 일으킨 시상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고 확대시킨다. 首聯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넓힘.

* 수련과 함련은 敍景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표현함.

頸聯(5.6구) 수련과 함련과는 다른 듯한 시상으로 전환한다. 의미는 시제와 관계되어야 하며 함련을 계승치 않고 별다른 문구로 돌려준다.

尾聯(7.8구) 총괄단계, 주제를 담아 시상을 마무리 한다. 애정이 있고 실감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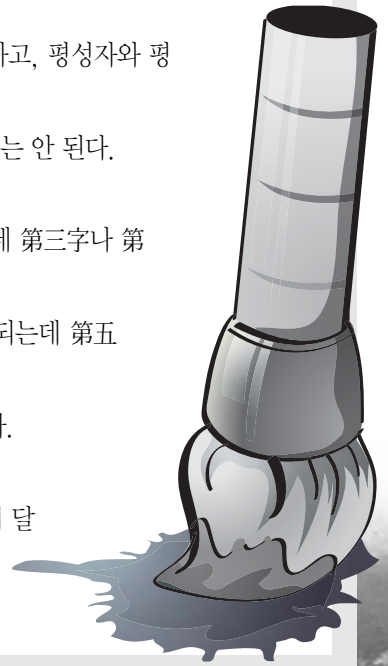
* 경련과 미련은 抒情의 주관적인 감상이나 정서를 표현함.

漢詩의 法則에는 平起式과 仄起式이 있다. <별표# 2 平仄法 參照>

첫구의 둘째자가 평성이면 평기식이고, 측성이면 측기식이다.

한시에는 일정한 法則이 있는 반면 엄격한 犯則法이 있다.

- 孤平 孤仄 : 측성자와 측성자 사이에 평성자가 있는 것을 고평이라 하고, 평성자와 평성자 사이에 측성자가 있는 것을 고측이라 한다.
- 칠언시에는 절구나 율시가 韻行마다 第四番 자가 고평 고측이 되어서는 안 된다.
- 下三連 犯則 : 구의 아래 세자가 높거나 세자가 낮으면 안 된다.
- 蜂腰 : 상 삼자가 측이고 하 삼자가 측이고 가운데가 평이면 안되는데 第三字나 第五字를 낮추면 무관하다.
- 鶴膝 : 상삼자가 평이고 하삼자가 또 평일때 가운데 자가 측이면 안되는데 第五字를 높이면 무관하다.
- 犯題 : 詩題가 5자 이하 일 때 承句나 轉句(頸聯)에 配置되면 犯則이다. 5자 이상의 긴 詩題는 犯則 적용이 안 된다.
- 二四不同과 二六同의 原則 : 각 구의 두 번째 자와 네 번째 자의 韻이 달라야 하고, 두 번째 자와 여섯 번째 자는 韻이 같아야 한다. 이외에도 犯則의 規勑이 많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하고자 한다.



3. 우리나라의 한시 이야기

우리나라에 現存하는 最古의 漢詩로는 AD 612년의 고구려 공양왕때 乙支文德 將軍의 “與隋將于仲文” 詩가 널리 알려졌다.

隋나라 將帥 于仲文이 백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 왔을 때 고구려 군사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음을 알고 乙支文德 將軍이 시를 지어 보냄으로서 于仲文이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는 名詩이다.

三國史記(44권)의 기록을 요약하면 隋나라 대군이 요동성을 침공하려 하였으나 乙支文德 將軍이 지키고 있어 침공하지 못하고 기동대를 조직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시도하자 乙支文德 將軍이 유인책으로 거짓 항복을 하고 적진으로 들어가 염탐 한 후 탈출하면서 于仲文에게 보낸 詩로서 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與隋將于仲文

神策究天文,	鬼神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妙算窮地理.	奇妙한 꾀는 땅의 이치를 통달했도다.
戰勝功既高,	싸움마다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	滿足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시는 乙支文德 將軍의 기백과 자신감이 넘치는 시로서 우중문의 계책을 찬양하는 듯 하면서 야유하고 적의 무퇴함을 경고하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라고 권유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내용이다.

이 싸움에서 결국 적군은 거의 전멸했고 겨우 2,3천명만이 목숨을 건져 달아났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다.

그 후 한시는 高麗時代 前期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朴寅亮, 金富軾, 鄭知常이 있는데 귀족적 여유에서 나



은 豊厚한 특징을 가졌다.

高麗 中期 무신집권 시대는 구 귀족 세력의 후세인 李仁老, 林椿을 위시한 竹林高會의 신진 선비를 대표하는 李奎報와 대조적인 시세계로 나뉘었다고 한다.

高麗 後期는 慧謙, 景閑, 普愚 등의 僧侶의 禪詩는 인생의 의미와 자연에 대한 관조의 시작 활동과 성리학의 수용을 지향하는 신진 사대부 층의 李齊賢, 李崇仁, 鄭夢周, 李穡 등이 새로운 문화적 의욕에서 시세계를 보여 주었다.

朝鮮時代에는 前期에 사대부 층의 다양한 시세계를 보여주는데 勳舊官僚系의 徐居正, 姜希孟, 成俱 등이 작품세계를 넓히는 반면 方外人界의 金時習, 金宗直 등이 조선시단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 외 “士林派詩人”의 徐敬德, 李彦迪, 李滉, 李珣 등과 “三唐詩人”으로 白光勳, 崔慶昌, 李達, 林悌, 許筠이 있고, “女流詩人”으로 黃眞伊, 李梅窓, 李玉峰, 申師任堂, 許蘭雪軒 등이 있으며, “民族主體詩人”으로 朴趾源, 丁若鏞, 申光洙, 朴齊家 등 훌륭한 시인들이 많으나 이만 줄이고자 한다.

4. 沕溜柱와 漢詩 이야기

襄州誌의 전설편에 沕溜柱가 생긴 유래를 보면 沕溜柱는 襄陽郡 降峴面 沕溜里에 있으며 조선조 肅宗時 尤庵 宋時烈 선생이 咸鏡道 德源配所로부터 南下中 此地에서 홍수로 越川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 동리 鄭笠이라는 사람의 집에 滯在하게 되었다.

우연히 기둥에 부친 詩句를 보니 下句가 거꾸로 붙어 있으므로 尤庵 선생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주인에게 그 내용을 물은 즉 주인 대답이 작년 금일(5월 5일)에 어떤 과객이 저 기둥(沕溜柱)에 이 글을 써 붙이면서 “明年 今일에 어떤 손님이 지나가다 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과연 선생께서 이 句를 읽게 되니 其豫知感에 주인은 嘆服하여 그 詩句를 써 붙인 기둥을 洞名과 더불어 沕溜柱라 하고 碩賢 尤庵 선생 滯留를 기념하였다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詩句는

三傳市虎人皆信, 一綴裙蜂父亦疑. 世上功名看木雁, 座中談笑慎桑龜. 이며 作詩의 주인공은 後世까지 未知이나 선생만은 짐작하였으리라 믿어진다.

襄州邑誌의 勿淄柱詩를 소개하면

[尤菴宋文正公時烈在肅廟丁巳自德源謫所量移驛路過本府阻水勿淄民村 民之屋柱有人書一絕句曰 三傳市虎人皆信, 一綴裙蜂父亦疑. 世上功名 看木雁, 座中言語慎桑龜. 上句順書之下句倒書之客語主人曰明年此日余 當重來云翌年是日尤菴適來事甚奇異矣舟渡漢水水勢方漲舟失纜楫幾至 海口秀再. 卽先生弟時默恐懼失色 尤菴獨夷襟正坐未幾到泊彼岸幸卒無事並見本集]

* 양주지와 양주읍지의 내용 중 尤庵이 “南下中”이란 문구가 상이하고 한자가 다른 字가 있는데 뜻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勿字와 勿, 庵字와 菴, 配所와 謫所, 綴字와 掇, 談笑와 言語〉

문화원 전 이사이신 文東在 씨와 공무원 선배인 물치리 李惠雨 씨의 말씀에 의하면

勿淄柱의 전설은 宋江 鄭澈이 江原觀察使로 있을 때 이곳을 순시하게 되었는데 雙川이 장마로 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게 되자 勿淄里 鄭笠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게 되었는지라 그 집 기둥에 7언시를 써붙이고 갔는데(5월 5일) 말구를 한자 비워두고 가면서 明年今日에 손님이 지나가다 이 글귀를 볼 것이다.

그 후 조선조 肅宗時 于庵 宋時烈 선생이 함경도 덕원配所로부터 量移下中 차지에서 홍수로 월천하지 못하여 역시 鄭笠의 집에서 체재하게 되었다.

우연히 기둥의 시귀를 보니 한 자가 없는지라 삼갈 慎자를 넣어 완성했다고 한다.

“송강 정철이 의암 송시열을 충고하는 글인 듯하다.”고 전해주셨다.

이시는 작자 미상설과 송강 정철이 의암 송시열을 충고하려고 쓴 시라고 하는 설과 영의정 李山海 (울진 군 기성면 황보리)가 썼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物溜柱 詩의 내용을 살펴보면

三傳市虎人皆信 시내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말을 세 번 전해들은 사람은 그 말을 모두 믿는다.
 一綴裙蜂父亦疑 이들이 계모의 계략에 속아 속옷에 든 벌때를 쫓고자 계모의 속옷을 털으니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가 의심한다.
 世上功名看木雁 나라에 공명을 세우는 것은 木雁(굽은 나무)에서도 본다.
 座中談笑慎桑龜 좌중의 담소라도 거북이가 자기를 삶아 죽이기 위해서는 뽕나무 불로 삶아야 된다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죽었다.(談笑 대신 言語를 넣으면 좌중에서도 삼가야 할 말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 시귀를 意譯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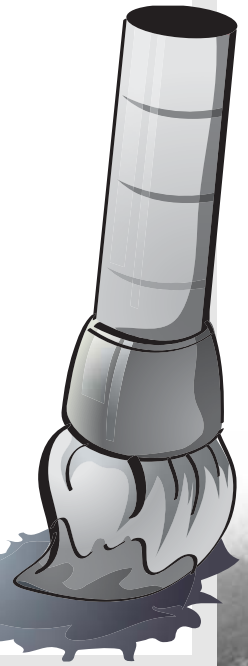
三傳市虎人皆信 虛荒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살아야 하며
 一綴裙蜂父亦疑 處世에서 眩惑됨이 없이 살아야 한다.
 世上功名看木雁 제만 잘난 체 하지 말고
 座中談笑慎桑龜 座中 담소라도 신중해야 한다.

위의 시구중

- 三傳은 孔子가 저술한 춘추의 세 가지 解說書(左氏傳, 公羊傳, 穀梁傳)를 말하며
- 裙蜂은 치마속의 벌 때를
- 木雁은 나무로 만든 기러기 즉 구부러진 나무를 말하는데
- 市虎는 근거없는 풍설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믿게된다는 뜻으로서 三人成虎라는 四字成語에서 유래하는데 다음과 같은 고사가 韓非子 內儲說 戰國策 魏策 惠王編에 전해지고 있다.

中國 春秋戰國時代 魏나라(BC770~221) 惠王때 일어난 일이다.

魏나라의 太子가 趙나라(BC475~221)에 인질로 가게 되자 惠王은 太子의 수행원



으로 忠臣 龐蔥을 따라가게 하였다.

龐蔥은 조나라 수도인 한단(邯鄲:중국허베이성 남부에 있는 도시)으로 떠나기 전에 왕을 알현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龐恭與太子質於邯鄲, 謂魏王曰: “今一人言市有虎, 王信之乎?”

曰: “不信” “二人言市有虎, 王信之乎?”

曰: “不信” “三人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

龐恭曰: “夫市之無虎也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今邯鄲之去魏也遠於市, 議臣者過於三人, 願王察之.”

龐恭從邯鄲反, 竟不得見.

“지금 한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조금 후 또 한사람이 와서)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믿지 않겠다.”

“그러면 세 사람이(뒤이어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자 반공이 말했다.

“시장에 호랑이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한단은 그 거리가 위나라의 시장보다 훨씬 먼 곳에 있고 또한 제가 없는 동안 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가 많을 것인데 그 숫자가 어찌 세 사람 뿐이겠습니까? 왕께서는 이점을 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훗날 방공이 한탄에서 귀국해 보니 왕을 배알 할 수 없었다.
(위나라 땅을 밟지 못하였다고도 함.)

5. 朴文秀의 과거 시험에 얽힌 한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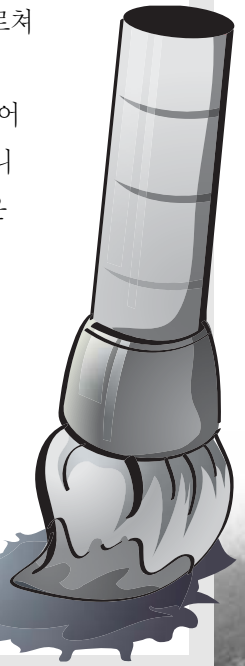
박문수에 관한 문헌 설화는 박문수의 중매 담, 박문수와 물 걷는 여종, 박문수의 登科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과거에 응시해 등과했다는 설화는 문헌과 구전으로 동시에 전해지고 있다.

“청구야담”에 의하면 “글을 전혀 못하는 박문수가 남의 글을 훔쳐 급제했다”는 것으로 전해진 문헌 설화는 “간부에게 살해당한 혼령이 원수를 갚기위해 초립동으로 환신해서 또는 결혼 첫날밤에 간부에게 살해당한 아들의 원한을 풀어 달라는 노인의 혼령이 꿈에 나타나 과거 시제의 글귀를 가르쳐 주었다”는 구전설화와 비교된다.

박문수가 과거보러 가는 도중에 과천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어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다가와 “어디로 가는 길이나” 고 묻자 “과거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백발노인이 말하기를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봤나 과거 시험은 이미 이틀 전에 끝났어”라고 말하자 꿈속에서도 소스라치게 놀라 되 물었다. “그럼 詩題가 무엇이었나요” 노인이 대답하기를 “시제는 [落照]라고 하는데 금년 장원에 뽑힌 글은 다음과 같은데 落照吐紅掛碧山, 寒鴉尺盡白雲間. 問津行客鞭應急, 尋寺歸僧杖不閑. 放牧園中牛帶影, 望夫台上妾低鬢. 蒼烟枯木溪南里, 인데 끝구절을 잊었다”고 하면서 7言 絕句로 된 총 56자 중 끝 구절 7자만 제외한 나머지 시를 읊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3일 앞둔 과거 시험날짜에 맞춰 과장에 들어서 시제를 확인하니 백발노인이 현몽해준 대로 [落照]가 아닌가 박문수는 노인이 꿈속에서 읊어준 7구절의 글을 쓰고 마지막 구가 떠오르지 않아 애를 태우다 끝 구절 短髮樵



童吹笛還 7자를 만들어 詩作을 완성하여 제출했다.

이 글로 試官들 사이에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귀신의 글이다. 끝구만 人作이다”라는 등의 시비가 있었으나 결국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고 한다.

급제하고 어사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과천에 들러 범인을 잡고 연못에 암매장된 노인의 아들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구전설화이다.

이는 박문수의 詩才가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풍자한 설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壯元詩를 감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落 照

落照吐紅掛碧山,	떨어지는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고
寒鴉尺盡白雲間.	갈 까마귀 때지어 흰 구름 헤쳐 나가네.
問津行客鞭應急,	나루터 묻는 나그네는 말채찍 질이 급하고
尋寺歸僧杖不閑.	절을 찾아 돌아가는 중의 지팡이는 바쁘기만 하다.
放牧園中牛帶影,	동산에 방목한 소 때들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望夫台上妾低鬢.	지아비를 기다리는 대위 첩의 머리 쪽이 낮아지네.
蒼烟枯木溪南里,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개울가 마을에는
短髮樵童吹笛還.	단발머리 초동들이 피리 불며 돌아온다.

6. 맺는 이야기

지금 소개한 한시 이야기는 자작시를 포함하여 4수를 소개하였으니 이는 수많은 한시 이야기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시에 대한 개념과 작법을 간단히 紹介하였지만 한시에 대한 배움이 일천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앞으로 소개하고 싶은 한시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남이장군의 호기시와 신사임당의 사친, 김삿갓의 풍자시, 황진이와 서화답에 얽힌시, 성삼문의 受刑時 詩, 정지상의 송인 등이 있다.

한시를 통해서 사물을 새롭게 관조하고 역사와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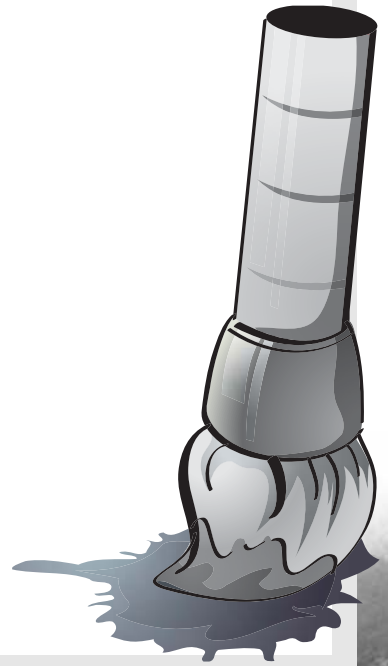
많은 분들이 한시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히 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한시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윤리와 도덕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한시인구는 약 2,000 여명 된다고 하며

서울에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가 있으며 각 시도에도 한시협회가 있다. 우리군도 한시회원과 동호인을 망라하여 100 여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한시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한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게 된다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 참고자료 襄州誌 : 1991년도 양양군 발간
- 漢詩入門 : 양양문화원 부설 한시교실 刊
- 漢詩入門 : 李東種 편 保景文化社 刊
- EBS방송강의 교재 : 고전문학(문민수)
- OUN방송강의 교재 : 중어중문학과
- (인터넷 오세주 한시감상실)
- 詩經 : 尹永春 譯解 韓國教育出版社
- 한시란 무엇인가 : (사)한국서예작가협회
- 풍수지리 명당이야기



별첨# 1

韻字表

平聲系統의 代表格의 韻字(30字)

上平聲：東冬江支微魚虞齊佳灰真文元寒刪

下平聲：先蕭肴豪歌麻陽庚青蒸尤侵覃鹽咸

上聲系統의 代表格의 韻字(29字)

董腫講紙尾語慶薺蟹賄軫吻阮旱潛

銑篠巧皓駮馬養梗迥有寢感琰賺

去聲系統의 代表格의 韻字(30字)

送宋絳寘未御遇霽泰卦隊震問願翰

練霰嘯效號箇禡漾敬徑宥沁勸豔陷

入聲系統의 代表格의 韻字(17字)

屋沃覺質物月曷黠宵藥陌錫職緝合葉洽



별첨# 2

平 仄 表

平起式 : 첫 행의 둘째 글자가 平聲의 境遇

●五言絶句

- 平平仄仄平(韻) 起
- 仄仄仄平平(韻) 承
- 仄仄平平仄 轉
- 平平仄仄平(韻) 結

●七言絶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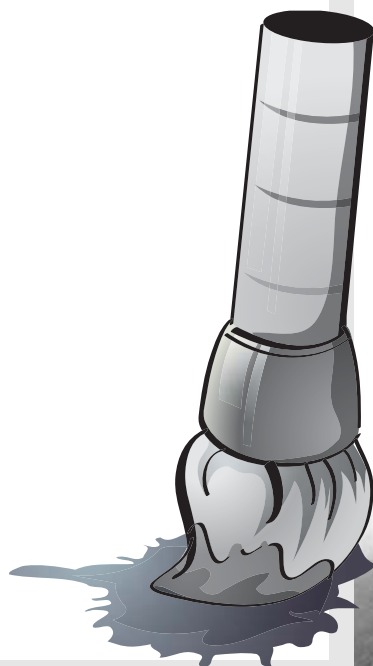
- 平平仄仄仄平平(韻) 起
- 仄仄平平仄仄平(韻) 承
- 仄仄平平平仄仄 轉
- 平平仄仄仄平平(韻) 結

●五言律詩

- 平平平仄仄 頷首聯
- 仄仄仄平平(韻)
- 仄仄平平仄 聯
- 平平仄仄平(韻)
- 平平平仄仄 頸聯
- 仄仄仄平平(韻)
- 仄仄平平仄 尾聯
- 平平仄仄平(韻)

●七言律詩

- 平平仄仄仄平平(韻) 首聯
- 仄仄平平仄仄平(韻)



仄仄平平仄仄仄 頷聯
平平仄仄仄平平(韻)
平平仄仄平平仄 頸聯
仄仄平平仄仄平(韻)
仄仄平平仄仄仄 尾聯
平平仄仄仄平平(韻)

仄起式 : 첫 행의 둘째 글자가 仄聲의 境遇

●五言絕句

仄仄平平仄 起
平平仄仄平(韻) 承
平平平仄仄 轉
仄仄仄平平(韻) 結

●七言絕句

仄仄平平仄仄平(韻) 起
平平仄仄仄平平(韻) 承
平平仄仄平平仄 轉
仄仄平平仄仄平(韻) 結

●五言律詩

仄仄平平仄 首聯
平平仄仄平(韻)
平平平仄仄 頷聯
仄仄仄平平(韻)
仄仄平平仄 頸聯



平平仄仄平(韻)

平平平仄仄 尾聯

仄仄仄平平(韻)

●七言律詩

仄仄平平仄仄平(韻) 首聯

平平仄仄仄平平(韻)

平平仄仄平平仄 頷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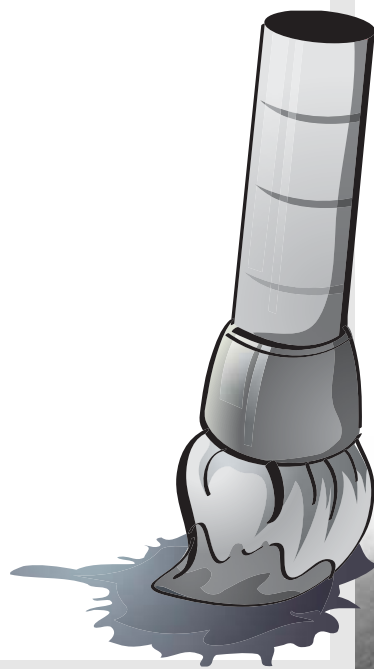
仄仄平平仄仄平(韻)

仄仄平平平仄仄 頸聯

平平仄仄仄平平(韻)

平平仄仄平平仄 尾聯

仄仄平平仄仄平(韻)



스피치교육

주은정 (경동대 겸임교수)

1. 스피치의 기본자세

● 연단에서의 기본자세

- 가) 다리(발) - 적당한 넓이로 벌려 11자형으로 한다.
- 나) 팔 (손) - 가볍게 쥐어(달걀 쥐 듯)바지 재봉 선에 엄지가 닿거나 손을 연탁에 올리도록 한다.
- 다) 얼굴(눈) - 정면을 똑바로 보고 턱을 당긴다.
- 라) 가슴(배) -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모은다.
- 마) 연단과의 거리는 주먹 하나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 등단, 하단의 연출법

- 가)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과 함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간다.
- 나) 무대에 올라 천천히 연단 앞으로 나가서 연단의 중앙에 선다.
- 다) 연단의 마이크를 조정하여 입에서 5cm정도 떨어지게 한다.
(스피커의 상태나 청중의 수에 따라 달라짐)
- 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다음 청중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시선은 정중앙에 위치하여 정중하게 인사한다.
- 마) 인사가 끝난 후 한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연단에서의 기본자세를 취한 후 천천히 발표한다.
- 바) 발표가 끝난 다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차렷 자세에서 청중을 둘러보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 사)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스피치교육



2. 스피치의 기본 원칙

가) 천천히 말하자

- '천천히'는 말을 길게 끌지 않는 것으로 쉽과 쉽이 분명한 것이고, 느리게는 말을 질질 끈다든지 낱말과 낱말 사이에 쉬는 시간이 길어서 청중에게 지루하고 답답한 감을 주며 분위기가 산만 해진다.

나) 크게 말하자

- 누구나 연단에 서면 평소 자기의 음성보다도 작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큰소리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소리 연습만이 감정표현을 잘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다) 또박또박 말하자

- 스피치의 내용을 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은 물론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음해야 한다. 그렇다고 낱말 하나하나를 전부 떼라는 것은 아니고 문장과 단어, 조사나 내용 등을 잘 살펴서 연결해서 말해야 할 곳과 떼어서 말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 자연스럽게 말하자

- 자연스러운 태도나 음성표현은 청중에게 친근감을 주어 일체감을 조성하며 진실성을 엿보게 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자기의 음성이 아니고 멋지게 꾸미려는 미성이나 가성
- 말끝이나 낱말의 끝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올리든지 길게 뽑는 경우
- 애조 띤 음성이나 리듬이 실린 어조(북한방송 아나운서나 사회자)
- 군인의 스타카토식 어조
- 국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웅변조의 질문
- 입 모양을 이상하게 움직여 발음하거나 입술 부근의 근육을 심하게 움직여 말하는 어조

3. 호흡법

호흡이란 '허파의 수축 작용과 가로막의 작용으로 숨을 쉬는 것'인데 모든 발성의 근본이 된다.

스피치교육



가) 단식호흡(單式呼吸)

- 흥식 호흡이라고도 하며 아랫배를 당겨 붙이고 앞가슴만으로 쉬는 호흡. 심리적인 충격으로 온몸에 전율을 느낄 때의 호흡으로, 속도가 빠르고 가슴으로 하게 된다.

나) 복식호흡

- 호흡을 할 때 아랫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동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정상적인 본능호흡, 원시호흡이라고도 한다. (단전호흡)

다) 혼합식 호흡

- 폐침호흡이라고도 하며 숨을 들이 마실 때 어깨와 가슴이 위로 올라가 폐를 수축시키는 호흡으로 가슴과 배와 동시 혼용으로 숨는다. (심한 운동이나 힘겨운 일을 한 후, 임산부의 호흡)

4. 음성

음성의 특성을 크게 나누면 음량, 음폭, 음질, 음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음량

-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말한다. 풍부한 음량은 스피치의 절대적인 원동력이 된다.

나) 음폭

- 목소리의 굵고 가느냐를 말한다.

다) 음질

- 목소리가 맑으냐 탁하냐를 말한다.

라) 음색

-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목소리로, 여러 가지 색이 합쳐서 어떤 사물의 색깔을 결정하듯 음성표현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음색이 결정된다.

5. 파워 발성법

가) 효과적인 음성 표현 방법

- 정확한 발음

스피치교육



- 음의 장단
- 음의 속도
- 음의 고저
- 음의 강약
- 음의 강조

나) 발성 단계음

- ① 1단계 - 5단계 (1단계음을 20음으로)
- ② 1단계 - 10단계 (1단계음을 10음으로)

다) 우리나라 기본 발성문

- ① 아 (장음) 1단계 - 5단계
- ② 아 (단음) 1단계 - 5단계
- ③ 모음 - 아오이 아이오 오아이 오이아 이아오 이오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애. 외
- ④ 자음 - 가라고로구리. 카라코로쿠리. 다타도토두티.
라하로호루히
- ⑤ 연속음(혀굴림) - 빨리리빨. 리빨빨리. 빨리리. 리빨빨
- ⑥ 음폭 -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라) 크레이시아(그리시아) 발성법

- ① 단음, 파상음 - 로얄 막과 싸리톨 슈네이파젤 엘박파 쥬피탈 올레오샤 캄파쿨울와
슈멘헤워제 우캄삼 어큐향 알감 로멜
- ② 연속음, 연속파상음 - 로얄리아 로얄바레이 스테파치즈 치즈스테파
- ③ 장음 : 트-렘-마-네-플-에-룸-포-야

6. 스피치의 발음연습 및 단문 표현

가) 스피치의 낱말 발음 연습

- ① 3음 발음 연습

스피치교육



아침해 저녁달 바닷가 모래밭 소나무 개나리 진달래 수수밭 어머니 아버지
 주전자 부뚜막 수돗물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고구려 태극기 연합군 내고향
 강원도 가고파 오고파 먹고파 살고파 하고파 울고파 설렁탕 대구탕 매운탕
 보신탕 삼계탕 꽃게탕 사철탕 해물탕 조개탕

② 4음 발음 연습

해바라기 코스모스 맨드라미 고국산천 부모형제 삼강오륜 부채도사 장원급제
 교통도덕 급행버스 완행열차 좋은날씨 밝은달밤 국군장병 안전제일

③ 5음 발음 연습

깨끗한거리 시원한아침 능률이난다 강에는붕어 산에는노루 새해새아침
 보내는선물 받는고마움 차가운날씨 서늘한바람 웃기는얼굴 명랑한거리
 건국공로자 훌륭한사람 예쁜어린이

④ 6음 발음 연습

즐거운웃놀이 신나는널뛰기 안녕히가세요 어서오십시오 다정한마음씨
 고목나무묘목 단정한몸가짐 아름다운조국

⑤ 7음 발음 연습

한산섬달밝은밤 기러기울며간다 엄마찾는송아지 화사한개나리꽃 아름다운멜로디
 소치는목동아이 뒷동산에할미꽃 울긋불긋해당화 명랑한서울거리

⑥ 특수발음 연습

찰찰 - 철철 쿵쿵 - 쿵쿵 술술 - 술술 모락모락 - 무럭무럭 팔랑팔랑 - 펄렁펄렁
 달랑달랑 출랑출랑 깜박깜박 아장아장 발랑발랑 살랑살랑 파릇파릇 훌쩍훌쩍
 가랑가랑 사각사각 살금살금 도란도란 보글보글 쪼록쪼록 쪼글쪼글 병긱병긱
 병실병실 빙긱빙긱 병글병글 뽕긱뽕긱 뽕글뽕글 뽕긱뽕긱 방긱방긱 방실방실
 방글방글 뱅긱뱅긱 뱅글뱅글 뽕긱뽕긱 싱긱싱긱 싱글싱글

나) 어려운 말 발음 연습

- ①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한다
- ②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 ③ 한양 양장점 옆에 한양 양복점 있고 한양 양복점 옆에 한양 양장점 있다
- ④ 앞집 법학 박사는 백 법학박사이고 뒷집 법학 박사는 박 법학박사이다
- ⑤ 인천 시청 천정색은 남청색이고 춘천 시청 천정색은 북청색이다

스피치교육



- ⑥ 중앙청 창살 쌍 창살 시청 창살 외 창살 종합청사 창살 겹 창살
- ⑦ 강남콩 옆 빈 콩깍지는 완두콩 깎 빈 콩깍지고 완두콩 옆 빈 콩깍지는 강남콩 깎 빈 콩깍지다
- ⑧ 앞집 팔죽은 붉은팔 풋 팔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단콩 콩죽이고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팔죽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 ⑨ 내가 그린 기린 그린 그림은 암 기린 그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린 그림은 숫 기린 그린 그림이다
- ⑩ 저기 저 콩깍지가 깎 콩깍지냐, 안 깎 콩깍지냐 아니면 못 깎 콩깍지냐
- ⑪ 저 말뚝이 말 땀 말뚝이나 말 못 땀 말뚝이나 아니면 말을 땀 수 없는 말뚝이나
- ⑫ 신진 상송 가수의 신춘 상송 쇼우
- ⑬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국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 ⑭ 코끼리 끼리 노는 잘 생긴 코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이고
코끼리 끼리 놀지 않는 못생긴 코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이다

7. 스피치와 인간관 (칭찬과 감사의 스피치)

가) 칭찬의 스피치

- ① 칭찬의 기적
 - 칭찬은 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신뢰를 주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되게 하는 힘이 있다.
 - 미국 헨리 고너드박사(심리학자)는 과학은 해명하지 못하지만 몹시 피로해 있는 학생들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면 즉시 엔돌핀이 상승하고 비난하거나 꾸중을 하면 육체 에너지가 급강하한다는 실험결과처럼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 ② 칭찬의 방법
 - 리더는 직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칭찬을 한다.
 - 자연스럽게 남이 듣는데서 칭찬하고, 잘한 일을 칭찬해 줌으로 보다 높은 목표에 도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칭찬의 중요성
 - 모든 분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다. 업무

스피치교육



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칭찬이다.
- 칭찬으로 인해 도리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나) 감사의 스피치 ('감사합니다'의 5법칙)

- ① 마음으로부터 고맙게 생각할 것.
진실한 감정이 표현되게 한다.
- ② 확실히 말할 것.
입안에서 중얼거리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 ③ 이름을 지적하여 감사할 것.
감사하는 상대의 이름을 부르며 표현한다.
- ④ 얼굴을 바라보며 말할 것.
감사할 때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할 것(특히 눈)
- ⑤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감사할 것.
상대방은 대단치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 미소의 훈련

① 미소의 뜻

- 미소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미소 받을만한 사람입니다]
- 우리가 미소를 보내주면 상대방도 미소를 보내 준다. 그것은 미소의 응답이지만 보낸 미소가 그에게 행복감을 맛보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② 미소의 자세

- 소리는 배에서 미소는 마음에서 나온다.
입술로만 웃는 미소는 효과가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 마음부터 웃어라.
마음을 빙그레 웃는 기분으로 가져보라. 그러면 편안한 기분이 된다. 긴장해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없다.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 미소이다.

스피치교육



③ 미소의 훈련

- 누구를 칭찬한 다음 미소를 지어 보여라. 찬사의 효과는 배가 된다.
- 무엇을 부탁한 다음 미소를 지어 보여라. 당신의 부탁을 받아줄 것이다.
- 부탁을 들어준 다음 미소를 지어 보여라. 너무나 감사할 것이다.
- 처음 대면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여라. 그는 당신을 구면으로 느낄 것이다.
-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미소를 지어 보여라. 미소는 말의 가시를 제거해 준다.
- 미소가 깃든 얼굴인가를 거울에 비춰 보아라. 매력 있는 표정은 미소 띤 얼굴에서 생겨난다.
- 즐거운 감정 표현은 우선 미소로 시작하라. 너무 기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입은 미소로 기쁨을 말한다.
- 매일 미소연습을 한다. 이 연습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도 되며 매사에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 된다.

9. 제스처

가) 제스처의 의미

- 제스처란 스피치 중에 몸의 일부분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 원인은 내부에 있던 연설자의 정신적 고조가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 연설자의 흥분, 열광, 자신감이나 내용에 대한 확신감, 그리고 청중을 사로잡는 강도의 증가 등 정신적인 힘들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현 되어야 이상적이다.
- ‘제스처는 연설자의 지휘봉이다.’ ‘제스처는 명장의 지휘도이다.’
- ‘만인에게 통하는 공통의 언어는 제스처이다.’
- ‘몸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나) 제스처는 언제 사용하나

- 제스처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없으니 너무 심심하다는 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자 할 때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며 또는 말의 뜻을 보충하여 설명할 때 보조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안 쓸 때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 ① 이번 강원도 도의원에 출마한 기호3번 홍길동입니다.

스피치교육



이 때 말로만 기호3번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호3번’ 하면서 손가락 셋을 펴 보이면 시각적인 효과에 힘입어 기호3번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뚜렷이 새겨진다.

② 국민여러분! 이 홍길동이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민주주의와 굳은 신념은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다.

‘굳은 신념’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일 때 연설자의 신념이 강하게 전달된다.

다) 제스처의 효과

- ① 연사의 정열과 자신감을 조장 시킨다.
- ② 청중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인 연설이 되게 해준다.
- ③ 청중의 이해를 도우며 완전하게 해준다.
- ④ 내용을 강조 또는 보조하여 박력을 살려 준다.

라) 제스처의 3단계

- ① 준비단계
 -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완성을 위해 뒷받침되는 진행과정을 말한다. 부드럽고 천천히 표현한다.
- ② 완성단계
 - 준비단계를 거쳐 강조하려는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계로, 이곳에서 제스처의 성패를 구성한다. 힘차고 강하게 나타내야 하며 가장 크고 가장 넓게 표현되어야 한다.
- ③ 복귀단계
 - 완성단계에서 기본자세로 되돌아가는 과정인데 이 단계는 완성단계를 이미 벗어났으므로 준비 단계의 경우와 같이 청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서서히 돌아온다.

라) 훌륭한 제스처 사용법

- ① 진실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여 그 뜻을 표현하는 감정이 몸에 밴 상태에서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도록 연습한다.
- ② 크고 힘차야 한다.
 - 크고 힘찬 제스처는 연설자의 신념과 사상에 대한 확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중에게 긴장

스피치교육



감과 박력을 느끼게 하고 시원스런 감정의 고조와 생기를 불러일으킨다.

- ③ 간단명료해야 한다.
 -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스처는 마치 희극배우나 광대의 쇼 같은 추태를 연출해 연설자의 인격과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 ④ 때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강조하는 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감정에 따라 사용 방향을 결정한다.
 - 가슴속에 품은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고픈 충동을 느끼듯 분노, 증오, 멸시나 정열적인 감정 등을 나타낼 때의 제스처는 심장 쪽부터 외부로 사용한다.
- ⑥ 변화 있게 사용한다.
 - 장소와 청중에 따라 조절하도록 한다. (청중의 수, 질, 장소 넓이, 분위기에 따라 변화를 준다.)
- ⑦ 말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
 - 말의 뜻에 맞지 않는 제스처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져온다.
- ⑧ 눈은 항상 제스처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
 - 제스처와 시선이 일치해야 한다.
- ⑨ 표정은 반드시 내용의 감정과 일치되어야 하며 미적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⑩ 허리나 엉덩이를 움직이거나 흔들어서는 안 된다.
- ⑪ 연단을 치거나 발을 구르지 않도록 한다.

2009년도 문화학교 학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한문서예

- 장우인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초대작가
- 이종우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초대작가
- 김형래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초대작가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김생서예대전-입선
- 황문복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추천작가
- 박귀남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추천작가
- 김경일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추천작가
 강릉단오서예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운곡서예대전-입선
- 추종삼 : 대한민국서화대상전-금상
- 김무풍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은상
- 양재익 : 대한민국서화대상전-금·은상
- 김 집 : 이북5도민서예대전-입선
- 정희명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운곡서예대전-입선
- 박옥화 : 강원서예대전-입선
 운곡서예대전-입선
- 손인환 : 대한민국서화대상전-금·은상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대한민국서예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운곡서예대전-특선
한글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소정 : 강원서예대전-입선 ● 김순자 : 님의침묵서예대전-특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특선 ● 김재옥 : 강원서예대전-입선, 특선 대한민국서화대전-금(2), 은, 동(2), 특선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입선(3) ● 노복현 : 님의침묵서예대전-특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 박귀남 : 강원서예대전-입선 아세아서예대전-추천작가 ● 심용구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 정계은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 조현조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 제혜례 :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 한덕복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 황문복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한글서예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아세아서예대전-추천작가 ● 박옥화 : 님의침묵서예대전-입선 강릉단오서화대전-입선 강원서예대전-입선 원주운곡서예대전-입선 ● 장우인 : 대한민국서화대상전-초대작가 대한민국강릉단오서화대전-특선 님의침묵서예대전-우수 강원서예대전-특선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입선
사물놀이(중급)	● 제18회 강원국악경연대회 - 우수상 ● 공연 - 현산문화제, 연어축제 ● 봉사 - 각 읍·면 행사시 공연
한시	● 전국한시백일장(안성)-장려(황재권) ● 전국한시백일장(홍천노동서원)-참방(황재권) ● 제17회전국한시백일장:장려상8명(김경일, 김구래, 김무풍, 김주호, 양동창, 이종우, 정만진, 황광수)
민요	● 공연 - 현산문화제, 연어축제, 황어축제, 향교 기로연 춘천선생님과 발표회, 국악협회 발표회 ● 봉사 - 낙산요양원(4회) 속초까르끼 요양원(3회) 화일리 디모테오 요양원(4회)
기타	● 공연 - 현산문화제, 연어축제,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한마음대회(12.6)
한국화	● 김영미 : 신사임당미술대전-입선10월 ● 전시 - 단원예술학교 회원전(김영미, 이운백)

2009년도 전국한시백일장 입선작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 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桂堂 金慶一

庭梧葉落報秋迎
瑟瑟金風夢鴈驚
沼上魚孫蘇活氣
簷前燕子告離聲
兩儀已皎精神淨
四野將豐樂土成
晚發匏花含夕景
騷人覓句競詩情

뜰 오동잎 떨어져 가을맞이함을 알리고
가을바람 쓸쓸하니 기러기 떼 놀라네.
못 속의 물고기들은 활기가 솟아나고
처마 앞 제비는 떠난다고 고하네.
하늘과 땅이 교결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사야가 풍요하니 낙토를 이루누나.
늦게 핀 박꽃이 저녁 경치 머금으니
시인은 글귀를 찾아 시정을 다투누나.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 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廉伯 金枸來

梧葉飄庭颯爽迎
炎天已過速候驚
蜚音砌下知秋節
蟬噪林間送夏聲
月射窓邊詩詠貫
燈親案上讀書成
豁開沃野蒙豐裕
百穀熟登尤有情

오동잎 뜰에 날려 상쾌함을 맞으니
여름 더위 지났으나 기후 빠름에 놀라네.
뜰아래 귀뚜라미 가을을 알리고
숲속의 매미는 여름을 보내네.
달 밝은 창가에서 시 읊어 달성하고
등 밝힌 서재에서 독서를 이루리라.
활개한 옥야에 풍유의 은혜입고
백곡이 등숙하니 더욱 탐스럽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 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東林 金茂豊

井邊梧葉自秋迎
涼氣亦坤炎帝驚
紅果溢園流煦色
黃稭燾野擊歌聲
赤衣使者朝飛樂
白髮騷人夜讀成
牛馬草原肥自潤
眼前景物醉詩情

우물가의 오동잎이 초가을 맞으니
천지에 서늘한 기운드니 염제가 놀라네.
붉은 과일 넘쳐나니 따뜻한 햇볕 흐르고
누른 벼들 익어가니 격양가 소리네.
고추잠자리는 아침마다 즐겨 날고
백발의 소인은 밤마다 글을 읽네.
우마는 초원에서 살이 썩 윤기 흐르니
눈앞에 펼친 풍경 시정에 취하여라.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 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石泉 金尙昊

涼生暑退爽秋迎
獨夜空山旅客驚
玉露玲瓏流雁影
金風淅瀝樂蟬聲
菊花始發佳香絕
水稻登豐富歲成
燈下看書聽蟀
長天滿月溢多情

더위가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니
빈산에 홀로 밤드니 나그네 놀라네.
옥이슬 영롱한데 기러기 그림자 흐르고
가을바람 부는데 매미소리 즐겁다.
국화 처음 피니 그 향기 으뜸이고
논벼가 잘 익어가니 풍년 이루네.
등 아래 책을 보니 귀뚜라미소리 들리고
푸른 하늘 밝은 달은 다정함이 넘친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 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南岡 梁東昌

已過炎天爽氣迎
井梧凋葉_嗚蛙驚
金風荻渚添鴻影
玉露庭階溢_聒聲
栗子先登仙骨覺
蓮花晚發佛心成
旻天倍碧詩思引
座末_騷人感勝情

여름철 이미 지나 서늘한 가을 맞으니
오동의 시든 잎에 청개구리 놀라도다.
금풍 부는 억새밭에 기러기 그림자요
옥로 내린 문안에는 귀뚜라미 소리 넘치네.
먼저 밤알이 익어 선골을 깨우치고
늦게 피는 연꽃에 불심을 이룬다오.
더욱 푸른 가을하늘 시정을 이끄니
시인도 말석에서 시정을 느끼는 도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 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又泉 李鍾寓

庭梧一葉報秋迎
稻浪初黃躍_鳴驚
沼上游魚蘇活氣
簷前_聒燕告離聲
蓮花晚發詩魂起
栗子先登畫趣成
淒_率新涼星夜咽
金風按地美真情

뜰의 오동잎이 가을이 왔다고 알리니
익어가는 벼 물결에 메뚜기 놀라 뛰네.
늪 위에 오른 물고기들 활기가 살아나고
처마 앞서 제비들은 떠난다고 지저귀네.
늦게 핀 연꽃이 시 짓고 싶은 마음 이끌고
먼저 익은 알밤에 그림 같은 정취 생기네.
치량한 귀뚜리 초가을에 밤새워 우는데
가을바람 어루만진 대지 참으로 아름답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淨沼 丁萬鎮

報秋梧葉氣清迎
建西斗杓炎帝驚
暮夜蛩鳴歡會色
早朝燕語別同聲
畫工畫癖黃花接
詩客詩興白髮成
玉露加香紅果潤
金風四野稻豐情

오동잎 가을 알리니 맑은 기류 맛이하고
북두자루 서향하니 염제가 놀라네.
늦은 밤 귀뚜라미 소리 기쁨인데
아침 일찍 제비들은 떠나자는 동성일세.
화공 그림 일상 버릇 회화를 접하는데
시객은 시흥 일어 흰머리만 느누나.
옥로는 향기 더해 붉은 과일 빛나고
사야의 가을바람에 풍년 들겠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 (韓國漢詩協會)09. 8.29.

梧葉報新秋

漿勵賞

靑山 黃光洙

斗杓建西氣清迎
白帝擡頭赤帝驚
爛發匏花如月色
墜凋梧葉似秋聲
忽飛燕子歸途練
閑俯蜻蜒點水成
大野過看登稔惚
槐黃土聚醉詩情

북두자루 서향하니 맑은 기류 맛이하고
백제가 고개 드니 염제가 놀라누나.
난발한 박꽃은 눈부신 달빛 같고
시들어 떨어진 오엽은 가을소리 같구나.
바빠 나는 제비는 돌아갈 길 단련인데
한가한 춤 잡자리는 물 스치며 즐기누나.
큰 들을 지나보니 풍년들어 황홀하고
과거 계절 선비 모여 시정에 취하누나.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桂堂 金慶一

亂舞頽潮道義衰
籠城國會實慙悲
示威不法喧連日
叫喚非行慄四時
政府無能終審恐
儒林兩裂自招危
南南冷氣尤增幅
慘憺心情訴作詩

퇴폐풍조 난무하니 도의가 쇠퇴하는데
농성국회는 참으로 부끄럽고 슬프도다.
불법시위로 연일 시끄럽고
비행규환에 사시 떠는구나.
정부 무능하니 중심이 두렵고
유림 분열하니 위험을 자초했네.
남남갈등의 냉기 더욱 증폭되니
참담한 심정을 작시로 하소하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廉伯 金杓來

權域燦然何漸衰
漂流政策甚憂悲
民生度外多虛日
黨利論爭久喪時
南北緊張難進退
東西協力在安危
泰平盛代無期約
慨歎儒林警詠詩

찬연한 우리나라 어찌 점점 쇠해지나
정책이 표류하니 심히 근심되네.
민생을 도외시하니 헛날만 보내고
당리 논쟁에 법안처리 시기도 잊어버리네.
남북긴장으로 대화는 진퇴양난이요
동서협력으로 안위가 달려있네.
태평성대는 기약이 없으니
유림들 개탄하여 시 지어 깨우치노라.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東林 金茂豊

葛藤對立五倫衰
身火黃金暗目悲
固有美風消昔日
潮來敗俗勝今時
議員妄動民情蔑
政黨兇妖國是危
平壤飢寒嘗核魅
昏迷現實咽吟詩

갈등과 대립으로 오륜이 무너지니
황금의 사육에 눈이 멀어 비참하네.
고유 미풍은 옛날에 사라지고
밀려온 패속은 지금 기승이네.
의원들의 망동에 민심이 떨시되고
정당의 요사함에 국시가 위태롭네.
춡고 굶주린 북한은 핵의 맛에 매혹되고
현실이 혼미하니 시를 읊어도 목이 메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道巘 金榮奎

內外崎嶇國步衰
昏迷政局益傷悲
東西不協騷連日
上下疏憎畏四時
嘗核飢寒安保脅
爭朋痛愧太平危
黃金眩惑崩良俗
治世希望敢告詩

안팎이 기구하여 국운이 쇠하니
혼미한 정국은 슬픔이 더해가네.
동서가 불협하니 연일 소란하고
상하가 미워하니 사시 끄려하네.
북한은 기한에 핵을 맛보고 안보를 협박하고
남한은 부끄러운 봉당싸움이 태평을 위협하네.
황금에 현혹되어 양속이 무너지니
치세의 희망을 감히 시로서 고하네.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南岡 梁東昌

不協東西國運衰
紛爭與野汝吾悲
朽官犯法當威勢
烈士忠情縮濟時
勞使引繩公道曲
傀軍依核妄言危
爲民政治祈求裏
憫世歎嗟直諫詩

동서가 불협하니 국운이 쇠해지고
여야가 분쟁하니 너와 나 슬프도다.
범법을 저지른 썩은 관리는 위세가 당당하고
충정의 열사는 세상을 바로잡고도 위축되네.
줄다리기하는 노사는 공도가 굽어지고
핵에 기댄 괴뢰군은 망언으로 위협한다.
위민정치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민세를 한탄하며 시로서 직간하네.

註:濟時=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아 백성을 구제함.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又泉 李鍾寓

黨禍分爭國運衰
無能政府苦悶悲
連呼叫喚喧連日
一倡哀歎咽一時
嘗核魔軍安保脅
拔河勞使太平危
許由思潁堯天夢
末世愁心訴詠詩

분쟁하는 당화로 국운은 쇠하는데
무능한 정부를 고민하니 슬퍼지네.
울부짖음 연호하니 연일 시끄러운데
슬퍼 탄식하는 일장에 한때 목메었네.
마귀 떼는 핵의 맛에 안보를 위협하고
노사는 줄다리기 태평세월이 위태롭네.
영수에 귀를 씻은 허유의 생각에 태평세상 꿈꾸며
말세를 근심하는 마음에서 시를 읊어 하소하노라.

註:許由=천하를 내어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고 귀가 더러워 졌다 하여潁水에서 귀
를 씻었다는 청렴한 관리.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淨沼 丁萬鎮

妄言違法紀綱衰
亂舞蠻風結果悲
不協東西喧每日
相爭勞使混常時
南方國會籠城險
北地軍團玩核危
物欲貪婪禽獸輩
寒心憫世癒歌詩

망언에 위법 일삼아 기강이 무너졌는데
야만 풍속 난무하니 결과는 비참하구나.
동서가 불협하니 매일 시끄럽고
노사가 상쟁하니 상시 혼란하네.
남한의 국회는 농성으로 험악하고
북한의 군부는 핵장난이 위태롭네.
재물의 탐욕이 지나친 무리는 금수로다.
한심한 민세를 노래와 시로서 치유하자.

註:貪婪=욕심이 많음, 몹시 탐냄.

第17回全國漢詩白日場豫選 (韓國漢詩協會) 09. 8.10

憫世

入選

靑山 黃光洙

與野姜姜信義衰
內訌外著甚羞悲
南陽犯逆知今日
北核攸乎顧昔時
聯合糾彈除障礙
非常局面必防危
但望超黨蕩平策
仁政太寧催勸詩

여야의 격한 싸움 신의는 쇠퇴하고
내홍 밖에 드러나 부끄럽고 서글픈데
남양 정책 위반을 오늘에야 알았으니
북핵의 위태로움 옛 사변을 일으키네.
연합으로 규탄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비성국면인 이 위기를 반드시 막아야
다만 바람 초당적인 탕평책으로
인정 퍼 태평하길 권시로 재촉하네.

全國漢詩白日場 (洪川魯東書院)09.10.19

追慕文憲公崔冲先生

參榜

石井 黃在權

惺翁逝去幾經年
偉蹟煌煌史卓然
學問深玄如泰斗
明眞慧智可衝天
廣施教誨仁風抒
善政安民實錄編
百代宗師追慕裏
海東孔子永生傳

선생이 서거한지 몇 년이 지나갔느냐
위대한 업적은 밝고 밝아 역사 속에 우뚝하도다.
학문은 깊고 유현하니 태산북두와 같고
명확한 진리와 지혜는 가히 충천하였도다.
教誨하고 광시하고 인덕을 베풀었고
선정하고 안민하였고 역대 실록을 편찬하였으니
백대 종사를 추모하는 가운데
해동공자로 오래도록 살아 숨 실 것이다.

全國漢詩白日場 (安城)09. 4. 8

讚申吉萬 彈劾李麟佐

獎勵

石井 黃在權

先生大義賦天身
勇毅無雙感歎眞
向主丹心開正道
爲邦壯志守彝倫
彈凶李賊千秋罪
讚美申公萬代伸
懿蹟芳名傳實錄
羹牆後學慕功臣

선생의 대의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용감하고 굳셈은 무쌍하여 감탄하노라.
님을 향한 단심은 정도를 열었고
나라위한 장지는 이룬을 지켰도다.
李麟佐(이린좌) 탄핵하노라 천추의 죄를
申吉萬(신길만)을 찬미하노라 만대토록
훌륭 업적 꽃다운 이름은 실록으로 전하여오니
후학들 우리러 공신을 사모하노라.

경로효친문예작품(최우수상)

경로효친

조산초등학교 6학년 박민희

“할아버지, 경로효친이 뭐야?”
“응, 우리 강아지가 존댓말 쓰는거지.”
아 그렇구나.

“할머니, 경로효친이 뭐예요?”
“응,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빠, 경로효친이 뭐예요?”
“응, 웃어른을 공경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엄마, 경로효친이 뭐예요?”
“응, 가족한테 잘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엄마, 나 이제 경로효친 할게요!



할머니의 어른공경

양양초등학교 6학년 5반 장설민

8시가 다 되어서야 눈을 떴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아직 채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섰는데 할머니께서는 무얼하시는지 많이 분주해 보이셨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오이소박이와 파김치를 담그시느라 내가 나오는 것조차 보지 못하셨다. 나는 서운한 마음에 “할머니!” 하고 조금 통명스럽게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환한 웃음으로 바라보셨다.

“설민이 일어났구나!”

“할머니! 옛그제 김치 담그셨는데 왜 또 하세요?”

“응, 아랫동네 할머니 갖다 드릴려구.”

아랫동네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다. 단칸방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할머니시다. 나도 지난번에 할머니를 따라 아랫동네 할머니 댁에 한 번 갔었는데 작은 방에 꼬부라진 허리를 말고 누워계신 아랫동네 할머니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었다. 아랫동네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댁을 찾은 나를 보고 주름 가득한 얼굴에 함박웃음을 담고서는 요구르트를 건네주셨다. 그 날 아랫동네 할머니 손에서 건네받아 먹었던 요구르트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 먹어 본 요구르트 중에 가장 맛있지 않았었나 싶다. 아마도 아랫동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런 아랫동네 할머니께 김치도 담가다 드리고 틈틈이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곤 한다. 처음에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었다. 할머니도 할머니여서 힘들면서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할머니를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설민아! 경로효친이란 게 경로와 효친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경로는 자신의 어버이를 떠 받들고 효도를 하라는 뜻이고, 효친은 노인을 공경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경로와 효친은 공경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라는 뜻이란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 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른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싶은 거야.”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지냈던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할머니한테 반찬투정 했던 일도, 돈가수 떨어졌다고 화냈던 일도, 그리고 입도 갈 옷 안 빨아냈다고 짜증냈던 일도 모두 너무 죄송했다. 오늘 저녁때는 김치 담그시고, 밥 일 하시느라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과 발을 내 손으로 직접 닦아드려야겠다. 그리고 모아 놓은 용돈으로 할머니 손에 바를 핸드크림을 하나 장만해 드려야겠다. 우리들을 위해 애 쓰시는 할머니의 천만불짜리 손을 위해서..... 그리고 아랫동네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모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요구르트 사 들고 주말에 청소해 드리러 가야겠다.



‘잡은 만남이 행복인 그 분들’

양양여자중학교 1학년 3반 김영주

나의 할머니들은 언제 뵈었는지 모를 정도로 중학교에 들어와 벌써 7월이 되었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 버리고 나의 생활은 바쁜 일정 속에 쳇바퀴 돌 듯 돌아가고, 할머니들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1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친할머니는 길가에서 잠깐 뵈고 안부만 묻는 정도이고, 외할머니께서는 내가 바쁘다는 엄마의 말에 나에게 방해가 될까봐 보고 싶어 하시면서도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신다. 명절 때나 되어야 한나절 얼굴을 볼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이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가거나 오시거나 했었다. 이렇게 여유도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 요소가 어른들을 공경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들께서는 자기 자식보다 손자들이 더 사랑스럽다고 하던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을 잘하기만 해도 진심을 다해 나를 격려해주시고 맘껏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라 생각한다. 나를 향한 큰 사랑을 내가 감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 할머니들이기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가끔 할머니들을 뵈 때면 허리가 많이 굽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음이 많이 좋지 않다. 늘 내 곁에서 영원히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가 내 곁을 떠날 것이다. 생각하면 슬픔이 복 받힌다.

가끔 아빠께서는 멋진 집을 지어 두 할머니들을 같이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외할머니께서는 “말만 들어도 고맙네.” 하시던 것이 기억난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빠의 그런 마음이 난 항상 좋다. 그런 마음을 난 고스란히 닮고 싶다. 나의 친할머니께서는 장수대학이며 기체조 등 사회적 여가 활동을 잘 즐기고 계신다. 그런 반면 외할머니께서는 손자 봐 주시느라 시간적 여유를 즐기실 겨를이 없는 분이시다. 때로는 두 분을 반만 섞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 적 있다. 친할머니께서는 여가 활동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엄마께서 너무 좋다고 하셨다. 나의 엄마께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른들은 사회적 여가 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야 질병도 생기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가끔 노인성 질환으로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시설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면 가슴 한켠이 슬퍼진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엄마께 여쭙었더니 잘 설명해 주셨다. 전체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고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젊은 세대가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니 부모님을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옛날처럼 시설에 들어가면 강제적이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은 버리라고 하셨다. 이제는 환자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바꿀 수도 있으며 재가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부양이 최고라고 하셨다. 또한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정책이 많이 보급되어 옛날처럼 소외되는 노인 분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은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효를 근본으로 하는 사상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은 세상과 더 바람직한 세상으로 흘러가길 바랄뿐이다.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기말고사 시험도 끝나고 해서 담귀 놓은 김치도 가져다주실 겸 오신다 한다. 뭐 그리 큰 고시 공부라도 하는 냥 보고픈 할머니 얼굴도 못 뵈고 불효를 저지른 셈이다. 세상에서 손녀가 제일로 똑똑하다고 인정하시는 내 할머니께 자주 만나 뵈지 못해 죄송스럽기만 하다. 인정 많고 가슴 따뜻한 외할머니, 욕심 내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는 친할머니, 두 분 모두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할머니 두 분의 곁에는 나의 할아버지들이 안 계신다. 그래서 내가 더 잘 해 드려야 한다. 이 분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을 행복으로 느낀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잦은 만남이야말로 어른 공경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나의 소중한 아빠, 엄마를 보내주신 나의 할머니 두 분, 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



콩

콩은 우리의 살과 피를 맑게 해서 병을 고치는 위대한 구세주이다.

콩은 정말로 신기한 놈이다. 이놈이 싹을 내어서 '콩나물'이 되면 비타민 C가 많이 생기고 두부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동결시키면 단백질이 곱 가까이 증가되는데 이놈을 식혀서 양념을 쳐서 먹고, 말려 두었다가 반찬으로 해먹으면 아주 좋다.

신통방통 놀라운 효과 '콩'의 신비

'콩'이란 놈은 참으로 신통하고 신통하다. 이 놈이 썩으면 된장, 청국장으로 되는데 영양분이 감소하지 않고 소화가 원콩보다 월등하게 잘 된다. 또 100g당 1천 억마리 이상의 좋은 소화 효소균이 생겨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몸 속의 독을 청소하는 청소부 노릇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쇠고기, 우유, 계란은 먹기도 전에 시일이 좀 지나면 지독한 냄새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변모한다. 시일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것을 먹어도 몸 속으로 들어가면 몸 속의 균과 합작을 하여서 쉽게 부패해버린다.

이에 반해서 '콩'을 보라. 사람이 먹기도 전에 썩어서 된장, 청국장으로 되면 사람의 피와 살을 맑게 하는 천하 제일의 보약으로 되고, 콩을 직접 먹으면 몸 속에서도 된장, 청국장과 같은 것으로 되어서 살과 피를 맑게 하고 영양을 보급하는 놀라운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콩은 우리의 살과 피를 맑게 해서 병을 고치는 위대한 구세주이다.

치아와 음식물

우리 인간의 치아의 총 갯수와 치아의 종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 곡식을 씹어 먹는 데 주로 사용하는 치아와 그 수는?

: 어금니 20개(상하좌우 각각 5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씹어 먹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어금니가 퇴화해서 각각 4개씩 도합 16개인 사람이 많다.

▶ 사과 같은 과일이나 무 같은 야채를 먹는데 첫째로 사용하는 치아의 수는?

: 앞니 상하 각각 4개.

▶ 질긴 쇠고기 같은 것을 씹어 먹는 데 주로 쓰이는 치아와 수는?

: 송곳니 상하좌우 각각 1개.

그러니 조물주는 인간을 창조할 때 식품의 종류와 먹는 비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화기능과 인체의 모든 생리기능을 아예 딱 마련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육식을 곡채식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고 드디어는 병에 걸려 병원마다 초만원 사태를 이루고 있다.

육식을 32 중 4 비율로 하면 그야말로 보약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경우 육식이 공해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무공해 시대 즉 세계 1차대전 당시 덴마크에서는 식량난으로 국민들이 육식을 금하고 곡채식만 했더니 사망률이 40%나 격감했다는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오늘의 육식은 그 무공해 시대와는 정반대로 극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육식의 해독이 그 무공해 시대보다도 몇 곱이나 더 심한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육식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간이 사육하지 않는 야생동물의 고기를 4의 비율로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소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 콩이다. 우리는 콩을 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먹기 때문에 온갖 공해 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콩을 직접 먹어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공해 시대에는 쇠고기보다도 만 곱 이상 좋다. 볶은 콩, 된장, 청국장, 두부 등을 먹기를 권한다. 특히 초콩이 공해독을 몰아내버리는 위



대한 구실을 한다.

콩과 식초는 둘다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궁합을 나타낸다.

마늘

마늘에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 있길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열광할까?

마늘의 성분 100g 중 수분 60.4g 을 빼고 남은 39.6g 중에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백질(3.0g), 당질(32g), 회분(1.3g), 인(50mg), 비타민 A(50IU), 비타민 B2(0.08mg), 니코틴산(0.4mg), 지방(0.5g), 섬유(0.8g), 칼슘(32mg), 철(1.6mg), 비타민 B1(0.33mg), 비타민 C(20mg) 등이다.

이들 영양소의 작용이 한데 어우러져 이 시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우뚝 선 마늘... 먹으면 내 몸에 약이 되는 마늘의 놀라운 작용을 알아보자.

▶ 마늘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수분을 빼고 남은 39.6g 중에서 당질이 무려 32g 이라는 사실이다. 당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각종 영양분 중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당질과 지질이다. 지질은 소화시키는 데 3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그런데 당질은 불과 30분 정도로 소화되어 버린다. 그러니 마늘을 먹으면 빨리 기운이 난다. 그래서 마늘은 강한 정력제가 되는 것이다.

▶ 마늘에는 비타민 B1의 함유량도 높다. 비타민 B1은 당질을 에너지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당질을 연소하는데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의 창자 안에는 고마운 비타민 B1을 죽여버리는 아네우리나아제라는 나쁜 효소가 도사리고 있다. 현미 같은 자연식품에는 원래 비타민 B1이 많고 또 그 자체에 아네우리나아제의 해독을 막아내는 자위력이 있으나 흰쌀이나 흰밀가루에는 원래부터 비타민 B1이 극소량밖에 없는 데다가 시일 경과로 인한 변질로 더욱 감소되고, 힘이 약화되어 있어서 아네우리나아제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 B1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백미, 흰밀가루 등의 당질은 우리 몸에서 연소가 안 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양실조로 병과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목하자. 마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리인은 아네우리나아제란 나쁜 효소를 죽여버린

다. 따라서 마늘을 먹으면 마늘 자체의 비타민 B1뿐만 아니라 함께 먹은 다른 식품의 비타민 B1도 효과를 발휘해 당질을 에너지화한다. 우리가 마늘을 먹으면 기운과 정력이 강해지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 ▶ 마늘은 또 간장의 해독작용을 강화시키고 장 안의 유해균을 살균하여 강력한 정장작용을 한다. 다른 살균제는 거의 다 부작용이 있어서 하나의 병을 고치면 다른 여러 종류의 병이 생겨서 오히려 몸을 약화시키지만 마늘은 그와는 반대로 부작용 없이 살균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 ▶ 마늘을 먹으면 피가 맑아져서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고 식용력이 배가된다.
- ▶ 마늘은 혈관을 좁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한다.

내 몸에 좋은 마늘 영양학적으로 잘 먹는 법

마늘을 전혀 안 먹다가 처음으로 먹으면 그 놀라운 효능을 실감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념으로 늘 먹기 때문에 보통 먹는 방법으로는 그 효과를 실감할 수가 없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먹는 것이 좋다.

- ▶ 마늘은 단순히 양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병통치약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먹어야 한다.
- ▶ 생마늘에 100%의 효과가 있다.
- ▶ 불로 익힌 마늘에는 생마늘의 약 10분의 1의 효과가 있다.
- ▶ 가공한 마늘(장아찌, 김치에 넣은 마늘 등)은 생마늘의 약 5분의 1의 효과가 있다.
- ▶ 마늘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설탕의 해독을 반감시킨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인데 마늘을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된다.
- ▶ 마늘은 생선의 단백질과 지방에 최고로 잘 작용해서 생선을 맛이 있고 소화

가 잘 되게 하고 생선의 독을 해독시킨다. 특히 날 생선과 마늘은 아주 단짠이다.

- ▶ 위장이 약한 사람은 처음엔 익힌 마늘을 먹고 복부 지압을 하면서 위장이 강해진 다음에 반숙 마늘을 먹는다. 반숙 마늘 먹는 것에 익숙해진 다음 생마늘을 조금씩 먹어가되 나쁜 반응이 일어나면 즉각 중지해서 양을 조절하라.
- ▶ 생마늘은 콩의 단백질, 특히 된장에 생마늘 빵은 것을 넣으면 마늘의 자극과 냄새가 현저히 감소한다. 특히 이 된장에 참기름, 깻가루, 생강을 첨가하면 기가 막힌 보약이다. 이 된장에다 생채소, 특히 양파, 당근, 무, 양배추, 오이를 찍어 먹으면 영양에 관한 한 이것저것 잔소리할 것 아무 것도 없다. 된장이 짜다면 압력솥으로 콩을 찌서 빵은 뒤 혼합하라. 좀 달게 먹고 싶다면 꿀이나 물엿을 섞어서 먹으면 된다.



참깨

깨라는 식품은

- ▶ 고소해서 맛이 좋다.
- ▶ 고소한 향기가 난다.
- ▶ 동시에 만병통치약이다.

산삼이 좋지만 어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나?

음식물을 먹되, 피와 살로도 되고 동시에 만병통치약으로 되는 것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깨를 먹어야 한다.

중국의 옛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1. 참깨를 100일 먹으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
2. 1년을 계속해서 먹으면 피부에 광택이 나서 아름다워지고 배가 안 고파진다.
3. 2년을 계속하면 백발이 검게 된다.
4. 3년이면 빠진 이도 다시 난다.
5. 4년이면 수화(水火)의 해도 입지 않는다.
6. 5년이면 달리는 말도 따라갈 수 있다.
7. 그 이상 계속하면 반드시 장수한다.

물론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깨가 좋다는 말일 것이다. 인생 80여 년을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현미, 콩, 깨, 마늘, 야채, 해조류를 먹고 있는 한 영양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깨 · 검정깨 · 들깨의 영양 분석표〉

	참깨	검정깨	들깨
열량	594cal	567cal	650cal
단백질	19.4g	19.4g	18.5g
지질(지방)	50.9g	49.3g	55.0g
당질(당분)	14.2g	11.5g	14.0g
섬유소	2.9g	11.7g	28.0g
칼슘	630mg	1100mg	441mg
회분	5.3g	4.3g	4.3g
철분	16.0mg	16.0mg	10mg
인	650mg	570mg	570mg
비타민 A	0	35IU	0
비타민 B1	0.5mg	0.5mg	0.5 mg
비타민 B2	0.1mg	4.8mg	0.11 mg
나이아신	4.5mg	4.8mg	3.1mg

위의 세 가지 성분은 대동소이한데, 특징적으로 들깨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다. 또 검정깨에는 칼슘이 두드러지게 많으며, 다른 것에 없는 비타민 A가 들어있기도 하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검정깨를 약깨로 친다. 특히 들깨에는 섬유소가 두드러지게 많으므로 변비 환자에게 좋다.

이렇듯 깨는 보약 중의 보약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 특히 깨는 보약보다 값이 싸서 좋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둘 밝혀진 깨의 효능과 작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 식물성 지방의 성분인 리놀산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 성분이다. 이러한 리놀산은 참깨에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것이 부족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각종 신경질환이 생긴다. 나아가 신체 각 부에 병이 생긴다. 따라서 지식인, 정신노동자, 학생들은 리놀산이 많이 들어있는 참깨를 부지런히 먹을 필요가 있다.
- ▶ 리놀산은 피와 살을 맑게 하고 혈관을 청소해준다. 따라서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깨를 100일 먹으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중국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피부에 좋다. 참깨의 리놀산은 피부 속까지 고와지게 만드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뻐지고 싶거든 오늘 당장 참깨를 먹기 시작하자. 그것이 피부도 살리고 아름다움도 함께 얻는 일석이조의 천연 피부 미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역과 다시마

[미역과 다시마의 놀라운 효과]

미역은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다시마는 혈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영양학상의 상식이다. 왜 피를 깨끗이 하고 혈압을 내리게 하는가?

미역에 1300mg, 다시마에는 800mg이나 되는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칼슘은 뼈, 치아, 피 등을 만드는 재료임과 동시에 피와 살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또 알긴산이라는 끈끈한 점질 물질이 들어있다. 알긴산의 작용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해서→모세혈관을 보호하고→혈관을 탄력있게 하고→나아가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높아진 혈압을 강하시킨다. 또 식품의 공해독인 카드뮴(중금속)을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변통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한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미닌'이 들어있어 혈압을 내리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긴산과 라미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혈작용이 있고, 혈압 강하제로도 된다. 그러므로 미역+멸치에 여러 가지 야채와 다시마 가루를 첨가해서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항상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쑥

쑥의 놀라운 작용 5가지

▶ 위장을 강화시킨다.

좋은 약의 특징은 첫째로 인체의 뿌리인 위장을 다스려 주면서 병을 고친다.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약에는 위장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이와 같은 약을 쓰는 것은 마치 나뭇가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무의 뿌리를 잘라 없애버리는 격으로 되어서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약이 된다. 그러나 쑥은 그렇지 않다. 쑥은 인체의 뿌리인 위장을 강하게 하면서 인체의 자연 생리 기능을 강화시키고 체질을 개선시키면서 만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 강한 정혈작용이 있다.

병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생긴다. 쑥은 만 어떤 약초보다도 피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과거 수천 년 동안 뜸을 뜨는 데 사용해왔다.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어서 만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 백혈구를 증강하고 병균을 살균한다.

이른봄에 파릇파릇 새싹을 틔워내는 쑥은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키고 식균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 강력한 해독작용을 한다.

우리 몸속은 담배, 술, 약, 공해식품 등 각종 독이 축적돼 있다. 쑥은 이 독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몰아내버리니 쑥이야말로 공해독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위대한 구세주이다.



▶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시킨다.

방안에 무슨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고 쉼을 태워 연기가 가득 차게 하라. 방안에 있는 모기, 파리 등 온갖 벌레들을 박멸할 수 있다. 쉼은 사람에게에는 약이 되나 해충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구충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감자

감자에는 안정된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비타민 C의 작용은 결코 만만찮다. 피부를 강하고 아름답게 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모세혈관까지 잘 순환시켜서 병을 근치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과 암까지 예방하고 치료하며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C가 열에 지극히 약하고 물에도 잘 녹는다는 것이다. 공기에도 약해서 밭에서 수확해서 부엌으로 옮기는 동안에도 그 효능은 약화된다. 야생동물은 생식을 하여서 비타민 C를 100% 섭취하기 때문에 병이 없는데 인간은 화식을 하여 비타민 C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감자의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파괴가 안 된다는 점이다. 감자에 열을 가하면 감자의 전분이 보호막을 만들기 때문에 요리 후에도 비타민 C가 소실 안 되는 기적을 행한다. 이점 때문에 감자가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다.

감자를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는 점이다.

칼륨이 무엇인가? 소금의 해독을 해소하는 위대한 구실을 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감자는 현대인의 참구세주와도 같은 식품이다. 감자는 소금속의 해로운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몰아내버리기 때문이다.

감자는 염증을 치료하고 콜레스테롤을 녹여 피를 맑게 한다.

우리는 공해식품, 약, 술, 담배, 짠 것, 매운 것 등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염증이 생겨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등으로 속이 쓰리고 아파서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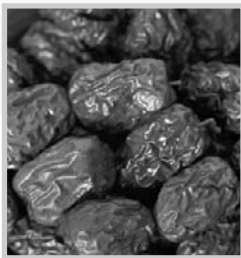
을 고생들을 하고 있다.

이 병들을 고치는 최선의 방법은 감자의 생즙을 먹는 것이다. 감자에는 알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궤양의 출혈을 막아 소염, 소독하여 보호막을 만드는 놀라운 구실을 한다.

또 감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녹여 피를 맑게 하는 신기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는데 위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감자는 생감자를 된장에 찍어먹어도 좋고 생즙을 내어 먹어도 된다. 또 국으로 끓여 먹어도 된다. 감자의 약효를 제대로 보려면 생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좋다.

대추



대추는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정작 그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대추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이야기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대추는 한방에서 '대조(大棗)'라는 약명으로 쓰인다. 갈매나무과에 속한 낙엽 관목인 대추의 열매를 말린 것으로 가을철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쓴다. 대추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그 열매를 '대조'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추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튼튼히 한다.

대추는 맛이 달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보약으로 분류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기를 보하는 작용을 하는 '보기약'이다.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경우나 밥을 잘 먹지 않으면서 설사하는 증상들은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때 대추를 먹으면 기운도 나

고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된다.

대추는 정신을 안정시킨다.

대추의 효능 중 두 번째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다. 혈이 허하게 되면 얼굴 색이 누렇게 되고 입술에 핏기가 없으며 몸이 마르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난다.

대추는 이러한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경우에 사용된다. 특히 결혼을 늦게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히스테리에 효과가 있다. 마음이 불안한 경우나 긴장된 경우에 대추차를 마시면 이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추는 독성이 강한 약물의 작용을 누그러뜨린다.

대추의 세 번째 효능은 약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원래 단맛이 많은 천연물은 독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대추도 마찬가지다. 처방 중에 대추를 넣으면 독성이 강한 약물의 작용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하며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추는 감초처럼 처방에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생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강은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약효를 잘 발휘되게 하는 반면 기혈을 소모하게 하므로 대추와 함께 쓰면 대추의 보하는 작용으로 상쇄되며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추에는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다.

대추에는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발생시킨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쥐에 유발한 위암에 대하여 항암작용이 있다.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를 멎게 하는 진해, 거담의 작용이 있다. 대추는 노화의 주된 물질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서 항노화 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약물이다. 대추를 먹을 때는 8~20g 정도를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 복용한다.



양파

양파는 지방의 함량이 적으며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또한 자궁수축에 의한 분만 촉진에도 효과가 있어 임산부에게도 좋다. 양파는 날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특한 매운맛과 향이 있어 먹기가 쉽

지 않다. 익히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과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보존해도 성분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 50g 정도씩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1) 몸에 좋은 양파, 다이어트

중국 음식은 기름기 투성이라 다이어트에는 위험!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다지 뚱뚱하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차와 음식에 들어가는 양파 때문. 양파의 매운맛처럼 독 쓰면서도 확실한 양파다이어트, 왜 좋을까?

양파가 다이어트에 좋은 점은 지방의 함량이 적으면서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에 좋다. 양파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젖산과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식품. 말하자면 고지방을 녹이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양파에는 칼슘도 많이 있어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이어트할 때도 좋다. 양파를 먹으면 장내에서 스펀지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과다한 양분의 흡수를 막아준다. 또한 유해물질까지 흡착, 배설시켜 몸속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이어트 운동 시 근육이 많이 뭉쳤을 때도 이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운동의 효과를 높여준다. 양파는 날것과 굵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말린 것 등이 약용효과 면에서 변화가 없다.

양파는 맵지도 않고 먹기도 부드러워 다이어트에 한결 좋다. 먼저 양파 3개를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여기에 물 한 대접을 붓고 푹푹 삶는다. 그러면 양파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양파즙이 생긴다. 세끼 식사는 기존과 똑같이 하면서 보리차 대신 수시로 먹으면 살이 빠진다. 단 세 끼의 식사량을 평소의 2/3로 먹는다면 효과는 더욱 높다.

양파는 익으면 냄새가 거의 없고 오히려 단맛이 나기 때문에 물에 삶은 양파를 식사대용으로 먹을수록 효과는 높아지지만 밥은 먹지 않고 양파즙만 3일 이상 마

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기름진 중국요리에 감초 역할을 하는 양파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양파의 매운맛인 유화프로필 성분이 우리 몸속의 혈당을 떨어뜨려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이기 때문이다. 이 유화프로필은 생양파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볶음 요리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살짝 볶아서 먹자.

기름진 음식과 양파는 찰떡궁합이다. 혈관내벽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심장에도 좋은 양파는 볶을수록 감칠맛이 나는데다, 단맛이 증가하여 음식의 설탕 사용을 줄여주고, 몸에도 좋은 채소이며 다이어트에는 더없이 좋은 음식이다.

2) 차(茶) 처럼 마시는 다이어트

양파물을 만들어 보리차처럼 마시거나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 양파와 물을 1:2의 비율로 섞은 후 냄비에 넣고 10분 정도 충분히 끓여 물만 따로 모아둔다. 그 물을 수시로 물처럼 마시면 양파의 지방 분해 성분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양파물이 냄새가 심한 것을 제외하면 효과는 확실한 편이다.

생양파를 먹으면 더 효과적이다. 비만을 예방해주는 유화프로필 성분은 생양파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마지막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좀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양파는 날것, 구운 것, 튀긴 것, 삶은 것 모두 약용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양파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지만 맛이 매워 자극성이 심한 식품이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피한다.

3) 전래 의학에서의 양파의 성기능 촉진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대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경험적 효과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전통처방도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활용 돼있던 임상경험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그 시대에 과학적 규명방법이 없어서 더욱 그렇다.

성기능과 배뇨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립선은 최근 과거에 비해 관련 질환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비뇨기과 학회는 20년 전에 비해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2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구에서는 전립선암은 노인 남성의 3명 중 1명이 이환되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감기보다도 흔한 질환이 돼버렸다.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 중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식생활의 서구화도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지방식은 전립선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꼽힌다. 이에 성기능과 배뇨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립선에 이로운 음식인 양파의 효능을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채소로 토마토를 들 수 있다.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비타민 C, E와 같은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라이코펜은 전립선에 아주 유용하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 요리를 주 10회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45% 낮았다고 한다. 또 한 가지는 호박이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셀레늄 등이 풍부하다. 셀레늄은 전립선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차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동물실험이지만 폴리페놀이 함유된 녹차가 전립선암의 진전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하루에 10잔정도 마셔야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마늘도 항암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전립선염과 방광염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민일보 2009년 01월 06일 (화)〉

양양군 신년인사회

-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주관한 양양군 신년인사회가 5일 오전 낙산 프레아콘도에서 이진호 군수와 김준식 의장, 송훈석 국회의원, 최현규 교육장, 김춘섭 경찰서장, 임용식 도의원 등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새해인사를 나누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기원했다. 양양/최 훈 기자



〈강원도민일보 2009년 03월 11일(수)〉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식이 10일 오전 일출예식장에서 이진호 군수, 김준식 군의장, 임용식 도의원, 양동창 문화원장, 수강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올 문화학교는 서예, 한시, 한국화, 사물놀이, 통기타 등 8개 과목 15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말 까지 매주 1~2회 개강한다. 양양/최 훈 기자



〈강원도민일보 2009년 04월 10일 (금)〉

3·1 운동 애국정신 잇는다

양양문화원, 오늘 물치만세 운동 90주년 기념식

강원도에서 3·1 만세 운동이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됐던 애국충절의 고장 양양에서 90년 만에 물치만세운동을 기리는 외침이 울려 퍼



진다.

양양문화원은 올해 3·1만세운동 90주년을 맞아 많은 애국열사들을 배출한 강현면 물치주차장에서 10일 오전 11시 물치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 유족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토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기념식은 양양군문화원과 신간회 기념사업회(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장관)가 공동으로 주관, 이진호 양양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해 90년 전의 합성을 재연하게 된다.

양양문화원 양동창 원장은 “그동안 양양군에서는 매년 충렬사와 현북면 기사문 3·1 운동유적비가 있는 만세고개에서만 3·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개최돼 왔다”며 “강현면은 물론 양양군 일대에서 켜기한 3·1만세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양양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양양 물치만세운동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에서는 지난 1919년 3.1운동 당시 양양면 임천리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선도자 22명을 일본이 강제로 체포하고 태극기 374장을 압수하자 양양군민 1600여명은 양양읍 장날인 4월 4일 장터에서 일제히 봉기했으며 5일에는 강현면 농민 500명이 물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최 훈 기자



〈강원도민일보 2009년 06월 01일 (월)〉

양양 현산문화제 3일 개막 남대천 둔치서 3일간 화합 한마당 6일 '한마음 달리기 대회' 도 개최

양양군민들의 화합과 한마당 축제의 장인 제31회 현산문화제 및 제41회 군민체육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펼쳐진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주혁)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현산문화제는 3·1운동 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로 영북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모네기를 끝낸 푸른 들녘을 배경으로 개최되는 올 행사는 첫날인 3일 오후 균형리 고치물에서 장군성황제와 고치물제를 시작으로 양양고밴드를 앞세워 대포수군만호행차, 제등행렬 등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저녁 8시30분부터는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랑이 진행된다.

축제 이틀째인 4일 부터는 영신굿, 추성판소리, 민요경창, 수동골 상여소리 등 문화공연과 농악, 사물놀이,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꽃누르미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가 마련돼 문화축제 한마당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충일인 6일 오후 1시30분 문화복지회관 앞 광장에서는 제31회 현산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강원도민일보사 주최 '오색 케이블카 설치 기원 제9회 양양군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가 열려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지펠냉장고, 드림세탁기, 김치냉장고, 전기오븐레인지, 자전거 50대 등의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김주혁 위원장은 “현산문화제는 독립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달리 봄철에 개최되고 있다”며 “호국의 고장이자 신석기부터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선사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고장으로서의 맥을 잇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양/최 훈 기자

〈강원일보 2009년 06월 05일 (금)〉

관광객 넘쳐나는 양양 현산문화제

탁장사 뽑기 등 각종 체험행사 북적...군민 체육대회도 성황
양양 현산문화제 개막식이 4일 열려 식후행사로 조산초교, 강현초교, 손양초교 어린이들의 농악공연이 진행됐다.

양양 현산문화제 개막식이 4일 오전 10시 이진호 군수와 김준식 군의장, 김주혁 현산문화제위원장, 양동창양양문화원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현산문화제 이틀째인 이날 개막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군청 앞 사거리와 시내일대에서 남·여학생 190명이 참가해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다.

개막식에서는 양양군 제14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 6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치러졌다. 또 식후행사로 조산초교, 강현초교, 손양초교 어린이들의 농악공연과 양양초교 고적대 시범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펼쳐진 민속행사에서는 탁장사 뽑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가장 흥미를 끌었던 탁장사 뽑기에는 2명이 한조로 20개팀이 참가해 힘자랑을 벌였으며 동호리 멀치후리기 시연, 목침뺨기, 제기차기, 투호대회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그네와 널뛰기 등 체험행사장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현산문화제와 함께 열린 제41회 군민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게이트볼, 마라톤 등 총 13개 종목 900명의 선수가 출전해 각 읍·면 간 스포츠경기를 통해 개인과 단체의 역량을 겨뤘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린 가요베스트에서는 송대관, 현숙, 김종환, 추가열, 조항조 등 인기가수 16명이 출연해 애창곡을 군민들과 함께 부르며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우고 대미를 장식했다.

양양=이경웅기자

〈강원일보 2009년 12월 4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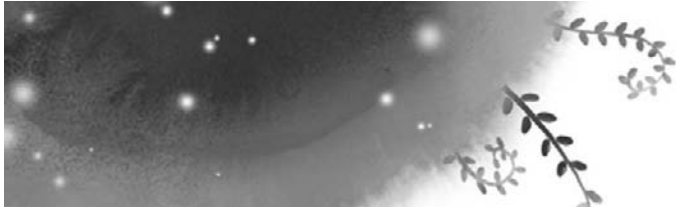
탁구삼 장사의 후예들 ‘으랏차차’ 150kg 통나무 번쩍

[강원의 향토문화를 찾아서](6)양양군 탁장사 놀이

어성전 2리 주민들 조선시대 탁장사 설화 문화콘텐츠화 가족 단위 체험·휴양지로 유명세

통나무 던지기·줄다리기·지게지기·목도놀이 체험마당 인기 ... 양양문화원 집대성 작업 추진

양양군에는 오래전부터 구전(口傳)을 통해 ‘탁장군(卓將軍)’ 또는 탁장사(卓壯士)와 관련된 설화가 폭넓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주로 서면과 현북면 인근에서 전승되는 이 설화는 기존의 설화들과 달리



평범한 서민형 인물에 관련된 것으로 19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책자에 소개될 정도로 문헌적으로 정리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삼국유사의 '낙산사 연기설화' 나 조신설화' 를 비롯, 영혈사(靈穴寺) 관련 설화 등 다수의 설화가 양양군 곳곳에서 전하지만 '탁장사' 와 관련된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언론과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민속놀이로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제 '탁장사 놀이' 는 양양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탁장사 설화

탁장사와 관련된 설화는 조선시대 말 경북궁 중건을 하기 위해 전국의 목재를 모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 서남쪽에 위치한 당시 '개자니골' 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가매소골' 사이에 있는 '바디재' 에 황장목을 금양(禁養) 하던 산림이 있었다. 당시 양양과 강릉의 주민들이 양 고을의 경계 지점인 '바디재' 에서 벌목 부역을 하던 중 모양이 우람한 큰 나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했다.

고을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그 고을이 나무를 차지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나무는 경계에 쓰러지게 됐다. 이번에는 나무를 지고 가는 고을이 나무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강릉 '연곡(현 퇴곡리)' 에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난 권장사가 먼저 나무를 지고 일어서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반면 양양 서면 '소래(현 송천리)' 에 사는 탁구삼(卓龜參) 장사가 나무를 지고 일어나 '서림' 까지 넘어오자 소래 사람들은 잔치를 열고 이를 자축했다.

실제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는 아직까지 탁씨 집성촌이 형성돼 있고 탁구삼 장사의 묘소도 조성돼 있어 이곳에서 탁장사의 시제가 열



린다고 한다. 이후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잔치가 벌어졌고 장사가 난 마을은 풍년이 들고 번성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현산문화제와 양양 송이축제, 탁장사 마을 체험 등을 통해 그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강릉원주대 장정룡교수는 ‘양양 탁장사 설화연구’에서 “양양지역의 전승놀이에는 농경사회의 생활상과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상이 많다”며 “지역인물과 산간 생활문화를 선양하고 계승하는 측면에서 탁장사 설화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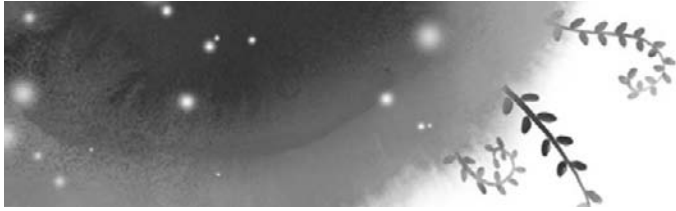
■ ‘탁장사마을’ 여성전 2리

양양읍에서 양양대교를 건너 우측으로 난 길을 타고 잘 닦인 산길을 따라 남대천 물줄기를 끼고 30~40분 정도 내 달리다 보면 현북면 여성전2리 ‘탁장사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마을 이름인 여성전(漁城田)은 “물고기가 밭을 이루고 성을 쌓는다”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고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선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전2리 ‘탁장사 마을’로 접어들어 마을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탁장사 마을 체험관’이 눈에 들어온다.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곳은 탁장사 설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가족단위 여름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탁장사 놀이체험에서는 통나무 던지기를 비롯해 통나무 줄다리기, 탁장사 지게지기, 목도놀이 등 네마당으로 체험마당을 구성해 ‘탁장사 놀이’를 콘텐츠화했다. 올해 여름에만 2,000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탁장사 마을을 찾았다고 한다.

여성전 2리 탁장사 마을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탁장사 놀이’를 문화 콘텐츠화하는데 성공, 마을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육성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마을의 소득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임순영(57) 여성전 2리장은 “2000년도 이전에는 겨울나기 탁장사’ 라는 테마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며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운영 되면서 탁장사 놀이를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시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이장은 “아직까지 마을에 탁장사를 상징할 만한 뚜렷한 포인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탁장사 마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형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탁장사 놀이 전승

‘탁장사 설화’가 ‘탁장사 놀이 민속’으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1984년 6월 제2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서 소개되면서 부터다.

당시 마을사람들의 고증을 통해 재현된 ‘탁장사 놀이’는 모두 여섯마당으로 재현됐다. 첫째 마당은 ‘나무터 오르기’로 양쪽 마을의 나무꾼들이 관목이 있는 나무터로 오르기 위해 산길을 따라 지계를 지고 산을 오르며 목발춤에 양양아리랑을 부른다. 둘째 마당인 ‘목재 차지하기’는 나무꾼들이 나무터에서 관목이 서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무가 넘어지는 쪽의 마을이 차지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산신제를 올린다. 셋째 마당은 ‘지계 줄다리기’로 양 마을 나무꾼들이 나무에 줄을 매고 지계 줄다리기를 한다. 이때 한편에서는 톱질을 하고 관목은 마을 경계에 넘어진다.

넷째 마당은 ‘마을장사 힘겨루기’로 마을 경계에 넘어진 관목을 양쪽 마을에서 힘센 사람이 대표로 나와 지계로 가면 차지하기로 합의한다. 강릉 가매소골 권 장사가 지계를 지려다 실패하고 양양 개자니



곧 탁장사가 한번에 지계를 지고 일어나 양양 마을쪽으로 걸어온다. 양양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강릉사람들은 원통해 한다. 다섯째 마당은 ‘탁장사 지계가마 태우기’로 관목을 차지하게 된 양양사람들이 탁장사를 지계가마에 태우고 한바탕 마당놀이를 한다. 이어 목도꾼들이 목도로 하산을 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째 마당에서는 양양 나무꾼들이 강릉 나무꾼들에게 함께 놀 것을 권유하고 양쪽 마을 사람들은 승패와 관계없이 신명나게 마당놀이를 한다.

‘양양 현산문화제’와 ‘송이축제’에서 넷째 마당에 해당하는 ‘마을장사 힘겨루기’가 매년 시연되고 있으며 ‘탁장사 마을’에서 다섯 마당으로 나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탁장사 마을’에서는 또 양양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탁장사 설화’에 ‘마당놀이’ 요소를 가미한 ‘탁장사 마당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탁장사 마당놀이’는 지난 7월 KRA(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 시행한 농촌전통테마마을 향토문화행사 지원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임 이장은 ‘탁장사 마당놀이’는 목도놀이, 나무차지하기, 나무던지기, 나무 지게지고 옷놀이 등의 놀이에 민속놀이 등이 결합된 것”이라며 “예전 동네 어른들이 대보름날 등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하던 풍습과 탁장사 놀이가 합쳐진 형식”이라고 소개했다.

■ 탁장사 놀이 전승의 어려움

‘탁장사 놀이’는 다른 지역 민속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탁장사 놀이’의 전승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탁장사 놀이를 포함한 양양군 지역의 전통 민속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젊은이들이 ‘탁장사 놀이’ 등 전통을 이어서 민속을 공부한다거나 또 그 지역에서 전수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애착을 갖고 민속을 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양문화원 차원에서 최근 양양군의 역사와 민속 등을 찾아내 집대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탁장사 등 지역 민속에 대한 다양한 자료 등도 상당부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74) 양양 향토사연구소장도 “양양지역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사료 등 향토사에 대해 세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이장은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실제 탁장사 놀이를 시연했던 분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어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탁장사 놀이를 하는 분들이 3~4년 안에 80세를 넘어서게 돼 전승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향토자료를 수집합니다.

양양의 역사와 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들이 각 개인이나 단체, 집안에 소장되어 그대로 잠자고 있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 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문화원에서는 양양문화의 뿌리를 찾고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자 양양의 과거 기록이 담긴 문헌자료, 사진, 유물 등을 수집 보존하고자 합니다.

수집대상 자료

- 양양과 관련한 古書, 古文獻, 古地圖
- 양양토박이로서 선조들의 기록이 담긴 族譜
- 양양지역에 거주한 인물의 일기장, 문집
- 양양의 과거 생활이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 및 기록
- 양양의 전래풍습, 민요 또는 전설, 일화등
- 고증이 되지 않은 각종 고문서
- 양양지역과 관련한 모든 기록자료
(신문, 잡지, 책자, 팸플릿, 문서 등)
- 기타 양양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제공한 자료는 문화원에서 체계적인 분류를 거친 후 보존하겠으며, 원본 제공이 곤란하다면 문화원에서 영인 작업을 한 후 되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옛 사진은 양양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복원시키는 작업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보낼 곳 :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우)215-805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82-1
(양양문화원)
전화 : (033)671-8762 팩스 : (033)672-7267
E-mail : chsum@naver.com



현산문화 원고를 모집합니다.

양양문화원은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옥고를 환영합니다.

민속, 민담, 전설, 양양군에 관계되는 향토사료, 문화관계글, 향우회 및 향우소식, 마을 소식, 미담, 수상, 기행문 및 시, 소설, 수필, 제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봉투에 〈현산문화 원고〉라고 반드시 표시해주시요.

보낼 곳: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우)215-805 강원도 양양
군 양양읍 서문리 182-1
(양양문화원)

전화 : (033)671-8762

팩스 : (033)672-7267

E-mail : chsum@naver.com

편집후기

하루하루 지나는 날들은 새삼스러움이 없는데 한해가 바뀌는 것은 새삼스러워
집니다.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셔서 문화원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향기가 묻어나는 현산문화와 함께 새로운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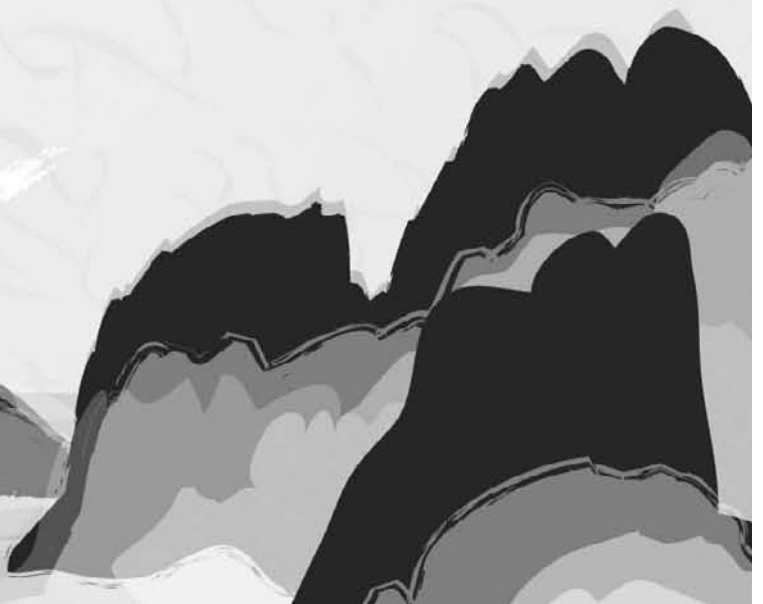
앞으로도 새로운 향토자료의 발굴과 편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문화가족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유난히 매섭게도 추운 날 새해 아침.

교정을 마치면서.....

事務局長 金光泳



MEMO



MEMO



MEMO



MEMO



MEMO



현산문화 제21호

2010年 2月 18日 印刷

2010年 2月 24日 發行

발행인 : 양 동 창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